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Survey on Rural Well – being



안전



경제활동



문화여가



가족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교육



지역사회 및
공동체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14037호

발 행 일 2022년 3월

발 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김상남

편 집 농업환경부장 김경미, 농촌환경자원과장 홍석영

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이민우 농업연구관, 최윤지 농업연구관,
김태화 박사후연구원, 민소영 연구원, 홍은정 연구원
코뮤니타스 신동호 대표, 전윤정 선임연구원, 조이슬 선임연구원,
홍근택 연구원, 우영민 연구원, 박련정 연구원
부경대학교 박인호 교수, 경북대학교 이강형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김경화 교수, 김창열 교수

발 행 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55365)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전 화 063-238-2632

인 쇄 처 코뮤니타스 053-746-0021

ISBN 978-89-480-7365-2 93520

머 리 말

농어촌의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고 생활 여건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2004년 3월,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 법률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과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이 수립·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농어촌의 복지, 교육, 기초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사업과 농어촌서비스기준·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실질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이 수립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 실태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매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는 2021년 9월 1일에서 10월 15일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3,999가구를 대상으로 공통 문항인 생활 전반 부문과 당해 연도 조사 부문인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총 3개 부문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가 관련 정책, 연구 및 지도 현장에서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 이용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전국의 표본 가구 조사 대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3월

연구진 일동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수록함.
2. 보고서에 수록된 결과분석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읍면의 실제 가구 수 분포와 읍면 내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의 확률상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의 추출확률을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3. 조사결과의 전체 합계와 각 항목 값이 모두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합계의 수치가 각 항목 값의 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4. 보고서의 통계표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5. 통계표 작성 시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응답자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제시하였음.
6. 통계표에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는 비워둠. 통계표에 0.0으로 표시된 경우는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 이하 숫자가 반올림 된 것임(예 : 0.03).
7. 이 보고서는 일부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8.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보고서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임을 기재하여야 함.
9.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063-238-2632)로 문의 바람.

조사 결과 요약

조사연구 개요

주요 조사 결과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1

조사연구 개요

➡ 조사 목적

-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8.28.)

➡ 조사 연혁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2004. 8.~1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2008.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2008. 10.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 명칭 변경
2013. 3.	농촌진흥청으로 조사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2013. 9.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 명칭 변경, 조사 주기, 조사 내용 등 변경 승인
2016. 8.	통계승인번호 변경 : 제11437호('04.8.31.) → 제114037호('16.8.28.)
2019. 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로 조사 명칭 변경

👉 조사 체계

- 조사 주기 : 1년(5년 1주기)

구분	주요 조사내용		조사대상
1년 차(2018년)	종합 조사		농어촌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2년 차(2019년)	부문별 조사	경제활동, 문화·여가 등	농어촌 4,000가구
3년 차(2020년)		교육, 가족, 지역사회 및 공동체 등	
4년 차(2021년)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5년 차(2022년)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	

- 1년 차 종합 조사와 2~5년 차 부문별 조사가 1주기를 구성하는 체계
- 종합 조사는 농어촌 주민 및 삶의 질 비교를 위해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문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함

- 공표 시기 : 매년 3월 31일

👉 표본 설계 및 조사방법

구분		내 용
표본 설계	모집단	● 전국 읍/면 지역의 모든 가구
	표본추출틀	●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파악한 조사구들로 MDIS에 탑재된 명부
	표본규모	● 전국 농어촌 지역 3,999가구(응답률 99.9%)
	표본추출방식	● 다단계통화집락추출 - 1차 추출 : 표본 읍/면 추출 - 2차 추출 : 읍/면 내 조사구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 : 표본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만 19세 이상) ● 조사기간 : 9월 1일~10월 15일(약 1.5개월)

👉 2021년 조사내용

- 공통 문항인 생활 전반 부문과 당해 연도 조사 부문인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총 3개 부문 68개 문항

구분	조사문항
가구 정보	가구주와의 관계, 성, 혼인상태, 연령, 학력, 동거 여부, 농어가 여부, 가족 수, 가구 구성, 65세 이상 가구원 현황, 결혼 이민자 현황, 장애 가구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생활 전반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월 평균 생활비, 저축 및 부채 현황, 농어가 소득 구조, 영농형태(농어가), 이주 실태, 5년 이내 이주 의사,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주관적 건강 상태, 정신건강,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보건의료	의료기관 이용실태, 공공의료기관 이용실태, 응급실 이용실태, 질병치료 시 어려움, 필요 보건의료 서비스 과목, 보건의료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공적연금 가입실태, 기타보험 가입현황,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정신건강 인식,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실태,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신규문항

2

주요 조사 결과¹⁾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가구주'가 72.0%, '여성'이 57.1%, [60대 이상] 연령층이 43.9%, 혼인상태로 '유배우'가 57.0%
- '고등학교'(34.7%), '대학교'(25.1%), '대학원 이상'(2.0%) 등 [고등학교 이상] 학력층이 61.8%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3,999)	100.0	합계			(3,999)	10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2,879)	72.0	연령	30대 이하	(669)	16.7		
	가구주 배우자	(1,120)	28.0		40대	(734)	18.4		
합계			(3,999)		100.0	50대	(840)	21.0	
성	남	(1,717)	42.9		60대	(829)	20.7		
	여	(2,282)	57.1		70대 이상	(927)	23.2		
합계			(3,999)	100.0	합계			(3,999)	100.0
혼인 상태	유배우	(2,280)	57.0	학력	무학	(362)	9.1		
	미혼, 비혼	(421)	10.5		초등학교	(719)	18.0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등)	(1,299)	32.5		중학교	(446)	11.1		
			고등학교		(1,387)	34.7			
			대학교		(1,004)	25.1			
			대학원 이상		(81)	2.0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농어가가 29.2%,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 '2세대 가구'가 41.5%
- '2인 이상 가구'가 69.1%였으며,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8.2%, '65세 미만 1인 가구'는 12.7%
-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43.1%, 결혼 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1.3%,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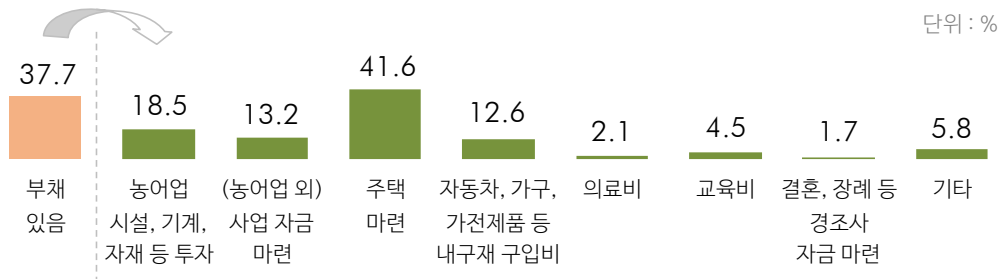
1)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 과정을 거쳐 SPSS를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함

👉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 주택의 노후 정도는 평균 24.2년, 주택 종류로 '단독주택'이 53.9%, 점유형태는 '자가'가 72.3%
- 교통수단 보유 가구는 78.6%, 보유 교통수단의 종류로 '승용차'가 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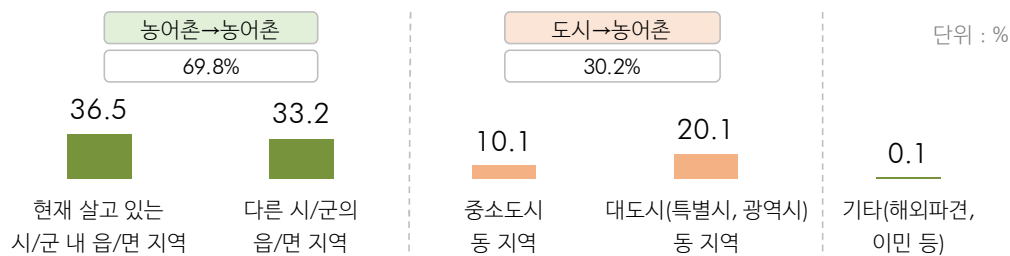
👉 저축 및 부채 현황

-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층이 43.2%였으며,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저축층 비율이 높음
- 부채가 있는 가구가 37.7%로 나타난 가운데, 부채 보유층(n=1,467)의 부채 원인으로 '주택 마련'(41.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어업 시설, 기계, 자재 등 투자'(18.5%), '농어업 외) 사업 자금 마련'(13.2%),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12.6%) 순



👉 이주 실태

- '이주했다'(59.2%),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5.7%) 등 [이주민]이 64.8%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35.2%) 비율보다 높음
-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면 지역'(36.5%),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33.2%)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69.8%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20.1%), '중소도시 동 지역'(10.1%)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30.2%)에 비해 많음



➡ 5년 이내 이주 의사

- 향후 5년 내 이주할 의향이 있는 층이 10.2%
- 이주 의향층(n=407)의 이주 희망 이유로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관련 사유'(27.6%), 취업,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27.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주택 구입, 계약 변동, 재개발 등 '주택 관련 사유'(23.9%) 또한 높음

단위 : %(명)

구분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생활환경 관련 사유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	자녀교육 때문에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상의 이유로
합계 (407)		27.3	23.9	1.4	27.6	0.1	10.8	8.8	0.0
읍/면	읍 (272)	27.6	24.5	1.6	29.2		8.7	8.4	
	면 (136)	26.8	22.8	1.1	24.2	0.2	15.2	9.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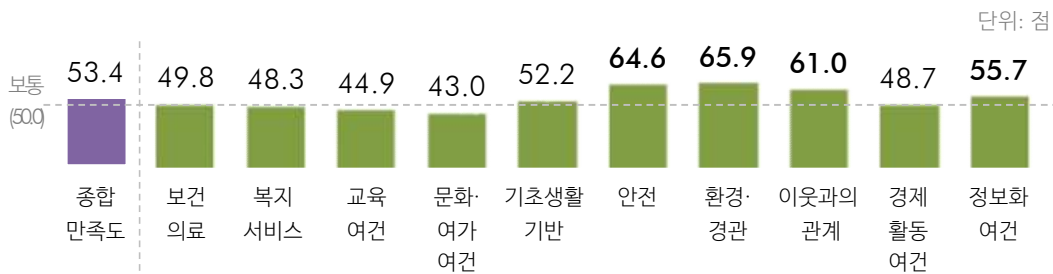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 '보건의료'(평균 82.3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전'(평균 80.5점), '복지 서비스'(평균 80.1점), '기초생활기반'(평균 78.6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77.9점), '환경·경관'(평균 75.5점), '이웃과의 관계'(평균 72.1점)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보임
- '교육 여건'(평균 67.4점), '문화·여가 여건'(평균 65.9점), '정보화 여건'(평균 65.8점)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단위 :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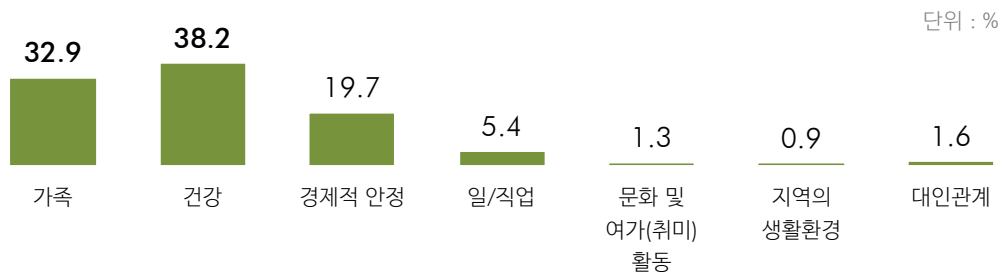
구분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여건	기초 생활 기반	안전	환경· 경관	이웃 과의 관계	경제 활동 여건	정보화 여건
합계 (3,999)		82.3	80.1	67.4	65.9	78.6	80.5	75.5	72.1	77.9	65.8
읍/면	읍 (1,926)	84.6	83.1	74.7	72.1	81.5	83.6	78.6	72.1	81.5	71.1
	면 (2,073)	80.2	77.4	60.7	60.2	75.9	77.6	72.6	72.1	74.7	60.9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81.9	79.2	65.0	62.6	78.3	80.6	75.1	76.2	78.5	61.6
	비농어가 (2,830)	82.5	80.6	68.4	67.3	78.8	80.5	75.7	70.5	77.7	67.5

- 농어촌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도가 평균 53.4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보이는 가운데, 세부 영역별로는 '환경·경관'(평균 65.9점), '안전'(평균 64.6점), '이웃과의 관계'(평균 61.0점), '정보화 여건'(평균 55.7점)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임
- 한편,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던 '기초생활기반'(평균 52.2점), '보건의료'(평균 49.8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48.7점), '복지서비스'(평균 48.3점)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교육 여건'(평균 44.9점), '문화·여가 여건'(평균 43.0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7.5점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38.2%), '가족'(32.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경제적 안정'(19.7%) 비율도 높았음. 다음으로 '일/직업'(5.4%), '대인관계'(1.6%), '문화 및 여가(취미)활동'(1.3%), '지역의 생활환경'(0.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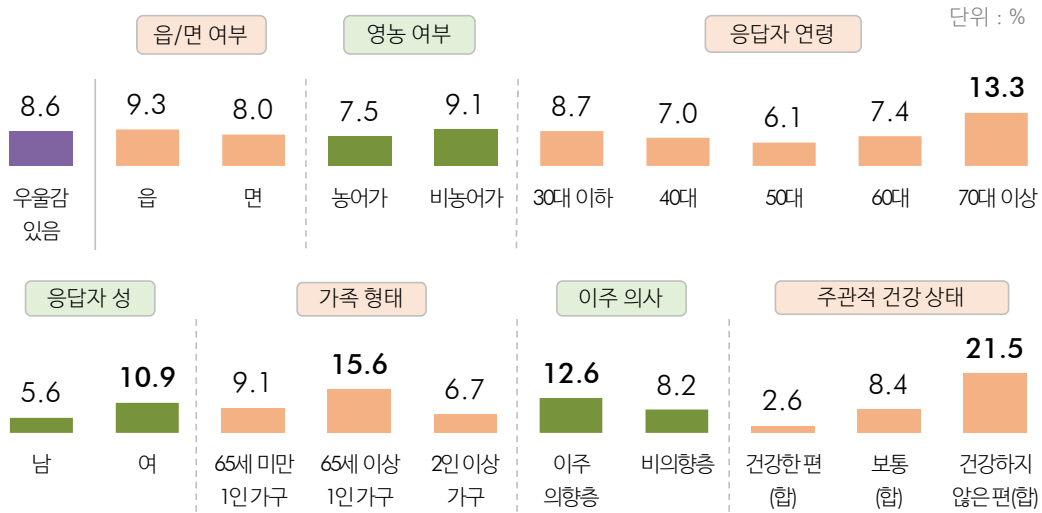


➡ 주관적 건강 상태

- '건강한 편이다'(44.9%) 등 [건강한 편(합)] 비율이 48.3%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0.8%) 등 [건강하지 않은 편(합)](23.4%)에 비해 높음

☞ 정신건강

-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층은 8.6%였으며, 7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 65세 이상 1인 가구,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 주관적 건강 상태를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인지하는 층에서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 [나빠진 편(합)] 비율이 32.2%로, [좋아진 편(합)](21.2%)에 비해 높음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아졌다	좋아진 편이다	좋아진 편(합)	보통 이다	나빠진 편이다	매우 나빠졌다	나빠진 편(합)
합계 (3,998)			0.7	20.4	21.2	46.7	28.0	4.2	32.2
읍/면	읍 (1,926)		0.5	24.2	24.7	46.8	23.7	4.8	28.5
	면 (2,072)		1.0	16.9	17.9	46.5	32.0	3.6	35.6
영농 여부	농어가 (1,168)		1.0	18.9	19.9	44.0	32.4	3.7	36.1
	비농어가 (2,830)		0.6	21.0	21.7	47.8	26.2	4.3	30.5

보건의료

☞ 의료기관 이용실태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83.6%)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진료소'(1.4%), '보건소(지소)'(1.3%), '보건의료원'(0.5%) 등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1%

단위 : %(명)

구분		보건 의료원	보건소 (지소)	보건 진료소	공공의료 기관	병(의)원	한방 병(의)원	종합병원	민간의료 기관
합계 (3,977)		0.5	1.3	1.4	3.1	83.6	1.4	11.8	96.9
읍/면	읍 (1,918)	0.3	0.4	0.3	1.0	86.3	1.6	11.0	99.0
	면 (2,059)	0.6	2.1	2.5	5.1	81.0	1.3	12.6	94.9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0.7	2.2	3.1	6.0	78.4	1.5	14.1	94.0
	비농어가 (2,811)	0.4	0.9	0.7	2.0	85.7	1.4	10.9	98.0

- 의료기관 이용 횟수로 '월 1회 미만'(53.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월 1-2회'(30.8%) 비율도 높음
- 의료기관까지 주로 '자가용'(57.8%)으로 이동하며, '대중교통'은 25.9%, '걸어서'는 15.0%
-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5.8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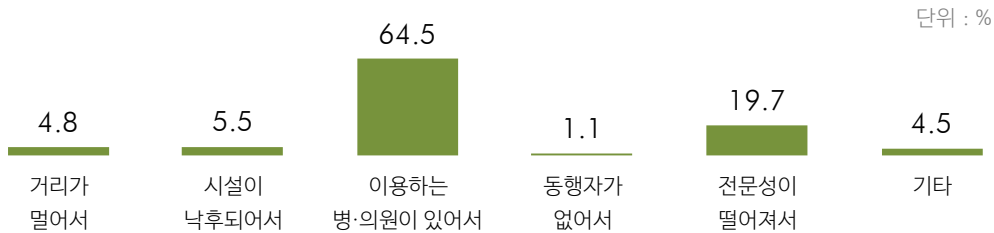
☞ 공공의료기관 이용실태

-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층은 31.1%였으며, 이용 사유는 '예방접종을 위해서'(38.1%),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서'(20.4%), '기타 질환치료를 위해서'(16.1%), '건강검진을 위해서'(13.5%) 순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공공의료기관 이용 사유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응급상황 이어서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서	건강 검진을 위해서	기타 질환 치료를 위해서	물리 치료를 위해서	예방 접종을 위해서	기타
합계		(3,999)	31.1	(1,234)	1.8	20.4	13.5	16.1	2.8	38.1	7.4
읍/면	읍	(1,926)	27.9	(531)	2.7	10.5	18.1	10.6	2.7	40.1	15.4
	면	(2,073)	34.1	(703)	1.1	27.8	10.1	20.3	2.8	36.6	1.3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41.6	(483)	0.9	25.6	5.9	22.4	2.4	41.0	1.8
	비농어가	(2,830)	26.7	(751)	2.3	17.0	18.5	12.1	3.0	36.2	10.9

-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층(n=1,210)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71.1점으로 '다소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
- 공공의료기관 비이용층(n=2,698)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하는 병·의원이 있어서'(64.5%)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성이 떨어져서'(19.7%), '시설이 낙후되어서'(5.5%), '거리가 멀어서'(4.8%), '동행자가 없어서'(1.1%) 순



👉 응급실 이용실태

-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경험층은 12.6%로 나타난 가운데, 이용의 주된 원인은 '응급질환발생'(73.0%)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정내 안전사고'(18.8%), '농작업 안전사고'(4.8%), '교통사고'(1.9%), '농약중독'(1.6%) 순

단위 : %(명)

구분			교통사고	농작업 안전사고	가정내 안전사고	농약중독	응급질환발생
합계 (505)			1.9	4.8	18.8	1.6	73.0
읍/면	읍 (244)		1.2	0.1	22.9	0.5	75.2
	면 (260)		2.5	9.2	14.9	2.5	70.9
영농 여부	농어가 (153)		4.1	11.5	6.9	2.8	74.6
	비농어가 (351)		0.9	1.8	23.9	1.0	72.3

- 응급질환발생 유형(n=368)으로 '소화기질환'(30.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15.3%), '호흡기질환'(14.1%), '외상'(11.7%), '심혈관질환'(9.0%) 순
- 응급실 이용 경험층(n=502)의 응급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3.1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
-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30분 이내(합)]가 78.6%였으며, '1시간 이내'는 21.4%
- 응급실 이동 시 주된 교통수단은 '개인용 차량'(58.2%), '구급차' 이용률은 34.9%로 나타난 가운데, 구급차 이용층(n=176)의 경우, 구급차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수준'(평균 80.7점)의 평가

☞ 질병치료 시 어려움

-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치료비가 부담된다'(29.9%)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14.9%),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13.1%),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10.9%),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8.9%) 순이었으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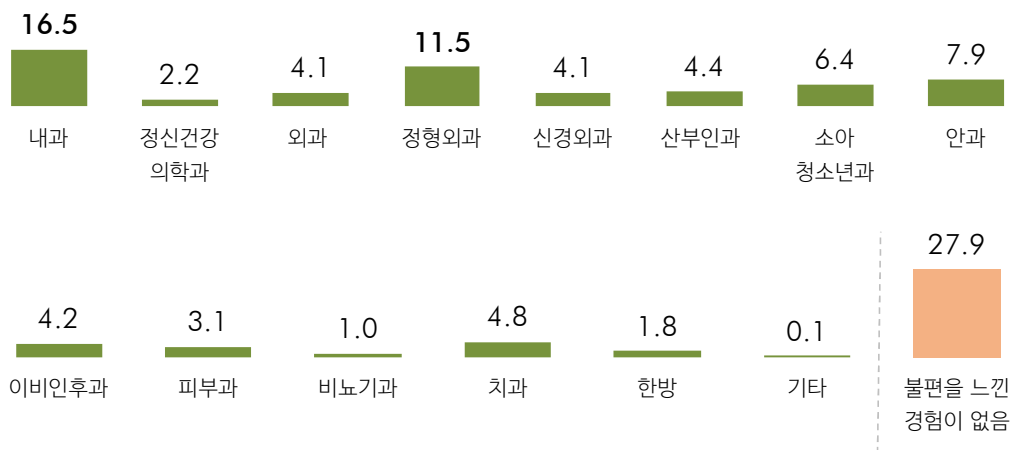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치료비가 부담된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합계 (3,991)			29.9	13.1	14.9	10.9	8.9	22.3
읍/면	읍 (1,919)		26.2	15.5	19.3	6.1	7.0	26.0
	면 (2,072)		33.4	10.8	10.8	15.3	10.7	18.9
영농 여부	농어가 (1,167)		30.6	14.2	11.1	16.6	6.1	21.5
	비농어가 (2,824)		29.7	12.6	16.4	8.5	10.1	22.7

☞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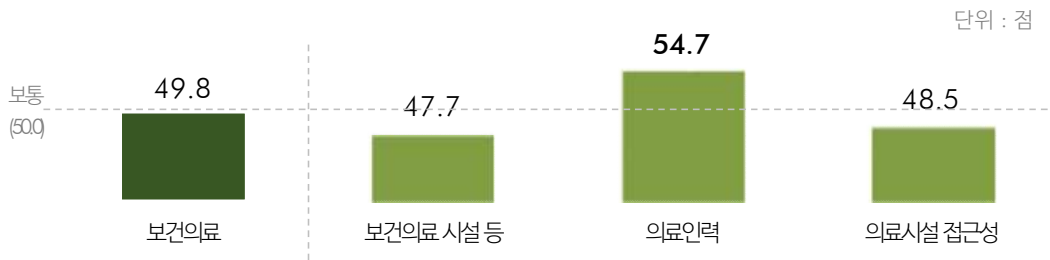
- 평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꼈던 진료과목은 '내과'(16.5%), '정형외과'(11.5%), '안과'(7.9%), '소아청소년과'(6.4%), '치과'(4.8%), '산부인과'(4.4%), '이비인후과'(4.2%), '외과', '신경외과'(각 4.1%), '피부과'(3.1%), '정신건강의학과'(2.2%), '한방'(1.8%), '비뇨기과'(1.0%) 순

단위 : %



☞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 거주하는 지역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4.7점으로 보건의료 여건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음
-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8.5점, 보건의료 시설이나 장비 여건 등 '보건의료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7.7점으로 보건의료 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 '직장가입자'(40.0%), '지역가입자'(32.7%)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층은 95.7%

단위 : %(명)

구분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수급
합계 (3,996)		40.0	32.7	23.0	95.7	2.3	2.0	4.3
읍/면	읍 (1,926)	51.6	32.3	12.9	96.9	1.7	1.4	3.1
	면 (2,069)	29.2	33.1	32.3	94.6	2.8	2.6	5.4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19.6	42.5	35.6	97.8	0.9	1.3	2.2
	비농어가 (2,830)	48.4	28.7	17.8	94.8	2.9	2.3	5.2

-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6.6%)

☞ 공적연금 가입실태

- 전체 가구 기준, 71.8%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가입률은 3.4%였으며, '군인연금'(0.4%), '사학연금'(0.3%) 가입률은 1% 미만으로 낮은 수준

단위: %(명)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합계 (3,999)			71.8	3.4	0.3	0.4	25.5
읍/면	읍 (1,926)		76.5	4.5	0.3	0.1	20.8
	면 (2,073)		67.4	2.3	0.2	0.7	29.9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69.7	2.7	0.2	0.3	27.5
	비농어가 (2,830)		72.7	3.7	0.3	0.5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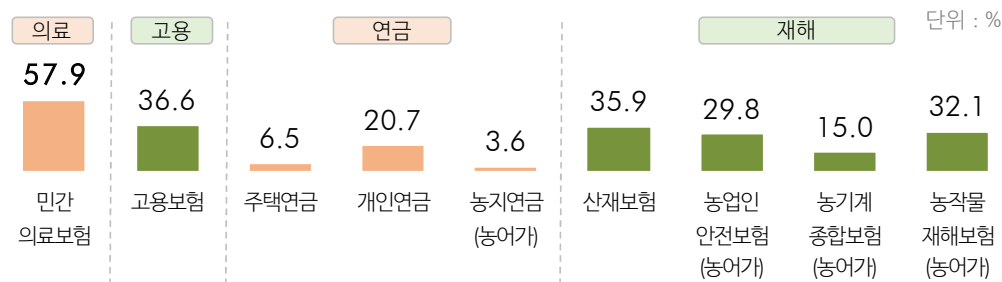
- 납부하는 공적연금 보험료가 [부담됨(합)](51.1%)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
- 공적연금 가입층(n=2,979)의 30.6%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률이 낮았던 '공무원연금'(1.1%), '군인연금'(0.6%), '사학연금'(0.3%)은 수급률 또한 낮게 나타남
- 공적연금 미가입층(n=1,018)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62.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만60세 경과'(21.4%),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12.9%), '노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3.4%) 순

단위: %(명)

구분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노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만60세 경과	기타
합계 (1,018)			12.9	62.1	3.4	21.4	0.3
읍/면	읍 (399)		14.5	71.0	1.7	12.6	0.2
	면 (619)		11.8	56.3	4.5	27.1	0.3
영농 여부	농어가 (321)		10.2	66.1	4.7	18.9	0.1
	비농어가 (697)		14.1	60.2	2.8	22.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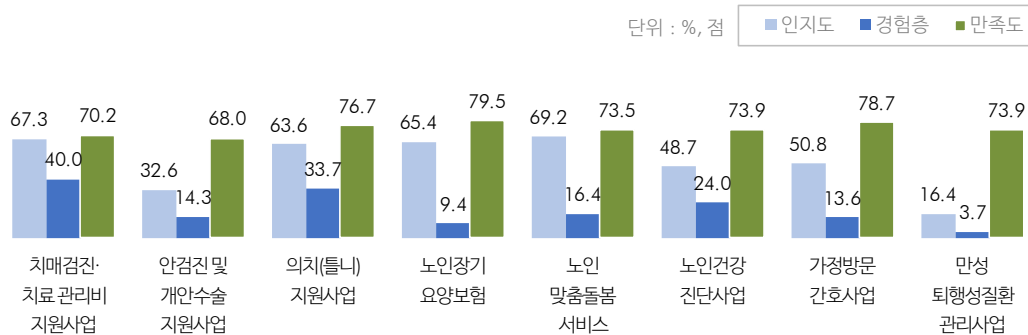
기타보험 가입현황

- 기타보험 중 '민간의료보험'(57.9%)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용보험'(36.6%), '산재보험'(35.9%), '개인연금'(20.7%), '주택연금'(6.5%) 순
- 농업인 보험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32.1%), '농업인안전보험'(29.8%), '농기계종합보험'(15.0%) 순이었으며, '농지연금'(3.6%)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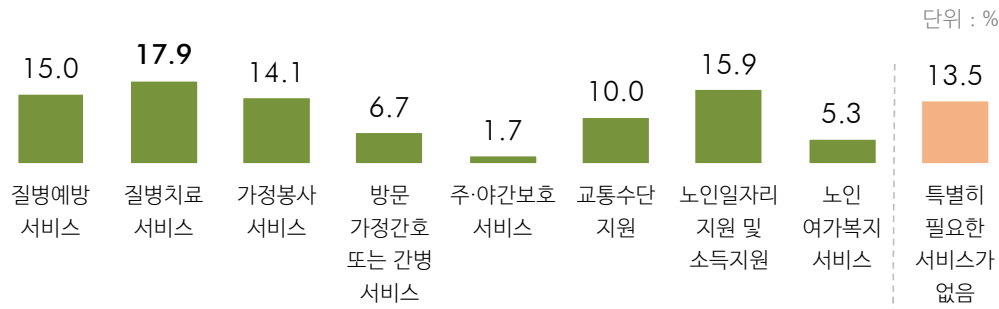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 노인복지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69.2%),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67.3%), '노인장기요양보험'(65.4%), '의치(틀니) 지원사업'(63.6%) 인지도가 60% 이상으로 높았음
- 각 서비스별 이용 경험률은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40.0%), '의치(틀니) 지원사업'(33.7%), '노인건강진단사업'(24.0%), '노인맞춤돌봄서비스'(16.4%),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14.3%), '가정방문간호사업'(13.6%), '노인장기요양보험'(9.4%),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3.7%) 순
- '노인장기요양보험'(평균 79.5점), '가정방문간호사업'(평균 78.7점), '의치(틀니) 지원사업'(평균 76.7점) 등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소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질병치료서비스’(17.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15.9%), ‘질병예방서비스’(15.0%), ‘가정봉사서비스’(14.1%), ‘교통수단 지원’(10.0%) 순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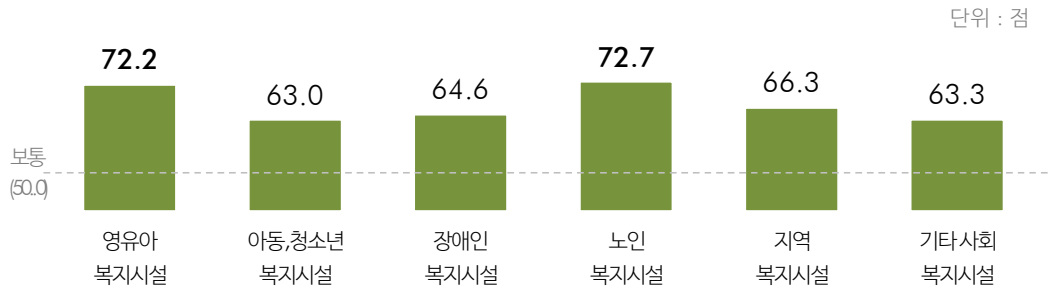
-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40.2%)이 장애가 있는 가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가사지원서비스’(18.2%),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12.5%), ‘이동 편의지원서비스’(10.4%) 순



➡️ 복지시설 이용실태

- 지역 내 주요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인지도가 5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복지시설’(40.6%), ‘영유아 복지시설’(37.9%), ‘장애인 복지시설’(23.0%), ‘아동·청소년 복지시설’(22.7%), ‘기타 사회복지시설’(20.1%) 순

- 각 복지시설별 인지층의 이용률은 ‘노인복지시설’(17.3%), ‘아동,청소년 복지시설’(16.4%), ‘지역 복지시설’(14.9%), ‘영유아 복지시설’(14.8%), ‘기타 사회복지시설’(11.5%) 순이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5.0%)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 복지시설 이용층의 만족도는 ‘노인복지시설’(평균 72.7점), ‘영유아 복지시설’(평균 72.2점)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임



- 복지시설 이용 횟수로 ‘월 1회 미만’(38.0%), ‘월 5회 이상’(33.0%)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 1-2회’(16.4%), ‘월 3-4회’(12.6%) 순
- 복지시설까지 주로 ‘걸어서’(51.9%)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가용’(30.1%), ‘대중교통’(8.3%) 순
- 복지시설까지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13.1분

단위 :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 이상
합계 (660)			13.1분	7.9	23.3	47.7	11.1	10.0
읍/면	읍 (353)		13.4분	2.6	25.4	52.6	9.5	9.9
	면 (307)		12.9분	14.1	20.8	42.0	12.8	10.2
영농 여부	농어가 (154)		10.3분	15.6	29.6	33.3	18.1	3.5
	비농어가 (506)		14.0분	5.6	21.4	52.1	8.9	12.0

- 복지시설 비이용층(n=3,020)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바빠서’(30.8%),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25.5%)였으며,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16.7%), ‘시설이 있는지 몰라서’(13.8%), ‘돈이 없어서’(2.3%) 순

➡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전반적인 복지 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48.0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다소 불만족'(26.0%) 등 [불만족하는 편(합)](27.7%) 비율이 '다소 만족'(19.5%) 등 [만족하는 편(합)](20.4%)에 비해 높음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합)
합계 (3,988)			48.0점	0.9	19.5	20.4	51.9	26.0	1.7	27.7
읍/면	읍 (1,919)	47.9점	0.7	19.3	20.0	52.4	26.3	1.3	27.6	
	면 (2,069)	48.0점	1.2	19.6	20.8	51.5	25.7	2.1	27.7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47.5점	1.0	17.6	18.7	53.1	26.7	1.5	28.2	
	비농어가 (2,822)	48.2점	0.9	20.2	21.1	51.4	25.7	1.8	27.5	

➡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31.5%)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업의 미래 보호'(16.4%), '농촌 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13.9%),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13.4%), '주택의 보급 및 개량'(8.5%),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8.1%),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6.4%) 순

단위 : %(명)

구분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농업의 미래 보호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주택의 보급 및 개량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	기타	
합계		(3,963)	31.5	16.4	8.1	8.5	13.4	13.9	6.4	1.7
읍/면	읍	(1,900)	24.1	18.3	9.2	11.6	11.9	16.2	6.7	2.0
	면	(2,062)	38.3	14.6	7.1	5.7	14.8	11.8	6.2	1.5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48.7	18.7	3.6	4.8	8.9	6.8	5.4	3.0
	비농어가	(2,797)	24.3	15.4	9.9	10.1	15.3	16.9	6.9	1.2



농촌진흥청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목차1
전체 목차

■ 조사연구 개요	43
-----------------	----

제1부 | 개인설문조사

1100.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61
11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2
1102 비동거 가구원 특성	64
1103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65
1104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67
1105 월 평균 생활비	68
1106 저축 및 부채 현황	70
1107 농어가 소득 구조	73
1108 영농형태(농어가)	75

1109 이주 실태	77
1110 5년 이내 이주 의사	82
1111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88
1112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94
1113 주관적 건강 상태	98
1114 정신건강	100
1115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102
1200. 보건의료	104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1201 의료기관 이용실태	105
1202 공공의료기관 이용실태	113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	
1203 응급실 이용실태	120
보건의료 여건 전반	
1204 질병치료 시 어려움	133
1205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136
1206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139

1300.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148
---------------------------	-----

사회안전망

1301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149
1302 공적연금 가입실태	153
1303 기타보험 가입현황	161

건강상태 만족도 및 안녕감

1304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163
1305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165
1306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167
1307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169
1308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171
1309 정신건강 인식	173

노인 복지

1310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177
1311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183

장애인 복지

1312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186
-------------------------	-----

복지 여건 전반

1313 복지시설 이용실태	189
1314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203
1315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205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2100. 보건의료	209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210
2102 만성질환 현황	211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213
2104 건강검진 수진율	214
2105 월 평균 보건의료비	216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를	218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220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221
2109 농작업 손상	222
2110 병상 수	224
2111 보건의료기관 수	227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230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32

2200.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235
2201 치매노인 비율	236
2202 노인의 의존 소득원	237
2203 노인일자리 참여	238
2204 영유아 비율	239
2205 유치원 취원율	241
2206 보육시설 현황	243
2207 장애인 추가비용	252
2208 결혼 이민자 현황	253
■ 부록	255
(1) 전국 표본리스트	257
(2) 항목별 타 자료 비교	261
(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268
(4) 주요 용어 정리	280
(5)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290

목차2
표 목차

제1부 | 개인설문조사

표 1101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62
표 1101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63
표 1102 비동거 가구원 특성	64
표 1103 -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1)	65
표 1103 - (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2)	66
표 1104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67
표 1105 월 평균 생활비	68
표 1106 - (1) 부채 현황	71
표 1106 - (2) 부채 현황 - 추이	72
표 1107 - (1) 전업 또는 겸업 여부 및 겸업의 형태	73
표 1107 - (2) 겸업 농어가의 소득 구조	73
표 1107 - (3) 전업 또는 겸업 여부 및 겸업의 형태 - 추이	74
표 1107 - (4) 겸업 농어가의 소득 구조 - 추이	74

표 1108 - (1) 영농형태(농어가)	75
표 1108 - (2) 영농형태(농어가) - 추이	76
표 1109 - (1) 이주 실태	77
표 1109 - (2) 이주 후 거주기간(타향 이주층)	78
표 1109 - (3) 이주 후 거주기간(고향 이주층)	79
표 1109 - (4) 이주 직전 거주지	80
표 1110 - (1) 5년 이내 이주 의사	82
표 1110 - (2) 이주 희망 지역	84
표 1110 - (3) 이주 희망 이유	86
표 1110 - (4)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87
표 1111 - (1)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89
표 1111 - (2)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91
표 1111 - (3)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추이	92
표 1112 - (1)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94
표 1112 - (2) 행복의 영향 요인	96
표 1112 - (3) 행복의 영향 요인 - 추이	97
표 1113 - (1) 주관적 건강 상태	98
표 1113 - (2) 주관적 건강 상태 - 추이	99
표 1115 - (1)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102
표 1115 - (2)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 추이	103

표 1201 - (1)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105
표 1201 - (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추이	106
표 1201 - (3) 의료기관 이용 횟수	107
표 1201 - (4) 의료기관 이용 횟수 - 추이	108
표 1201 - (5) 의료기관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09
표 1201 - (6) 의료기관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110
표 1201 - (7) 의료기관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111
표 1202 - (1)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 및 이용 사유	114
표 1202 - (2) 공공의료기관 이용 사유 - 추이	115
표 1202 - (3) 공공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116
표 1202 - (4) 공공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 추이	117
표 1202 - (5) 공공의료기관 비이용 사유	118
표 1202 - (6) 공공의료기관 비이용 사유 - 추이	119
표 1203 - (1)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 원인	122
표 1203 - (2)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 원인 - 추이	123
표 1203 - (3) 응급질환발생 유형	124
표 1203 - (4) 응급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25
표 1203 - (5) 응급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26
표 1203 - (6)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127
표 1203 - (7)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 추이	128

표 1203 - (8)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129
표 1203 - (9)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 추이	130
표 1203 - (10)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31
표 1203 - (11)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32
표 1204 - (1) 질병치료 시 어려움	134
표 1204 - (2) 질병치료 시 어려움 - 추이	135
표 1205 - (1)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137
표 1205 - (2)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 추이	138
표 1206 - (1) 보건의료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141
표 1206 - (2)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143
표 1206 - (3)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44
표 1206 - (4)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146
표 1206 - (5)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47
표 1301 - (1)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149
표 1301 - (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151
표 1301 - (3)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 추이	152
표 1302 - (1) 공적연금 가입현황(전체 가구)	153
표 1302 - (2) 공적연금 가입현황(만 19-6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	153
표 1302 - (3) 공적연금 가입현황(전체 가구) - 추이	154
표 1302 - (4)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155
표 1302 - (5)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 추이	156

표 1302 - (6) 공적연금 수급현황	157
표 1302 - (7) 공적연금 수급현황 - 추이	158
표 1302 - (8)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160
표 1303 - (1) 기타보험 가입현황	161
표 1303 - (2) 기타보험 가입현황 - 추이	162
표 1304 - (1)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163
표 1304 - (2)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 추이	164
표 1305 - (1)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165
표 1305 - (2)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 추이	166
표 1306 - (1)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167
표 1306 - (2)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 추이	168
표 1307 - (1)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169
표 1307 - (2)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 추이	170
표 1308 - (1)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171
표 1308 - (2)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 추이	172
표 1309 - (1) 정신건강 인식	174
표 1309 - (2) 정신건강 인식 - 추이	176
표 1310 - (1)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177
표 1310 - (2)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 추이	178
표 1310 - (3)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179
표 1310 - (4)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 추이	180

표 1310 - (5)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	181
표 1310 - (6)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 - 추이	182
표 1311 - (1)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184
표 1311 - (2)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추이	185
표 1312 - (1)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187
표 1312 - (2)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추이	188
표 1313 - (1) 복지시설 인지도	190
표 1313 - (2) 복지시설 이용 경험	192
표 1313 - (3)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194
표 1313 - (4) 복지시설 이용 횟수	196
표 1313 - (5) 복지시설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97
표 1313 - (6) 복지시설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198
표 1313 - (7) 복지시설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199
표 1313 - (8) 복지시설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 추이	200
표 1313 - (9) 복지시설 비용 이유	201
표 1313 - (10) 복지시설 비용 이유 - 추이	202
표 1314 - (1)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203
표 1314 - (2)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추이	204
표 1315 - (1)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205
표 1315 - (2)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추이	206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표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210
표 2102 - (1) 만성질환 현황(1)	211
표 2102 - (2) 만성질환 현황(2)	212
표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213
표 2104 - (1) 건강검진 수진율(1)	214
표 2104 - (2) 건강검진 수진율(2)	215
표 2105 - (1) 월 평균 보건의료비(1)	216
표 2105 - (2) 월 평균 보건의료비(2)	217
표 2106 - (1)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1)	218
표 2106 - (2)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2)	219
표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220
표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221
표 2109 - (1)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222
표 2109 - (2)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223
표 2110 - (1) 병상 수(1)	224
표 2110 - (2) 병상 수(2)	225
표 2110 - (3) 병상 수(3)	226

표 2111 - (1) 보건의료기관 수(1)	227
표 2111 - (2) 보건의료기관 수(2)	228
표 2111 - (3) 보건의료기관 수(3)	229
표 2112 - (1)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1)	230
표 2112 - (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	231
표 2113 - (1)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1)	232
표 2113 - (2)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2)	233
표 2113 - (3)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234
표 2201 치매노인 비율	236
표 2202 노인의 의존 소득원	237
표 2203 노인일자리 참여	238
표 2204 - (1) 영유아 비율(1)	239
표 2204 - (2) 영유아 비율(2)	240
표 2205 - (1) 유치원 취원율(1)	241
표 2205 - (2) 유치원 취원율(2)	242
표 2206 - (1)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1)	243
표 2206 - (2)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2)	244
표 2206 - (3)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3)	244
표 2206 - (4)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4)	245

표 2206 - (5)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1)	246
표 2206 - (6)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2)	246
표 2206 - (7)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3)	247
표 2206 - (8)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4)	248
표 2206 - (9)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1)	249
표 2206 - (10)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2)	249
표 2206 - (11)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3)	250
표 2206 - (12)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4)	251
표 2207 장애인 추가비용	252
표 2208 - (1) 결혼 이민자 현황(1)	253
표 2208 - (2) 결혼 이민자 현황(2)	254

목차3
그림 목차

그림 1105 월 평균 생활비 - 추이	69
그림 1106 - (1) 저축 현황	70
그림 1106 - (2) 저축 현황 - 추이	70
그림 1109 이주 직전 거주지 - 추이	81
그림 1110 - (1) 5년 이내 이주 의사 - 추이	83
그림 1110 - (2)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85
그림 1111 - (1)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88
그림 1111 - (2)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90
그림 1112 - (1) 행복의 영향 요인	95
그림 1112 - (2)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97
그림 1114 - (1) 정신건강	100
그림 1114 - (2) 정신건강 - 추이	101
그림 1201 의료기관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 추이	112

그림 1202 - (1)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 및 이용 사유	113
그림 1202 - (2)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 - 추이	115
그림 1203 - (1) 응급실 이용 경험	120
그림 1203 - (2) 응급실 이용 경험 - 추이	121
그림 1204 질병치료 시 어려움	133
그림 1205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136
그림 1206 - (1)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139
그림 1206 - (2) 보건의료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140
그림 1206 - (3)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142
그림 1206 - (4)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145
그림 1301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 추이	150
그림 1302 - (1) 공적연금 수급현황	157
그림 1302 - (2)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159
그림 1303 기타보험 가입현황	161
그림 1304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163
그림 1305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165
그림 1306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167
그림 1307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169
그림 1309 정신건강 인식	173

그림 1311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183
그림 1312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186
그림 1313 - (1) 복지시설 인지도	189
그림 1313 - (2) 복지시설 이용 경험	191
그림 1313 - (3)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193
그림 1313 - (4) 복지시설 이용 횟수	195

조사연구 개요

조사 목적

법적 근거

조사 연혁

조사 체계

표본 설계

조사원 선정 및 교육

조사방법

조사내용

자료처리 및 분석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1. 조사 목적

-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8.28.)

3. 조사 연혁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2004. 8.~1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2008.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2008. 10.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 명칭 변경
2013. 3.	농촌진흥청으로 조사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2013. 9.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 명칭 변경, 조사 주기, 조사 내용 등 변경 승인
2016. 8.	통계승인번호 변경 : 제11437호('04.8.31.) → 제114037호('16.8.28.)
2019. 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로 조사 명칭 변경

4. 조사 체계

- 조사 주기 : 1년(5년 1주기)

구분	주요 조사내용		조사대상
1년 차(2018년)	종합 조사		농어촌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2년 차(2019년)	부문별 조사	경제활동, 문화여가 등	농어촌 4,000가구
3년 차(2020년)		교육, 가족, 지역사회 및 공동체 등	
4년 차(2021년)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5년 차(2022년)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	

- 1년 차 종합 조사와 2~5년 차 부문별 조사가 1주기를 구성하는 체계
- 종합 조사는 농어촌 주민 및 삶의 질 비교를 위해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문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함

※ 본 조사의 대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 농어업인삶의질법)'의 근거에 따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함. 단, 종합 조사 시에는 농어업인삶의질법의 기본이념(제2조)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시 주민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 분석 자료로 활용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 주민을 말한다.

- 공표 시기 : 매년 3월 31일

5. 표본 설계

①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

- 전국 읍/면 지역의 모든 가구(2015년 기준 등록센서스)

단위 : 명

시도	가구수	인구수
전국	3,334,713	8,032,936
서울	-	-
부산	29,596	72,881
대구	64,848	174,527
인천	33,538	75,301
광주	-	-
대전	-	-
울산	78,311	203,564
세종	37,502	86,838
경기	732,268	1,919,100
강원	211,373	482,115
충북	225,081	533,187
충남	416,384	996,095
전북	193,414	434,577
전남	377,275	855,368
경북	467,213	1,070,741
경남	412,062	986,926
제주	55,848	141,716

② 추출단위(sampling unit)

-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 : 읍/면
-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 : (병합)조사구
- 3차 추출단위(ultimate sampling unit: usu) : 가구

③ 추출 틀(sampling frame)

-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파악한 조사구들로 MDIS에 탑재된 명부²⁾

④ 층화(stratification)

- 1차 층화 : 읍/면 지역으로 층화
- 2차 층화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구분
- 3차 층화 : 내재적 층화(implicit stratification)

아파트 가구 비율, 65세 이상 가구 비율, 농림어가 비율에 따라 지역별 2~3개로 층화

⑤ 표본배분

- 역배분(power allocation)에 의해 지역별 표본배분을 함

[표본배분 기본전략]

기존 표본 설계에서 고려한 배분방식은 Bankier (1988)의 “역배분(power allocation)”로 주어진 표본크기 m 을 층별로 할당할 때, 층별 조사특성 y 의 상대표준오차 $cv_y (= S_y / \bar{Y})$ 와 보조정보 x 에 근거한 크기측도(measure of size, MOS) 혹은 중요도 t_{xh} 의 a 승의 곱에 비례하여 할당함 즉,

$$m_h^{\text{역}} \propto (t_{xh})^a cv_{yh} \quad (1)$$

만약 $a = 1$ 이고 $t_{xh} = t_{yh}$ 이라면 역배분은 네이만배분(Neyman allocation)이 되고, 층별 상대 표준오차가 거의 동일하고 $t_{xh} = M_h$ 이라면 역배분은 층 크기 기준의 절충할당(compromise allocation)이 됨. 주요 조사특성들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대표준오차의 조화평균을 취하여 식 (1)에 적용함

$$\tilde{cv}_{yh} = \left(\frac{1}{Q} \sum_{q=1}^Q cv_{yh}^{-1} \right)^{-1} \quad (2)$$

2) 통계청 MDIS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표본 설계를 위해 외부 자료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 2015년 등록센서스로 변경된 이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값은 제외되어 통계청에서 공표되는 가구 규모에 비해 다소 작은 값이 제공됨

[표본배분 적용]

2013~2017년 총 5년간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설계요소별 조화평균을 계산하고, 이를 식 (2)에 통합하여 기대분산값을 산출함. 이를 식 (1)의 역배분에 적용한 후, 분석영역인 표본층별 상대 표준오차가 적절한 범위를 갖도록 추가적 조정

역배분은 $a = 1/3$ 을 적용하였고, 지역별 표본수를 먼저 계산한 후, 지역별 상대표준오차의 차이가 많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정을 실시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구분	지역	종합조사 (2018)	부문별 조사(2019~2022)	
			추가표본	총계
전국	총계	4,000	-	4,000
읍면부	소계	2,800	1,200	4,000
	경기	300	140	440
	강원	260	120	380
	충북	280	120	400
	충남	320	140	460
	전북	340	140	480
	전남	440	180	620
	경북	380	160	540
	경남	340	140	480
	제주	140	60	200
동부	소계	1,200	-	-
	서울	460	-	-
	광역시	340	-	-
	기타	400	-	-

[6] 표본추출

- 1차 추출 : 표본 읍/면 추출 - 읍/면별 가구수 크기비례확률표집(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 pps) 추출
- 2차 추출 : 읍/면 내 조사구 추출 - 가구수 크기비례확률표집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 조사구 명부 기초로 계통추출

6. 조사원 선정 및 교육

- 조사원 선정 : 3년 이상의 공공조사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며, 1명의 조사원이 50가구 내외를 담당함
- 조사원 교육 : 집합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집합교육 : 투입된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조사방법 및 조사 내용, 유의사항, 친절도에 대한 교육
 - 수시교육 : 응답거부 시 대처방안과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여 문제점 해결
 - 모든 조사원이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하여 조사원 교육 실시

7.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3,999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응답률 99.9%)
 - 전체 4,000가구 중 통상적인 응답률을 고려하여 95%(3,800가구)로 목표 응답률 설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직접면접식과 자기기입식 병행
- 표본 대체 :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대체방안 마련 및 그에 따른 조사 진행
 - 3회 방문 후 대체 진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장기부재,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대체 진행
- 조사 일정 : 9월 1일~10월 15일(약 1.5개월)

8. 조사내용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실태 및 의식에 관한 내용 : 공통 문항인 생활 전반 부문과 당해 연도 조사 부문인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총 3개 부문 68개 문항
- 일반적인 문항의 경우 다항선택형 질문(Multiple-choice Question)과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사용함
- 각종 만족도, 인식 등을 측정하는 척도로 Likert 척도(5점)를 주로 사용함

구분	조사문항
가구 정보	가구주와의 관계, 성, 혼인상태, 연령, 학력, 동거 여부, 농어가 여부, 가족 수, 가구 구성, 65세 이상 가구원 현황, 결혼 이민자 현황, 장애 가구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생활 전반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월 평균 생활비, 저축 및 부채 현황, 농어가 소득 구조, 영농형태(농어가), 이주 실태, 5년 이내 이주 의사,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주관적 건강 상태, 정신건강,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보건의료	의료기관 이용실태, 공공의료기관 이용실태, 응급실 이용실태, 질병치료 시 어려움, 필요 보건의료 서비스 과목, 보건의료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공적연금 가입실태, 기타보험 가입현황,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정신건강 인식,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실태,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신규문항

9.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처리

-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 과정을 거쳐 SPSS를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함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등 평가적 신념과 관련된 문항은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만족 5점~매우 불만족 1점)로 측정한 후 100점 만점 환산 평균값(Mean)을 산출하여 제시함 [100점 만점 환산 : $(X_i - 1) \times 25.0000$, X_i : 측정값]
- 종합만족도 산출방법 : 부문별 만족도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Sigma(\text{부문별 만족도})/n$, n : 부문 개수]

- 보다 효율적인 전략적 방향 수립을 위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IPA)을 병행함
 - 사업(정책)의 가치평가와 향후 자원배분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또는 기업 관리법으로 사업(정책)의 다양한 관리 대상 요인 중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투자할 부분과 상대적으로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관리할 부분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

Portfolio 분석 (IPA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만족도 (점)	현 수준 유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영역]	유지/관리 지속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영역]
	만족도 제고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은 영역]	중점 개선 요망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영역]
		중요도(점)

② 추정

- 표본 추정 : 조사변수 y 의 모총합 Y 은 표본가중합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hat{Y}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sum_{k=1}^{m_{hij}} w_{hijk} y_{hijk}$$

- h : 표본층 구분자
- i : 표본읍면 ($i = 1, \dots, n_h$)
- j : 표본조사구 ($j = 1, \dots, m_{hi}$)
- k : 표본가구 ($k = 1, \dots, m_{hij}$)
- w_{hijk} : 표본층 h 내 읍면 i , 조사구 j , k 번째 표본(응답)가구의 표본가중치
- y_{hijk} : 표본층 h 내 읍면 i , 조사구 j , k 번째 표본(응답)가구의 조사변수값
- n_h : 표본층 h 내 표본읍면수
- m_{hi} : 표본층 h 내 읍면 i 의 표본조사구수
- m_{hij} : 표본층 h 내 읍면 i , 조사구 j , k 번째 표본(응답)가구수

- 모집단 크기 M 도 위의 식을 이용하여 표본가중합의 형태로 정의됨

$$\hat{M}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sum_{k=1}^{m_{hij}} w_{hijk}$$

즉, 조사변수 $1(y_{hijk} \equiv 1)$ 에 대한 표본가중합에 해당함

- 모평균 $\bar{Y}$ 은 표본가중비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hat{\bar{Y}} = \frac{\hat{Y}}{\hat{M}}$$

● 설계가중치

- 단계별 표본포함확률 반영 : 1차 추출단위 읍면과 2차 추출단위인 조사구는 각각 가구수 크기비례계통확률추출로 선택되었고, 3차 추출단위인 가구는 단순계통확률추출로 선택됨. 표본가구 설계가중치는 단계별 추출단위의 설계가중치의 곱으로 정의되어 다음과 같이 표현됨

$$\begin{aligned}
 w_{hijk}^d &= w_{hi}^d w_{jhi}^d w_{klhj}^d \\
 &= \frac{M_{h...}}{n_h M_{hi..}} \frac{M_{hi.}}{m_{hi} M_{hij}} \frac{M_{hij}}{m_{hij}} \\
 &= \frac{M_{h...}}{n_h m_{hi} m_{hij}}
 \end{aligned}$$

- w_{hijk}^d : 가구 ($hijk$)의 설계가중치
- w_{hi}^d : 읍면 (hi)의 설계가중치
- w_{jhi}^d : 조사구 (hij)의 (조건부) 설계가중치
- w_{klhj}^d : 가구($hijk$)의 (조건부) 설계가중치
- m_{hi} : 읍면 (hi) 내 표본조사구수
- m_{hij} : 조사구 (hij) 내 표본가구수
- M_{hij} : 조사구 (hij) 내 총가구수
- $M_{hi.}$: 읍면 (hi) 내 총가구수
- $M_{h...}$: 표본층 h 내 총가구수

- 레이킹-비 조정 : 본 조사는 레이킹-비 조정을 통해 칼리브레이션 조정³⁾을 고려하되 기존 1주기 조사 (2013~2017)의 평가를 반영한 대리응답(proxy response) 가정 및 이상치 절사(outlier trimming)를 함께 고려한 방식을 채택함

3) 칼리브레이션 조정은 조정 전 가중치를 이용하여 보조정보 x 에 대해 표본가중합과 모총합을 서로 일치시키는 것. (단위)무응답에 의한 편향(bias)을 줄임은 물론 표본추출틀 결함에 따른 포함오차(coverage error) 또한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임. 다수의 보조정보에 대한 모집단 결함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고 개별 보조정보의 주변분포만 주어지거나 결함분포에 따른 조정층 내 표본개체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보조정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칼리브레이션 조정을 수행하는 레이킹-비 조정 (혹은 반복비례적합)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Deville et al., 1993)

● 레이킹-비 조정을 위한 보조변수

- 지역별 가구주 성별 (남녀)
- 지역별 가구주 연령 (20-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별 주택유형 (단독, 아파트, 연립 · 다세대, 기타)

● 가중치 절사

- 레이킹-비 조정은 보조정보 주변합에 대한 반복적 칼리브레이션을 수행하게 됨으로 이상치가 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과대조정을 지양하고자 가중치 절사를 적용함

$$w_k^{TR} = \begin{cases} wL & \text{만약 } w_k^{rake} < wL \\ wU & \text{만약 } w_k^{rake} > wU \\ w_k^{rake} & \text{기타} \end{cases}$$

- $qw_{0.50} = w_k^{rake}$ 의 중위수
- $qw_{0.95} = w_k^{rake}$ 의 95% 백분위수
- $wL = qw_{0.50}/4$
- $wU = \max\{4qw_{0.50}, qw_{0.95}\}$

● 반복적 레이킹-비 조정 및 가중치 절사 적용

- 가중치 절사에 따른 표본가중합과 모총합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레이킹-비 조정과 가중치 절사 과정을 다수(3번) 반복 적용함

● 표준화 가중치

- 최종가중치는 읍면별로 다음과 같이 표준화시킴

$$w_{\eta k}^s = \frac{m_{\eta}}{\widehat{M}_{\eta}} w_k^F$$

· η	: 읍면 영역 지시자
· w_k^F	: 최종가중치
· w_{nk}^s	: 영역 η 의 표준화 가중치
· m_η	: 읍면 영역별 표본(응답)가구수
· $\hat{M}_\eta$	: 읍면 영역별 (최종가중치) 가중합

● 분산추정 : 선형근사방식 분산추정

- 복합표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분석에서 표본추정량 분산식은 일반적으로 수식형태로 주어지지 못하며 가중합 함수에 대한 테일러 선형근사방식이나 복제표본 추정량의 변동에 근거한 방식 중에 선택함(Valliant, 2004)
- 선형근사방식의 표본가중평균의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짐
- 복잡표본 자료분석의 분산추정은 SAS, SPSS, R 등을 통해 가능함

$$v(\hat{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begin{aligned} \cdot e_{hi..} &= \frac{\sum_{j=1}^{m_{hi}} \sum_{k=1}^{m_{hij}} w_{hijk} (y_{hijk} - \hat{Y})}{w_{....}} \\ \cdot \bar{e}_{h...} &= \frac{1}{n_h} \sum_{i=1}^{n_h} e_{hi..} \\ \cdot w_{....}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sum_{k=1}^{m_{hij}} w_{hijk} (= \hat{M}) \\ \cdot f_h &= \frac{n_h}{N_h} \text{ (일차 추출단위 표본추출률)} \end{aligned}$$

③ 표준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RSE)

-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 추정치의 표준편차: $\sqrt{Var(\hat{\theta})}$

-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RSE)

– $RSE(\hat{\theta}) = \frac{\sqrt{Var(\hat{\theta})}}{\hat{\theta}}$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치나 표준오차의 단위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표본조사 품질 척도로 널리 사용됨
-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 $\hat{\theta} \pm 1.96 \sqrt{Var(\hat{\theta})}$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모두 $Var(\hat{\theta})$ 의 함수로 표현
-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함

-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통계적 정확도

- 통계의 중요성, 목적, 용도에 따라 정확도 요구가 다름
- 일반적으로, 전국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통상적으로 1~5% 정도로 사용
- 시도별, 속성별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3~10% 정도
- 상대표준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공표를 지양해야 함

제 1 부 개인설문조사

1100〉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1200〉 보건의료

1300〉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1100〉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 11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102> 비동거 가구원 특성
- 1103>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1104>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 1105> 월 평균 생활비
- 1106> 저축 및 부채 현황
- 1107> 농어가 소득 구조
- 1108> 영농형태(농어가)
- 1109> 이주 실태
- 1110> 5년 이내 이주 의사
- 1111>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 1112>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1113> 주관적 건강 상태
- 1114> 정신건강
- 1115>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110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n=3,999) 기준]

▶ '가구주'가 72.0%, '여성'이 57.1%, [60대 이상] 연령층이 43.9%

가구주나 배우자 중 1명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자의 72.0%가 '가구주' 본인이며, '여성'(57.1%) 비율이 '남성'(42.9%)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 '70대 이상'(23.2%), '60대'(20.7%) 등 [60대 이상] 비율이 43.9%였으며, '50대'(21.0%), '40대'(18.4%), '30대 이하'(16.7%) 순이었다. 혼인상태로 '유배우'(57.0%),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32.5%)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 '고등학교'(34.7%), '대학교'(25.1%), '대학원 이상'(2.0%) 등 [고등학교 이상](61.8%) 비율이 '초등학교'(18.0%), '중학교'(11.1%), '무학'(9.1%) 등 [중학교 이하](38.2%)에 비해 높았다.

| 표 1101 - (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단위: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3,999) 100.0	합계			(3,999) 10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2,879)	72.0	연령	30대 이하	(669)	16.7
	가구주 배우자	(1,120)	28.0		40대	(734)	18.4
합계			(3,999) 100.0		50대	(840)	21.0
성	남	(1,717)	42.9		60대	(829)	20.7
	여	(2,282)	57.1		70대 이상	(927)	23.2
합계			(3,999) 100.0	합계			(3,999) 100.0
혼인 상태	유배우	(2,280)	57.0	학력	무학	(362)	9.1
	미혼, 비혼	(421)	10.5		초등학교	(719)	18.0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등)	(1,299)	32.5		중학교	(446)	11.1
					고등학교	(1,387)	34.7
					대학교	(1,004)	25.1
					대학원 이상	(81)	2.0

본 조사에 응답한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58.3%) 비율이 ‘여성’(41.7%)에 비해 높았으며, ‘70대 이상’ 연령층이 29.1%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혼인상태는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45.1%), ‘유배우’(40.3%), ‘미혼, 비혼’(14.6%) 순이었으며, ‘고등학교’(35.9%), ‘대학교’(18.5%), ‘대학원 이상’(2.0%) 등 [고등학교 이상] 학력층이 56.4%였다.

가구주 배우자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96.5%)이었으며, ‘40대’(29.8%), ‘50대’(24.3%), ‘30대 이하’(21.2%) 등 [50대 이하] 연령층이 75.3%로 나타났다.

가구주 배우자의 학력으로는 ‘대학교’(42.0%), ‘고등학교’(31.6%), ‘대학원 이상’(2.2%) 등 [고등학교 이상] 학력층이 75.8%였다.

| 표 1101 - (2)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단위 : %(명)

구분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사례수	Row%	사례수	Row%
합계		(2,879)	100.0	(1,120)	100.0
성	남	(1,678)	58.3	(39)	3.5
	여	(1,201)	41.7	(1,081)	96.5
연령	30대 이하	(432)	15.0	(237)	21.2
	40대	(400)	13.9	(334)	29.8
	50대	(567)	19.7	(272)	24.3
	60대	(643)	22.3	(187)	16.7
	70대 이상	(837)	29.1	(90)	8.0
혼인 상태	유배우	(1,160)	40.3	(1,120)	100.0
	미혼, 비혼	(420)	14.6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등)	(1,299)	45.1		
학력	무학	(334)	11.6	(28)	2.5
	초등학교	(597)	20.7	(122)	10.9
	중학교	(325)	11.3	(121)	10.8
	고등학교	(1,034)	35.9	(354)	31.6
	대학교	(534)	18.5	(470)	42.0
	대학원 이상	(56)	2.0	(25)	2.2

1102 > 비동거 가구원 특성

[비동거 가구원(n=471) 기준]

▶ 비동거 가구원의 72.7%가 '가구주의 자녀', 주된 비동거 사유는 '직장(직업, 취업준비)'(69.7%)

농어촌 가구의 전체 가구원(n=9,725) 중 비동거 가구원은 4.8%(n=471)였으며, 가구주와의 관계로 '가구주의 자녀'(72.7%) 비율이 매우 높았다. 비동거 사유로 '직장(직업, 취업준비)' 비율이 69.7%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타 지역 학교 유학)' 비율은 14.6%로 나타났다.

| 표 1102 | 비동거 가구원 특성

단위: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471)	100.0	합계		
비동거 가구원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의 배우자	(99)	21.0	비동거 사유	친지 보육	(1)	0.2
	가구주의 자녀	(343)	72.7		학업(타 지역 학교 유학)	(69)	14.6
	자녀의 배우자	(5)	1.1		자녀 교육 지원	(8)	1.8
	손자녀/그 배우자	(7)	1.5		직장(직업, 취업준비)	(327)	69.7
	부모	(12)	2.6		건강(입원, 요양 등)	(26)	5.5
	형제자매/그 배우자	(5)	1.1		가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38)	8.2

1103.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 농어가가 29.2%,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 '2세대 가구'가 41.5%
- ▶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43.1%

 농어가가 29.2%,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 '2세대 가구'가 41.5%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농어촌 가구 중 농어가가 29.2%였으며, 가구원 수는 '2명'(32.2%), '1명'(30.9%), '3명'(17.4%), '4명'(14.6%) 순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이었다.

가족 형태로 부부 중심의 '1세대' 가구가 23.9%, 부모, 자녀 중심의 '2세대' 가구가 41.5%였으며,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는 30.9%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를 총 가구원 수 및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2인 이상 가구'가 69.1%였으며,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8.2%, '65세 미만 1인 가구'는 12.7%였다.

| 표 1103 - (1)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1)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3,999)	100.0	합계		(3,999)	100.0		
농어가 여부	농어가	(1,169)	29.2	총 가구원 수	1명	(1,235)	30.9		
	비농어가	(2,830)	70.8		2명	(1,290)	32.2		
			3명		(696)	17.4			
			4명		(586)	14.6			
			5명		(160)	4.0			
			6명 이상		(33)	0.8			
합계			(3,999)	100.0	합계			(3,999)	100.0
가족 형태	1인 가구	(1,235)	30.9	총 가구원 수 × 연령별 가족 형태	65세 미만 1인 가구	(508)	12.7		
	1세대	(955)	23.9		65세 이상 1인 가구	(727)	18.2		
	2세대	(1,661)	41.5		2인 이상 가구	(2,764)	69.1		
	3세대 이상	(149)	3.7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43.1%

[만 65세 이상 가구원·장애 가구원·결혼 이민자 유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장애 가구원 가구주와의 관계 및 장애 증상 : 장애 가구원(n=450) 기준]

농어촌 가구 중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43.1%, 결혼 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1.3%였으며, 결혼 이민자와 가구주와의 관계(n=52)로 ‘가구주의 배우자’(84.4%) 비율이 매우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의 배우자’(11.2%), ‘부모’(4.4%) 순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5.0%,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구는 1.4%였다.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전체 농어촌 가구의 10.4%(n=416)였으며, 장애 가구원 수는 450명이었다. 장애 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n=450)로 ‘가구주’(59.7%) 본인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가구주의 배우자’(15.0%), ‘가구주의 자녀’(12.6%), ‘부모’(10.7%), ‘형제자매/그 배우자’(1.3%), ‘자녀의 배우자’(0.3%), ‘손자녀/그 배우자’, ‘기타 친인척’(각 0.2%) 순이었다. 장애 증상의 종류(n=450)로 ‘경증’(75.5%) 비율이 ‘중증’(24.5%)에 비해 높았다.

| 표 1103 - (2)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2)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3,999)	100.0	합계		(3,999)	100.0	
만65세이상 가구원 유무	있음	(1,725)	43.1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416)	10.4	
	없음	(2,274)	56.9		없음	(3,583)	89.6	
합계		(3,999)	100.0	합계		(450)	100.0	
결혼 이민자 유무	있음	(52)	1.3	장애 가구원 가구주 와의 관계	가구주	(269)	59.7	
	없음	(3,947)	98.7		가구주의 배우자	(68)	15.0	
합계		(3,999)	100.0		가구주의 자녀	(57)	12.6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여부	일반수급가구	(198)	5.0		자녀의 배우자	(1)	0.3	
	차상위계층	(58)	1.4		손자녀/그 배우자	(1)	0.2	
	해당없음	(3,743)	93.6		부모	(48)	10.7	
					형제자매/그 배우자	(6)	1.3	
					기타 친인척	(1)	0.2	
				합계		(450)	100.0	
				장애 증상	중증	(110)	24.5	
					경증	(340)	75.5	

1104 >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택의 점유형태는?
귀객은 교통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주택 건축·신축년도 :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2%(n=3,928)]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슬레이트 지붕 여부 : 단독주택 거주층(n=2,155) 중 응답 가구에 한해]

[교통수단 보유 현황 :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중복응답 : 교통수단별 각 100.0%]

- ▶ 주택의 노후 정도는 평균 24.2년, '단독주택' 거주층이 53.9%, '자가' 비율이 72.3%
- ▶ 교통수단 보유 가구는 78.6%, '승용차'(67.6%) 보유율이 가장 높음

'2000년대'(30.3%)에 건축(신축)된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90년대'(26.1%), '2010년 이후'(22.0%), '1980년대 이전'(21.6%) 순으로 주택의 평균 노후 정도는 24.2년이였다.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53.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 중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주택은 9.9%였다. 다음으로 '아파트'(33.4%), '연립/다세대주택'(11.7%) 순이었다.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월세'(25.2%), '무상'(2.5%) 순이었다.

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78.6%로 나타난 가운데, 보유 교통수단의 종류로 '승용차'(67.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물차'(14.9%), '자전거'(13.6%), '오토바이'(6.3%), '전동차(전동스쿠터)'(2.9%) 순이었다.

| 표 1104 | 주거 및 교통수단 보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합계 (3,928)			100.0	합계 (3,999)			100.0	
주택 건축·신축 년도	1980년대 이전	(847)	21.6	교통수단 보유 여부	보유	(3,144)	78.6	
	1990년대	(1,026)	26.1		미보유	(855)	21.4	
	2000년대	(1,190)	30.3	교통수단 보유 현황	승용차	(2,704)	67.6	
	2010년 이후	(865)	22.0		화물차	(596)	14.9	
합계 (3,999)			100.0		오토바이	(254)	6.3	
주택 종류	단독주택	(2,155)	53.9			전동차(전동스쿠터)	(115)	2.9
	슬레이트 지붕	(210)	9.9			자전거	(542)	13.6
	슬레이트 지붕 아님	(1,905)	90.1			기타	(9)	0.2
	아파트	(1,336)	33.4					
	연립/다세대주택	(468)	11.7					
	기타	(40)	1.0					
합계 (3,999)			100.0					
점유형태	자가	(2,892)	72.3					
	전·월세	(1,006)	25.2					
	무상	(101)	2.5					

1105> 월 평균 생활비

2020년(01.01.~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3,993)]

▶ 월 평균 생활비는 182.1만원

농어촌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평균 182.1만원으로, 이 중 ‘식료품비’(평균 63.7만원)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통/통신비’(평균 33.2만원), ‘교육비’(평균 18.6만원), ‘광열수도비’(평균 14.3만원), ‘보건의료비’(평균 13.9만원), ‘주거비’(평균 10.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비농어가, 50대 이하 연령층, 남성층,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월 평균 생활비가 높게 나타났다.

| 표 1105 | 월 평균 생활비

단위 : 만원(명)

구분			월 평균 생활비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 의료비	광열 수도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
합계 (3,993)			182.1	63.7	10.2	13.9	14.3	18.6	33.2	28.3
읍/면	읍	(1,926)	215.5	76.9	12.9	13.5	15.3	27.1	38.0	31.8
	면	(2,066)	150.9	51.4	7.7	14.2	13.3	10.6	28.7	24.9
영농 여부	농어가	(1,168)	151.9	49.5	5.9	17.2	15.8	11.7	29.4	22.5
	비농어가	(2,825)	194.6	69.6	11.9	12.5	13.6	21.4	34.8	30.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248.8	85.8	16.6	12.0	15.0	26.5	44.8	48.1
	40대	(734)	257.3	88.5	15.1	12.0	15.3	44.5	47.4	34.6
	50대	(840)	208.5	72.6	11.3	13.9	16.2	23.9	39.9	30.8
	60대	(829)	138.3	50.0	6.9	16.0	14.1	2.8	26.3	22.2
	70대 이상	(921)	89.0	32.3	3.6	14.8	11.3	1.6	13.5	11.9
응답자 성	남	(1,716)	193.6	67.0	9.5	14.4	15.1	17.5	37.6	32.5
	여	(2,277)	173.4	61.3	10.7	13.5	13.6	19.4	29.9	25.1
총 가구원 수	1명	(1,230)	92.3	32.9	5.9	10.1	10.4	1.7	16.8	14.5
	2명	(1,289)	152.3	55.8	8.8	15.2	14.4	4.0	29.6	24.5
	3명 이상	(1,474)	283.0	96.4	15.0	15.8	17.3	45.4	50.1	43.0



월 평균 생활비 - 추이

- 2020년 월 평균 생활비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월 평균 생활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그림 1105 | 월 평균 생활비 - 추이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4년, 2017년, 2019년은 단일 문항이며,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은 비목별 생활비를 합산한 값임

1106> 저축 및 부채 현황

- ▶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가 43.2%
- ▶ 부채가 있는 가구는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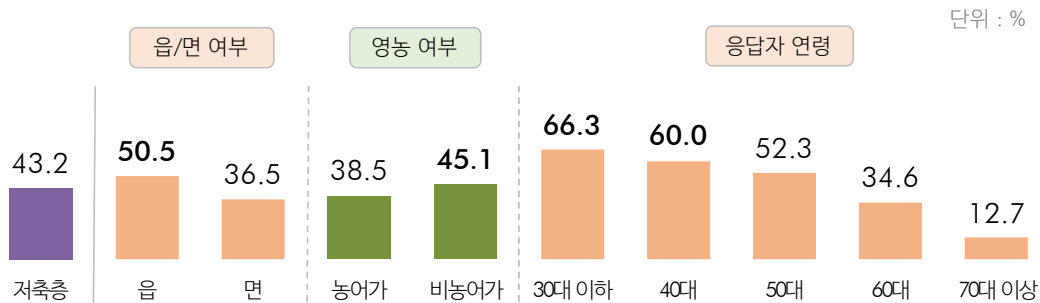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가 43.2%

귀댁에서는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저축층’이 43.2%로 나타난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저축층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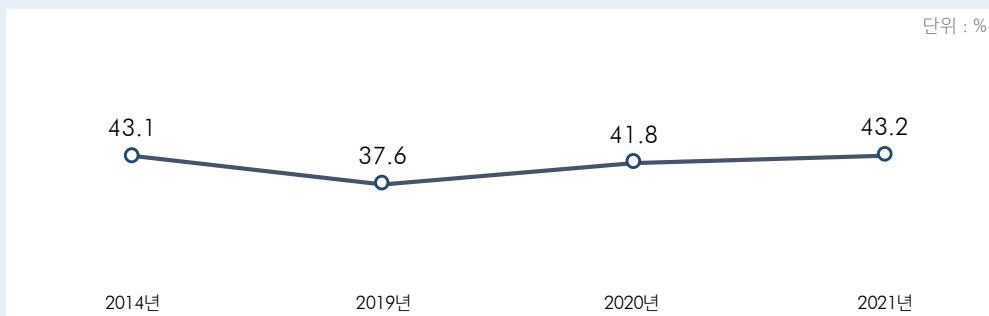
| 그림 1106 - (1) | 저축 현황



저축 현황 - 추이

- 2019년 이후 저축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그림 1106 - (2) | 저축 현황 - 추이



부채가 있는 가구는 37.7%

귀댁에는 부채(빚)가 있으십니까? 부채(빚)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채 여부 :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부채의 원인 : 부채 보유층(n=1,50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2%(n=1,467)]

부채가 있는 가구가 37.7%로 나타난 가운데, 읍지역, 이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에서 ‘부채 있음’ 비율이 높았다. 부채 보유층(n=1,467)의 부채 원인으로 ‘주택 마련’(41.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어업 시설, 기계, 자재 등 투자’(18.5%), ‘(농어업 외) 사업 자금 마련’(13.2%),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12.6%), ‘교육비’(4.5%), ‘의료비’(2.1%), ‘결혼, 장례 등 경조사 자금 마련’(1.7%)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이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에서 ‘주택 마련’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선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농어업 시설, 기계, 자재 등 투자’ 비율이 높았다.

| 표 1106 - (1) | 부채 현황

단위 : %(명)

구분		부채 여부		부채의 주된 원인								
		사례수	있음	사례수	농어업 시설, 기계, 자재 등 투자	(농어업 외) 사업 자금 마련	주택 마련	자동차, 가구, 가전 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	의료비	교육비	결혼, 장례 등 경조사 자금 마련	기타
합계		(3,999)	37.7	(1,467)	18.5	13.2	41.6	12.6	2.1	4.5	1.7	5.8
읍/면	읍	(1,926)	42.0	(782)	5.9	11.8	52.5	14.4	2.3	5.0	0.9	7.2
	면	(2,073)	33.7	(685)	32.9	14.8	29.2	10.6	1.8	4.0	2.5	4.0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35.5	(412)	64.0	10.3	12.7	3.5	0.7	2.5	5.0	1.3
	비농어가	(2,830)	38.7	(1,055)	0.7	14.4	52.9	16.2	2.6	5.3	0.3	7.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43.4	(1,093)	7.5	15.6	50.5	12.1	2.6	4.5	0.9	6.3
	선주민	(1,406)	27.3	(374)	50.6	6.4	15.6	14.1	0.7	4.7	3.7	4.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49.0	(200)	1.0	11.4	55.5	13.6	0.2	11.5	1.3	5.7
	비의향층	(3,583)	36.4	(1,263)	21.2	13.4	39.6	12.5	2.4	3.4	1.7	5.8

 부채 현황 - 추이

- 2020년 대비 '농어업 외) 사업 자금 마련' 비율이 감소함(-5.9%p)

| 표 1106 - (2) | 부채 현황 - 추이

단위 : %(명)

구분	부채 여부		부채의 주된 원인								
	사례수	있음	사례수	농어업 시설, 기계, 자재 등 투자	(농어업 외) 사업 자금 마련	주택 마련	자동차, 가구, 가전 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	의료비	교육비	결혼, 장례 등 경조사 자금 마련	기타
2021년	(3,999)	37.7	(1,467)	18.5	13.2	41.6	12.6	2.1	4.5	1.7	5.8
2020년	(3,984)	37.7	(1,465)	18.6	19.1	42.4	8.9	1.2	2.8	0.8	6.3
2019년	(3,972)	41.8	(1,632)	18.2	18.2	41.2	7.5	3.9	4.0	1.5	5.5

1107 > 농어가 소득 구조

귀택은 농어업만을 하고 계십니까(전업), 혹은 농어업 외 다른 일을 겸하고 계십니까?
(겸업의 경우) 농어업 외 종사하시는 일의 형태와 소득 구조는 어떠합니까?

[전업 또는 겸업 여부 : 농어가(n=1,169) 기준/ 농어업 외 직종의 형태 및 소득 구조 : 겸업층(n=380) 기준]
[종사자 지위 : 임금근로 종사자(n=247) 기준/ 응답별 각 100.0%]

▶ 농어가 중 32.5%가 '겸업', 겸업층의 소득 중 66.3%가 '농어업 외 소득'

농어가 중 농어업만 하고 있는 '전업층'이 67.5%, 농어업 외 다른 일을 겸하고 있는 '겸업층'이 32.5%로 나타났다. 겸업을 하고 있는 농어가의 농어업 외 직종 형태로 '임금근로'(65.1%) 비율이 '자영업'(34.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근로를 하고 있는 농어가의 종사자 지위로 '상용'(53.5%)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읍지역에서 '상용' 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에서 '임시', '일용'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 표 1107 - (1) | 전업 또는 겸업 여부 및 겸업의 형태

단위 : %(명)

구분		전업	겸업	농어업 외 직종의 형태		종사자 지위		
				자영업	임금근로	상용	임시	일용
농어가 (1,169)		67.5	32.5	34.9	65.1	53.5	23.5	21.5
읍/면	읍 (315)	66.3	33.7	33.4	66.6	64.1	18.0	13.9
	면 (854)	67.9	32.1	35.5	64.5	49.3	25.7	24.5

겸업을 하고 있는 농어가의 전체 소득 중 '농어업 외 소득' 비율이 평균 66.3%로 '농어업 소득'(평균 28.9%)에 비해 높았다.

읍지역에서 '농어업 외 소득' 비율이 높았다.

| 표 1107 - (2) | 겸업 농어가의 소득 구조

단위 : %(명)

구분		농어업 소득	농어업 외 소득	기타 소득
겸업 농어가 (380)		28.9	66.3	4.8
읍/면	읍 (106)	26.7	69.6	3.7
	면 (274)	29.8	65.0	5.2

농어가 소득 구조 - 추이

- 2020년 대비 '자영업'(+4.4%p) 비율이 증가했으며, 임금근로 종사자 중 '임시'(+7.0%p) 비율이 증가함

| 표 1107 - (3) | 전업 또는 겸업 여부 및 겸업의 형태 - 추이

단위 : %(명)

구분	전업	겸업	농어업 외 직종의 형태		종사자 지위		
			자영업	임금근로	상용	임시	일용
2021년 (1,169)	67.5	32.5	34.9	65.1	53.5	23.5	21.5
2020년 (1,024)	70.2	29.8	30.5	69.5	56.1	16.5	20.2
2018년 (834)	71.0	29.0	47.4	52.6	54.2	21.1	24.7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20년 대비 '농어업 외 소득'(+9.3%p) 비율이 증가한 반면, '기타 소득'(-6.9%p) 비율은 감소함

| 표 1107 - (4) | 겸업 농어가의 소득 구조 - 추이

단위 : %(명)

구분	농어업 소득	농어업 외 소득	기타 소득
2021년 (380)	28.9	66.3	4.8
2020년 (304)	31.3	57.0	11.7
2018년 (240)	30.5	66.2	3.4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108> 영농형태(농어가)

귀댁에서 주된 수입원이 되는 영농형태는 무엇입니까?

[농어가(n=1,16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0%(n=1,146)]

▶ '논벼'(33.7%)가 주된 영농형태

농어가의 영농형태로 '논벼'(33.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지채소'(22.5%), '식량작물'(17.9%), '과수'(10.5%), '시설채소'(7.3%), '특/약용작물·버섯'(3.2%), '축산'(1.6%), '화훼'(0.4%) 순이었다.

전주민층에서 '논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층, 이주민층에서 '식량작물' 비율이 높았으며, 면지역에서 '노지채소', 남성층에서 '과수' 비율이 높았다.

| 표 1108 - (1) | 영농형태(농어가)

단위 : %(명)

구분		논벼	식량작물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화훼	특/약용작물·버섯	축산	기타
합계 (1,146)		33.7	17.9	22.5	7.3	10.5	0.4	3.2	1.6	2.8
읍/면	읍 (315)	35.7	17.7	16.6	7.7	11.3	1.3	5.5	1.3	2.8
	면 (831)	33.0	18.0	24.8	7.2	10.2	0.1	2.3	1.7	2.7
응답자성	남 (591)	35.6	14.6	20.9	5.2	14.2	0.6	5.0	1.6	2.4
	여 (555)	31.7	21.6	24.3	9.6	6.5	0.2	1.3	1.6	3.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427)	26.8	20.9	24.4	8.1	10.5	0.8	4.3	1.7	2.6
	선주민 (719)	37.9	16.2	21.4	6.8	10.5	0.2	2.6	1.5	2.8



영농형태(농어가) - 추이

- 2020년 대비 '노지채소'(+4.9%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식량작물'(-5.1%p) 비율은 감소함

| 표 1108 - (2) | 영농형태(농어가) - 추이

단위: %(명)

구분	논벼	식량 작물	노지 채소	시설 채소	과수	화훼	특/약용 작물버섯	축산	기타
2021년 (1,146)	33.7	17.9	22.5	7.3	10.5	0.4	3.2	1.6	2.8
2020년 (987)	32.2	23.0	17.6	4.8	10.4	1.2	5.1	2.7	3.0
2019년 (973)	35.1	10.9	20.1	6.9	13.3	0.5	5.1	4.0	4.2
2014년 (1,081)	57.0	9.3	11.2	5.2	7.2	0.3	4.4	5.2	0.2

1109 > 이주 실태

- ▶ [이주민](64.8%) > [선주민](35.2%)
- ▶ 이주 직전 거주지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면 지역'(36.5%),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33.2%) 등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69.8%

 [이주민](64.8%) > [선주민](35.2%)

귀덕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이주했다’(59.2%),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5.7%) 등 [이주민]이 64.8%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35.2%) 비율보다 높았다.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층에서 [이주민]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층에서 [선주민] 비율이 높았다.

| 표 1109 - (1) | 이주 실태

단위 : %(명)

구분			이주했다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	이주민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	선주민
합계 (3,999)			59.2	5.7	64.8	35.2	35.2
읍/면	읍	(1,926)	75.8	4.1	79.9	20.1	20.1
	면	(2,073)	43.7	7.1	50.8	49.2	49.2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27.0	10.8	37.9	62.1	62.1
	비농어가	(2,830)	72.4	3.5	76.0	24.0	24.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86.1	0.6	86.8	13.2	13.2
	40대	(734)	75.0	5.4	80.4	19.6	19.6
	50대	(840)	59.2	13.1	72.3	27.7	27.7
	60대	(829)	51.8	5.1	57.0	43.0	43.0
	70대 이상	(927)	33.6	3.3	36.9	63.1	63.1
응답자 성	남	(1,717)	62.4	6.9	69.3	30.7	30.7
	여	(2,282)	56.7	4.8	61.5	38.5	38.5



평균 거주기간: '고향 이주층'(평균 15.3년) > '타향 이주층'(평균 12.1년)

[이주층(타향 이주층 n=2,366, 고향 이주층 n=227) 기준]

타향 이주층(이주했다)(n=2,366)의 이주 후 거주기간으로 '5-10년 미만'(21.5%), '1-3년 미만'(17.4%), '3-5년 미만'(11.4%), '1년 미만'(5.2%) 등 [10년 미만] 비율이 55.5%였으며, 다음으로 '10-30년 미만'(33.2%), '30년 이상'(11.3%)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12.1년이였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층에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표 1109 - (2) | 이주 후 거주기간(타향 이주층)

단위: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2,366)			12.1년	5.2	17.4	11.4	21.5	33.2	11.3
읍/면	읍 (1,461)		10.4년	5.4	21.5	11.7	22.4	30.2	8.7
	면 (905)		14.8년	4.7	10.8	10.8	20.1	38.1	15.6
영농 여부	농어가 (316)		19.0년	4.0	4.9	5.2	25.1	34.7	26.0
	비농어가 (2,050)		11.0년	5.3	19.4	12.3	21.0	33.0	9.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76)		4.1년	12.3	36.9	15.3	24.8	10.8	
	40대 (551)		9.4년	2.2	14.3	10.4	24.6	47.7	0.8
	50대 (497)		11.9년	5.9	12.5	10.0	20.7	43.5	7.5
	60대 (430)		16.1년	1.8	10.6	14.5	17.5	33.7	21.8
	70대 이상 (312)		26.4년	0.5	4.2	3.7	17.0	32.3	42.4
응답자 성	남 (1,072)		10.0년	6.0	20.6	12.3	23.3	30.9	6.9
	여 (1,294)		13.9년	4.4	14.8	10.6	20.1	35.1	15.0

고향 이주층(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n=227)의 이주 후 거주기간으로 '10-30년 미만'(53.0%)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5-10년 미만'(16.5%), '1-3년 미만'(12.6%), '3-5년 미만'(6.0%), '1년 미만'(3.0%) 등 [10년 미만(38.0%), '30년 이상'(9.0%)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15.3년이었다.

면지역,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 표 1109 - (3) | 이주 후 거주기간(고향 이주층)

단위 :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227)			15.3년	3.0	12.6	6.0	16.5	53.0	9.0
읍/면	읍 (79)		11.0년	0.7	18.5	7.3	24.6	46.9	2.0
	면 (148)		17.6년	4.2	9.5	5.3	12.1	56.2	12.7
영농 여부	농어가 (127)		15.9년	1.3	16.7	4.1	18.0	49.7	10.1
	비농어가 (100)		14.6년	5.1	7.5	8.3	14.5	57.1	7.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		6.0년				100.0		
	40대 (40)		11.1년		28.4		13.6	58.0	
	50대 (110)		14.7년	4.6	12.8	7.2	16.8	51.8	6.8
	60대 (43)		17.6년	3.3	5.4	8.8	11.8	52.9	17.8
	70대 이상 (30)		21.4년	1.1	3.0	6.2	13.9	58.2	17.7
응답자 성	남 (118)		14.6년	5.5	5.7	7.9	28.2	41.5	11.2
	여 (109)		16.2년	0.3	20.1	3.9	3.8	65.4	6.6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면 지역’(36.5%),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33.2%) 등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69.8%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직전에 살았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주층(n=2,593)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3.8%(n=2,431)]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면 지역’(36.5%),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33.2%)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69.8%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20.1%), ‘중소도시 동 지역’(10.1%)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30.2%)에 비해 많았다.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해 온 가구 중 5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는 전체 이주층 중 10.5%(n=272, 농어촌 전체 대비 6.8%)였다.

읍지역, 7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 타향 이주층에서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30대 이하 연령층, 남성층, 고향 이주층에서 [도시→농어촌] 비율이 높았다.

| 표 1109 - (4) | 이주 직전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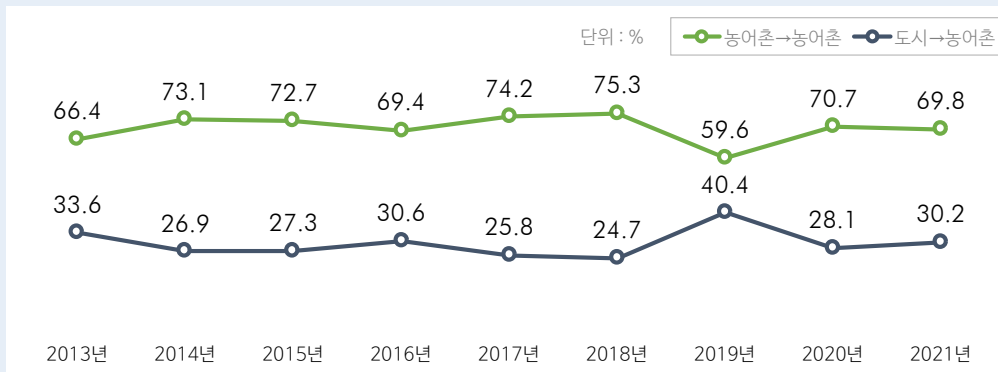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면 지역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	농어촌→ 농어촌	중소도시 동 지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	도시→ 농어촌	기타 (해외파견, 이민 등)
합계 (2,431)		36.5	33.2	69.8	10.1	20.1	30.2	0.1
읍/면	읍 (1,472)	42.0	36.3	78.3	8.2	13.4	21.5	0.1
	면 (958)	28.2	28.4	56.6	13.1	30.3	43.4	0.0
영농 여부	농어가 (423)	41.1	26.7	67.7	9.0	23.3	32.2	0.0
	비농어가 (2,008)	35.6	34.6	70.2	10.3	19.4	29.7	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2)	21.6	37.1	58.8	21.3	19.9	41.2	
	40대 (570)	35.8	34.4	70.3	7.7	22.0	29.7	
	50대 (568)	40.7	31.7	72.4	8.6	18.7	27.3	0.3
	60대 (458)	44.0	27.6	71.7	6.8	21.5	28.3	0.1
	70대 이상 (324)	43.5	35.4	78.9	3.6	17.4	21.0	0.1
응답자 성	남 (1,122)	34.8	31.9	66.7	10.7	22.5	33.2	0.1
	여 (1,309)	38.1	34.3	72.4	9.6	18.0	27.6	0.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타향 이주층 (2,207)	37.8	34.6	72.3	9.4	18.2	27.6	0.1
	고향 이주층 (224)	24.4	20.0	44.4	16.8	38.8	55.6	0.0

이주 직전 거주지 - 추이

○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그림 1109 | 이주 직전 거주지 - 추이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3년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은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군",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읍/면 지역"을 합산한 값임

1110 > 5년 이내 이주 의사

- ▶ 이주 의향층이 10.2%, [농어촌→농어촌] 이주 희망층이 77.4%
- ▶ 주된 이주 희망 이유는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관련 사유'(27.6%), 취업,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27.3%), 주택 구입, 계약 변동, 재개발 등 '주택 관련 사유'(23.9%)

이주 의향층 10.2%

귀덕은 향후 5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3,991)]

향후 5년 내 이주할 의향이 있는 층이 10.2%로,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 이주민층에서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110 - (1) | 5년 이내 이주 의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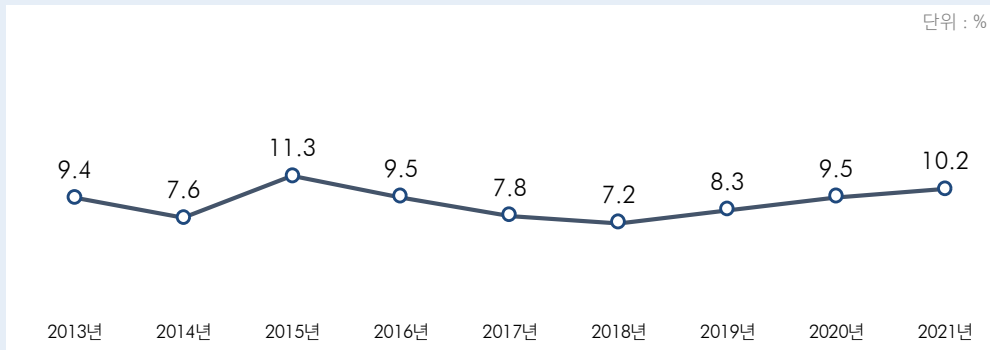
구분		이주 의향층	잘 모르겠다	없다
합계 (3,991)		10.2	13.3	76.5
읍/면	읍 (1,922)	14.1	19.6	66.3
	면 (2,069)	6.6	7.4	86.0
영농 여부	농어가 (1,167)	4.6	5.3	90.2
	비농어가 (2,824)	12.6	16.6	70.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23.9	24.3	51.8
	40대 (734)	12.1	18.8	69.1
	50대 (839)	12.6	15.2	72.2
	60대 (825)	4.7	7.0	88.3
	70대 이상 (924)	1.7	4.6	93.7
응답자 성	남 (1,713)	12.4	15.4	72.2
	여 (2,278)	8.6	11.6	79.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85)	13.7	18.5	67.8
	선주민 (1,406)	3.8	3.6	92.6



5년 이내 이주 의사 - 추이

- 2018년을 기점으로 이주 의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그림 1110 - (1) | 5년 이내 이주 의사 - 추이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5년까지 이주 의향층은 '있다', '반반이다'의 합이었으나, 2016년 문항 구성이 '있다', '잘 모르겠다', '없다'로 달라짐에 따라 향후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층만 5년 이내 이주 의향층으로 제시함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 77.4%

어디로 이주할 생각이십니까?

[이주 의향층(n=408)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1%(n=396)]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 지역’(45.7%), ‘다른 시/군의 읍 지역’(19.6%),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면 지역’(8.6%), ‘다른 시/군의 면 지역’(3.5%) 등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는 층이 77.4%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11.7%), ‘중소도시 동 지역’(10.8%) 등 도시로 이주하겠다는 비율(22.6%)보다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에서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 남성층에서 [농어촌→도시] 비율이 높았다.

| 표 1110 - (2) | 이주 희망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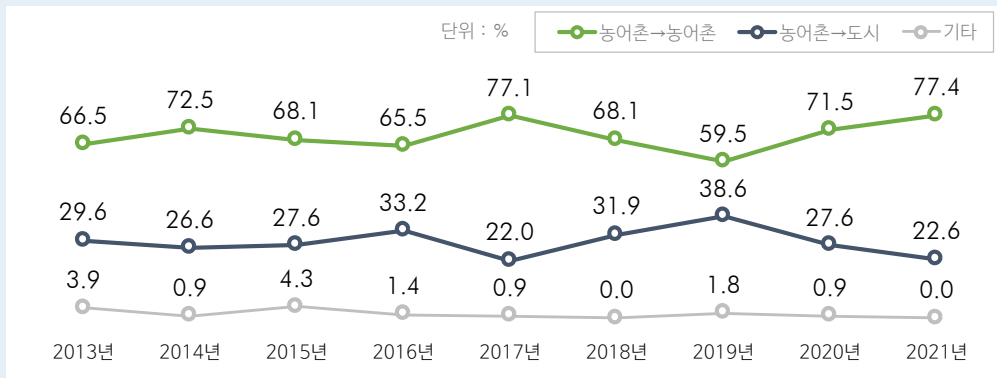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 지역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면 지역	다른 시/군의 읍 지역	다른 시/군의 면 지역	농어촌→ 농어촌	중소도시 동 지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	농어촌→ 도시
합계 (396)		45.7	8.6	19.6	3.5	77.4	10.8	11.7	22.6
읍/면	읍 (272)	52.9	7.7	14.4	1.3	76.4	13.6	10.0	23.6
	면 (124)	29.9	10.5	30.9	8.3	79.6	4.9	15.5	20.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60)	45.0	1.4	18.3	1.3	65.9	14.2	20.0	34.1
	40대 (89)	46.4	17.9	17.2		81.5	17.5	0.9	18.5
	50대 (98)	60.3	10.6	14.4	2.5	87.7	3.2	9.1	12.3
	60대 (34)	15.3	2.1	41.4	27.6	86.5	3.2	10.3	13.5
	70대 이상 (15)	23.6	31.4	31.9	0.7	87.6	3.9	8.5	12.4
응답자 성	남 (212)	42.0	10.7	17.0	4.8	74.5	12.0	13.5	25.5
	여 (184)	50.0	6.1	22.6	2.0	80.8	9.5	9.7	19.2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 2019년 이후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그림 1110 - (2) |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4~2016년 '기타'는 "복지시설 이용(공동생활, 요양 등)", "기타(해외파견, 이민 등)"의 합임



‘생활환경 관련 사유’(27.6%), ‘직업 관련 사유’(27.3%), ‘주택 관련 사유’(23.9%) 비율이 높음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 의향층(n=408)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407)]

이주 희망 이유로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관련 사유’(27.6%), 취업,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27.3%)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주택 구입, 계약 변동, 재개발 등 ‘주택 관련 사유’(23.9%) 또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교육 때문에’(10.8%),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8.8%), 가구원의 분가, 합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1.4%),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0.1%) 순이었다.

읍지역, 40-60대 연령층, 남성층에서 ‘생활환경 관련 사유’ 비율이 높았으며, 30대 이하 연령층, 남성층, [농어촌→도시] 이주 희망층에서 ‘직업 관련 사유’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 [농어촌→농어촌] 이주 희망층에서 ‘주택 관련 사유’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면지역, 40대 연령층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60대 연령층에서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비율이 높았다.

| 표 1110 - (3) | 이주 희망 이유

단위 : %(명)

구분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생활환경 관련 사유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	자녀교육 때문에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상의 이유로
합계 (407)		27.3	23.9	1.4	27.6	0.1	10.8	8.8	0.0
읍/면	읍 (272)	27.6	24.5	1.6	29.2		8.7	8.4	
	면 (136)	26.8	22.8	1.1	24.2	0.2	15.2	9.6	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60)	52.7	29.5		6.7		8.1	2.9	
	40대 (89)	11.0	29.6		33.5		23.5	2.4	
	50대 (105)	11.6	11.3	0.8	44.6		9.9	21.8	
	60대 (39)	5.8	12.8	6.5	59.1			15.9	
	70대 이상 (15)	18.8	48.2	15.9	14.1	1.6		0.2	1.3
응답자 성	남 (212)	34.3	18.7	0.4	34.5	0.1	2.1	9.8	
	여 (196)	19.8	29.6	2.5	20.1		20.2	7.7	0.1
이주 희망 지역	농어촌→농어촌 (306)	20.0	30.2	1.7	27.2	0.1	14.1	6.6	0.1
	농어촌→도시 (89)	55.9	5.5	0.8	29.6		0.9	7.3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 2019년 이후 '직업 관련 사유'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표 1110 - (4) |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단위: %(명)

구분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생활환경 관련 사유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	자녀교육 때문에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상의 이유로
2021년 (407)	27.3	23.9	1.4	27.6	0.1	10.8	8.8	0.0
2020년 (362)	32.3	40.5	4.8	4.7	0.2	13.5	3.7	0.3
2019년 (317)	36.6	18.9	8.1	24.3		8.3	3.3	0.5
2018년 (195)	25.9	28.2	7.0	25.3	0.5	9.3	0.5	0.2
2017년 (296)	29.9	29.3	2.6	18.4		14.1	3.1	2.4
2016년 (370)	16.2	38.4	1.9	10.1		27.5	2.9	1.9
2015년 (684)	22.0	28.3	2.9	22.7		15.0	7.1	1.6
2014년 (516)	21.8	30.0	3.9	24.3		11.4	5.5	1.8
2013년 (415)	26.4	23.1	3.5	13.2		17.1	6.3	3.5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8년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 항목이 추가됨

*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1111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 농어촌생활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등 '보건의료'(평균 82.3점) 중요도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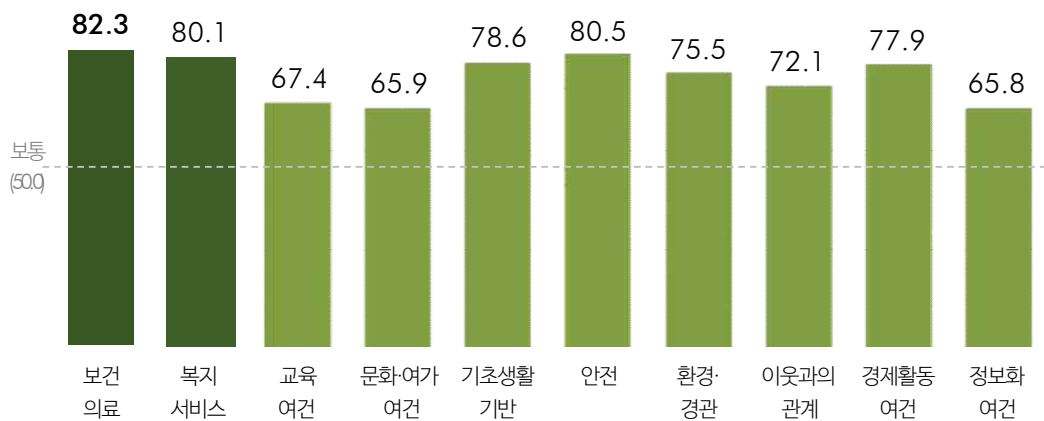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중요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등 '보건의료'(평균 82.3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평균 80.5점), 건강, 소득, 생활, 보육 등 지원 '복지서비스'(평균 80.1점),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기반'(평균 78.6점),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평균 77.9점),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등 '환경·경관'(평균 75.5점), 지역사회 활동 참여, 교류 등 '이웃과의 관계'(평균 72.1점)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보였다.

한편, 자녀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여건'(평균 67.4점),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등 '문화·여가 여건'(평균 65.9점), 인터넷 접속 등 '정보화 여건'(평균 65.8점)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그림 1111 - (1)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단위 : 점



읍지역에서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농어가, 선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이웃과의 관계' 중요도가 높은 반면, 비농어가, 남성층, 이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에서 '문화·여가 여건', '정보화 여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전 연령층에서 '보건의료'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안전',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정보화 여건' 중요도가 높은 반면, 40대 연령층에서 '복지서비스', '환경·경관', '교육 여건' 중요도가 높았으며,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웃과의 관계'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 표 1111 - (1)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단위: 점(명)

구분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교육여건	문화·여가여건	기초생활기반	안전	환경·경관	이웃과의관계	경제활동여건	정보화여건
합계 (3,999)		82.3	80.1	67.4	65.9	78.6	80.5	75.5	72.1	77.9	65.8
읍/면	읍 (1,926)	84.6	83.1	74.7	72.1	81.5	83.6	78.6	72.1	81.5	71.1
	면 (2,073)	80.2	77.4	60.7	60.2	75.9	77.6	72.6	72.1	74.7	60.9
영농여부	농어가 (1,169)	81.9	79.2	65.0	62.6	78.3	80.6	75.1	76.2	78.5	61.6
	비농어가 (2,830)	82.5	80.6	68.4	67.3	78.8	80.5	75.7	70.5	77.7	67.5
응답자연령	30대 이하 (669)	82.3	80.5	71.8	76.2	79.6	83.2	77.3	69.3	81.9	77.9
	40대 (734)	83.9	83.4	81.1	74.9	80.0	82.8	80.0	70.9	82.2	74.2
	50대 (840)	82.5	80.3	71.8	68.2	81.5	82.2	75.3	72.2	80.5	69.1
	60대 (829)	81.5	79.3	61.3	61.0	77.1	78.3	73.9	72.8	78.0	62.2
	70대 이상 (927)	81.6	77.9	55.0	53.7	75.5	77.1	72.3	74.5	69.3	50.8
응답자성	남 (1,717)	81.1	79.6	67.5	68.1	78.1	79.8	74.6	70.8	79.2	68.9
	여 (2,282)	83.2	80.5	67.4	64.3	79.0	81.0	76.2	73.1	77.0	63.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82.2	80.6	70.3	69.0	79.2	80.9	76.3	70.0	79.7	70.3
	선주민 (1,406)	82.5	79.3	62.0	60.3	77.6	79.9	74.1	76.1	74.8	57.5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79.6	78.4	73.4	74.0	78.2	78.9	74.3	64.8	79.8	74.8
	비의향층 (3,583)	82.6	80.4	66.7	65.0	78.7	80.7	75.7	73.0	77.7	64.8



농어촌생활 전반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53.4점)의 평가

'환경·경관'(평균 65.9점), '안전'(평균 64.6점), '이웃과의 관계'(평균 61.0점) 만족도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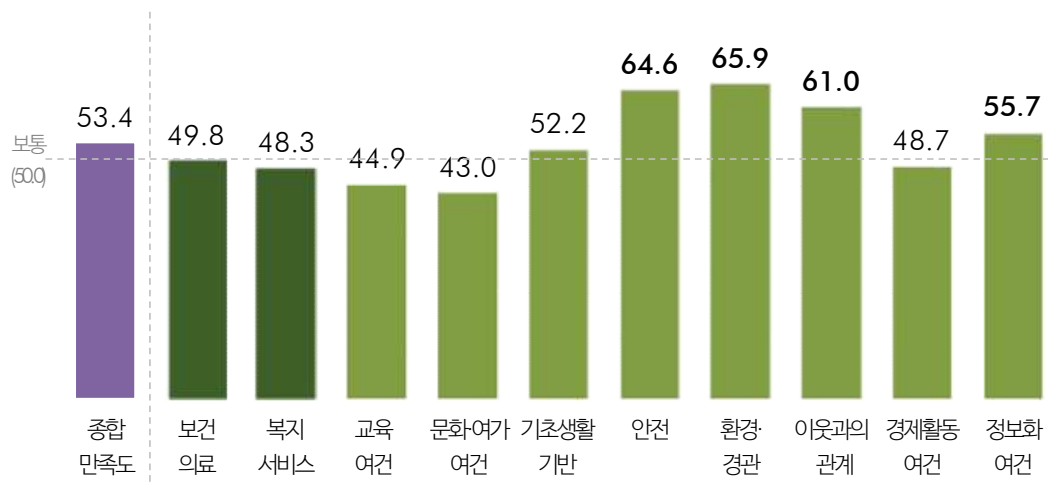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농어촌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도가 평균 53.4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보이는 가운데, 세부 영역별로는 '환경·경관'(평균 65.9점), '안전'(평균 64.6점), '이웃과의 관계'(평균 61.0점), '정보화 여건'(평균 55.7점)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인 반면, '교육 여건'(평균 44.9점), '문화·여가 여건'(평균 43.0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한편,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던 '기초생활기반'(평균 52.2점), '보건의료'(평균 49.8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48.7점), '복지서비스'(평균 48.3점)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그쳤다.

| 그림 1111 - (2) |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단위 : 점



6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에서 '환경·경관',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반면, 비농어가, 40대 연령층, 이주민층에서 '정보화 여건' 만족도가 높았으며, 읍지역,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보건 의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표 1111 - (2) |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총합 만족도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여건	기초 생활 기반	안전	환경· 경관	이웃 과의 관계	경제 활동 여건	정보화 여건
합계 (3,999)		53.4	49.8	48.3	44.9	43.0	52.2	64.6	65.9	61.0	48.7	55.7
읍/면	읍 (1,926)	53.0	51.4	49.1	46.0	42.4	52.7	62.1	62.8	56.9	50.1	56.9
	면 (2,073)	53.7	48.3	47.5	43.9	43.6	51.8	66.9	68.7	64.8	47.4	54.5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52.9	47.8	48.1	42.3	41.0	51.5	65.7	68.6	65.7	48.3	50.3
	비농어가 (2,830)	53.6	50.6	48.3	46.0	43.9	52.5	64.1	64.7	59.0	48.9	57.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51.6	52.0	47.8	48.2	40.3	48.2	59.5	60.8	52.4	48.8	57.8
	40대 (734)	52.3	46.9	46.0	42.6	41.0	52.2	63.9	64.1	58.0	49.0	59.2
	50대 (840)	51.9	48.5	46.5	42.6	41.8	50.1	62.5	65.4	58.7	47.7	55.6
	60대 (829)	54.2	49.5	48.9	44.2	43.3	54.0	66.5	68.1	64.5	47.9	55.1
	70대 이상 (927)	56.2	51.9	51.4	47.0	47.5	55.4	69.0	69.3	68.5	50.0	51.8
응답자 성	남 (1,717)	53.0	49.7	47.8	45.6	43.3	52.2	63.9	65.0	59.1	47.5	56.2
	여 (2,282)	53.7	49.9	48.7	44.4	42.8	52.2	65.1	66.5	62.4	49.6	55.3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52.1	49.0	46.9	44.9	42.2	51.2	61.9	62.7	56.9	48.1	57.2
	선주민 (1,406)	55.8	51.3	50.7	44.9	44.6	54.2	69.5	71.7	68.4	49.8	52.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45.4	45.7	41.1	39.6	39.1	43.5	53.2	51.3	48.1	39.0	53.4
	비의향층 (3,583)	54.3	50.2	49.1	45.5	43.5	53.2	65.9	67.6	62.5	49.8	55.9

- 2018년 이후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여가 여건’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표 1111 - (3) |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추이

단위: 점(명)

구분	전반적인 농어촌생활 만족도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여건	기초 생활 기반	안전	환경 경관	이웃 과의 관계	경제 활동 여건	정보화 여건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2021년 (3,999)	53.4			49.8	48.3	44.9	43.0	52.2	64.6	65.9	61.0	48.7	55.7
2020년 (3,984)	54.6			50.4	49.4	46.0	45.0	52.3	65.4	67.5	62.7	49.8	57.3
2019년 (3,972)	54.3	55.3	53.3	50.7	50.6	47.6	46.4	50.0	63.2	64.0	61.3	48.5	
2018년 (2,780)	55.0	55.8	54.2	52.0	52.2	49.5	48.9	51.3	61.7	62.8	60.7	49.0	
2017년 (3,995)	54.8	58.3	51.3	45.8	49.9	43.6	42.2	51.3	65.5	63.6		46.8	
2016년 (3,952)	51.7	52.6	50.9	46.9	47.9	44.4	41.7	47.5	66.5	62.7		46.5	
2015년 (3,934)	52.5	55.4	49.6	48.8		42.6	39.5	46.6	61.5	65.4		43.5	
2014년 (3,939)	48.9	50.0	47.7	44.7		43.4	38.9	47.5	61.3	63.5		42.9	
2013년 (2,764)				48.9	44.4	49.6	41.4	51.0		60.2	64.7	41.3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3년 ‘교육여건’은 “사교육 여건”(평균 47.3점), “학교교육 여건”(평균 51.8점)의 산술평균 값임. 2013년은 개별 문항으로 만족도를 측정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하지 않음

* 2014년, 2015년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로 측정함

* 2016년 ‘안전’은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평균 66.2점), “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평균 66.8점)의 산술평균 값임. ‘보건의료’와 ‘복지여건(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은 별도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종합만족도 산출 시 반영되지 않음

* 2020년부터 체감만족도를 측정하지 않아 차원만족도를 산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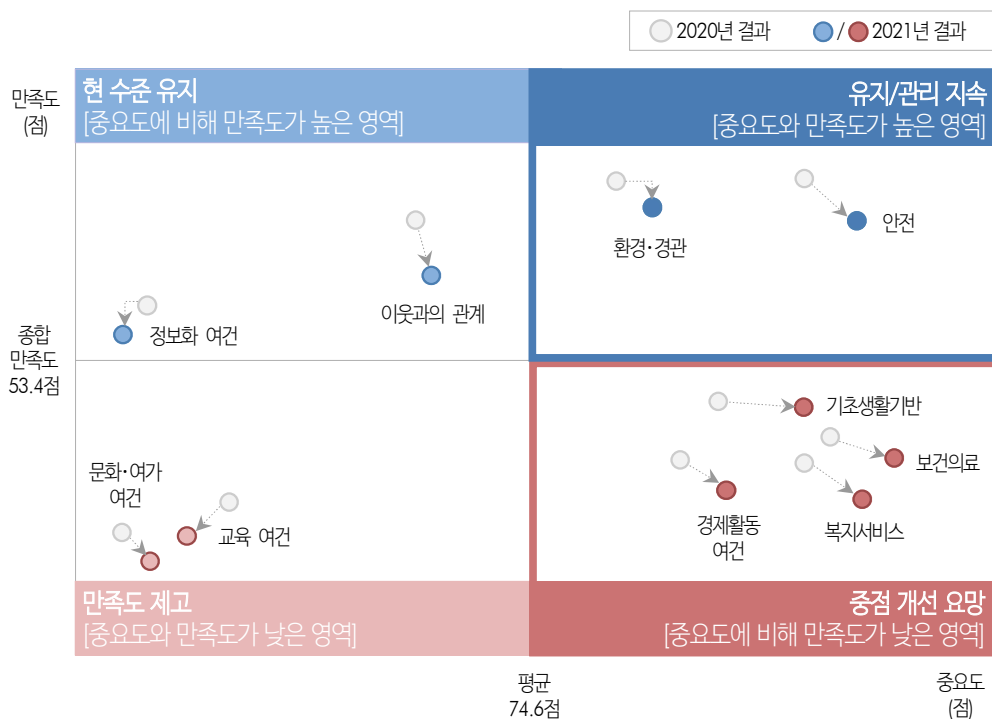
* 2020년 ‘정보화 여건’ 항목이 추가됨

*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

[종합만족도/중요도 기준]

- ▶ [유지/관리 지속 영역] : '환경·경관', '안전'
 [현 수준 유지 영역] : '이웃과의 관계', '정보화 여건'
 [만족도 제고 영역] : '교육 여건', '문화·여가 여건'
 [중점 개선 요망 영역] : '기초생활기반', '보건의료', '경제활동 여건', '복지서비스'

2020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 가운데, '환경·경관', '안전'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유지/관리 지속] 영역, '이웃과의 관계', '정보화 여건'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 [현 수준 유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 여건', '문화·여가 여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만족도 제고] 영역, '기초생활기반', '보건의료', '경제활동 여건', '복지서비스'는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중점 개선 요망]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12>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7.5점
- ▶ '건강'(38.2%), '가족'(32.9%)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7.5점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6%(n=3,982)/ 행복감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행복한 편이다’(40.7%) 등 [행복한 편(합)]이라는 응답이 43.0%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13.3%) 등 [행복하지 않은 편(합)](14.4%)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7.5점이었다.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우울감 비경험층, 주관적 건강 상태를 건강한 편으로 인지하는 층에서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이 높았다.

| 표 1112 - (1)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행복하다	행복한 편이다	행복한 편 (합)	보통 이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 (합)
합계 (3,982)		57.5점	2.3	40.7	43.0	42.6	13.3	1.1	14.4
읍/면	읍 (1,926)	59.2점	2.7	45.4	48.1	39.0	11.7	1.1	12.9
	면 (2,055)	55.8점	1.9	36.3	38.2	46.0	14.9	1.0	15.8
영농 여부	농어가 (1,153)	58.1점	2.4	41.3	43.7	43.3	12.3	0.7	13.0
	비농어가 (2,829)	57.2점	2.3	40.5	42.7	42.3	13.8	1.2	14.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55)	62.7점	4.4	48.3	52.7	42.3	3.8	1.2	5.0
	40대 (732)	61.8점	3.0	52.3	55.3	34.1	9.9	0.6	10.5
	50대 (840)	57.6점	2.0	40.4	42.4	44.6	12.2	0.9	13.0
	60대 (829)	56.3점	2.0	37.5	39.5	45.0	14.8	0.7	15.5
	70대 이상 (925)	51.2점	0.8	29.3	30.0	45.6	22.5	1.8	24.3
응답자 성	남 (1,700)	58.6점	3.1	40.8	43.9	44.5	10.6	1.0	11.7
	여 (2,281)	56.6점	1.7	40.7	42.4	41.2	15.3	1.1	16.4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층 (345)	37.4점	0.1	3.0	3.1	49.4	41.2	6.3	47.4
	비경험층 (3,636)	59.4점	2.5	44.3	46.8	42.0	10.7	0.6	11.3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한 편 (1,929)	66.4점	4.1	62.1	66.2	29.6	3.9	0.3	4.3
	보통 (1,117)	52.0점	0.7	22.4	23.1	62.2	13.7	1.0	14.7
	건강하지 않은 편 (933)	45.5점	0.4	18.6	19.0	46.1	32.4	2.6	35.0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건강'(38.2%), '가족'(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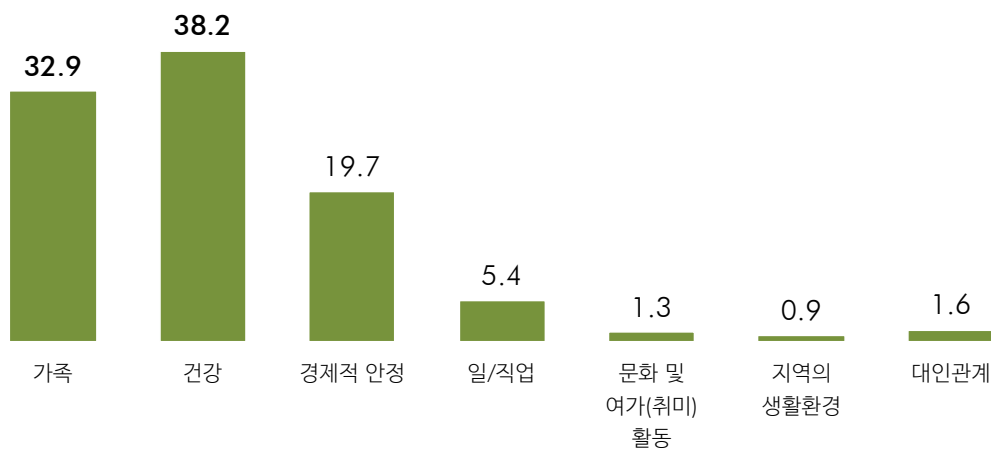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6.3%(n=3,850)]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38.2%), '가족'(32.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경제적 안정'(19.7%) 비율도 높았다. 다음으로 '일/직업'(5.4%), '대인관계'(1.6%), '문화 및 여가(취미) 활동'(1.3%), '지역의 생활환경'(0.9%) 순이었다.

| 그림 1112 - (1) | 행복의 영향 요인

단위 : %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층, 선주민층, 우울감 경험층, 주관적 건강 상태를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인지하는 층에서 ‘건강’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연령층, 이주민층, 우울감 비경험층, 주관적 건강 상태를 건강한 편으로 인지하는 층에서 ‘가족’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50대 연령층, 남성층, 주관적 건강 상태를 보통으로 인지하는 층에서 ‘경제적 안정’ 비율이 높았으며,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일/직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112 - (2) | 행복의 영향 요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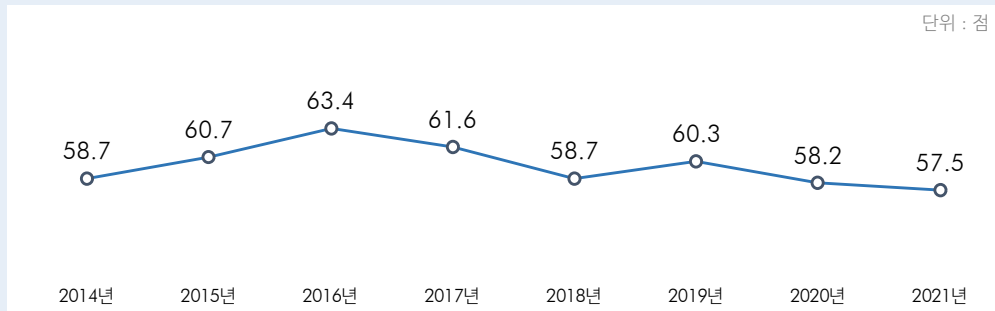
구분			가족	건강	경제적 안정	일/ 직업	문화 및 여가(취미) 활동	지역의 생활환경	대인 관계
합계 (3,850)			32.9	38.2	19.7	5.4	1.3	0.9	1.6
읍/면	읍	(1,832)	36.8	33.3	22.3	5.2	0.4	0.9	1.1
	면	(2,018)	29.3	42.7	17.3	5.6	2.1	0.8	2.2
영농 여부	농어가	(1,135)	26.4	46.8	20.2	3.0	1.3	1.2	1.1
	비농어가	(2,715)	35.6	34.7	19.5	6.4	1.3	0.7	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00)	37.3	19.4	24.4	17.2	1.8		
	40대	(696)	55.1	20.2	19.5	1.7	2.6	0.2	0.8
	50대	(826)	36.7	26.8	27.8	5.4	1.0	0.6	1.6
	60대	(815)	23.8	47.5	20.2	4.6	0.9	1.0	2.0
	70대 이상	(913)	17.6	66.5	8.9	1.3	0.5	2.1	3.0
응답자 성	남	(1,618)	33.4	32.5	22.1	8.6	1.8	0.6	1.0
	여	(2,232)	32.5	42.4	17.9	3.1	0.9	1.1	2.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92)	37.0	31.3	21.8	7.1	1.6	0.5	0.7
	선주민	(1,359)	25.3	51.0	15.7	2.4	0.8	1.5	3.3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층	(324)	20.2	47.9	29.5	1.2	0.2	0.5	0.5
	비경험층	(3,526)	34.0	37.3	18.8	5.8	1.4	0.9	1.7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한 편	(1,892)	42.3	26.0	19.4	7.9	2.0	0.8	1.6
	보통	(1,045)	26.5	38.6	26.9	4.9	0.7	1.0	1.4
	건강하지 않은 편	(911)	20.8	63.3	11.9	0.9	0.4	0.8	2.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 2019년 이후 행복감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그림 1112 - (2)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 2016년은 10점 척도를 사용함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20년 대비 '건강' 비율이 증가함(+4.6%p)

| 표 1112 - (3) | 행복의 영향 요인 - 추이

단위 : %(명)

구분	가족	건강	경제적 안정	일/직업	문화 및 여가(취미) 활동	지역의 생활환경	대인 관계	기타
2021년 (3,850)	32.9	38.2	19.7	5.4	1.3	0.9	1.6	
2020년 (3,866)	34.3	33.6	21.9	4.8	1.9	1.3	1.7	0.5
2019년 (3,924)	33.0	41.7	16.9	3.6	1.3	0.5	2.7	0.3
2018년 (2,752)	26.6	40.0	26.2	3.1	1.1	0.4	2.4	0.2
2017년 (3,982)	34.3	38.0	21.8	3.3	0.9	0.5	0.6	0.5
2016년 (3,935)	41.5	33.2	15.7	3.5	1.2	1.2	3.3	0.4
2015년 (3,916)	39.4	35.2	13.3	3.6		1.8	6.3	0.4
2014년 (3,931)	41.1	35.7	12.8	2.9		0.9	6.2	0.5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6년 '문화 및 여가활동' 항목이 추가됨

* 2016년까지는 행복의 영향 요인 2가지를 순위별로 선택하여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함

* 2017년부터 단일항목을 선택함

1113 > 주관적 건강 상태

귀하는 지금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96)]

▶ [건강한 편(합)](48.3%) > [건강하지 않은 편(합)](23.4%)

‘건강한 편이다’(44.9%) 등 [건강한 편(합)] 비율이 48.3%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0.8%) 등 [건강하지 않은 편(합)](23.4%)에 비해 높았다.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층, 장애 가구원이 없는 가구, 65세 미만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이주민층에서 [건강한 편(합)]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면지역, 7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65세 이상 1인 가구, 선주민층에서 [건강하지 않은 편(합)] 비율이 높았다.

| 표 1113 - (1) |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 %(명)

구분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 (합)	보통 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합)
합계 (3,996)		3.4	44.9	48.3	28.3	20.8	2.6	23.4
읍/면	읍 (1,924)	3.1	50.3	53.5	27.6	16.9	2.0	18.9
	면 (2,073)	3.6	39.9	43.5	28.9	24.4	3.2	27.5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2.3	39.5	41.9	33.6	22.5	2.0	24.5
	비농어가 (2,828)	3.8	47.2	51.0	26.1	20.0	2.8	22.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9.7	58.3	68.0	29.0	3.0		3.0
	40대 (734)	3.0	60.2	63.2	24.4	12.4		12.4
	50대 (838)	3.9	58.5	62.4	26.2	10.6	0.8	11.5
	60대 (829)	1.4	39.3	40.6	34.8	22.7	1.9	24.6
	70대 이상 (926)	0.4	16.0	16.5	27.0	47.7	8.8	56.5
응답자 성	남 (1,716)	5.1	48.8	53.9	31.3	13.7	1.1	14.8
	여 (2,280)	2.0	42.1	44.1	26.1	26.1	3.7	29.8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416)	0.7	22.8	23.5	24.5	42.5	9.5	52.0
	없음 (3,580)	3.7	47.5	51.2	28.8	18.2	1.8	20.0
가족 형태	65세 미만 1인 가구 (508)	7.5	49.2	56.7	30.6	11.3	1.3	12.6
	65세 이상 1인 가구 (727)	0.5	15.9	16.3	27.6	46.7	9.5	56.1
	2인 이상 가구 (2,762)	3.4	51.8	55.2	28.1	15.7	1.0	16.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0)	4.5	50.7	55.2	27.6	15.6	1.6	17.2
	선주민 (1,406)	1.3	34.3	35.6	29.6	30.4	4.4	34.7

 주관적 건강 상태 - 추이

- 2020년 대비 [건강하지 않은 편(합)] 비율이 감소함(-4.2%p)

| 표 1113 - (2) | 주관적 건강 상태 - 추이

단위 : %(명)

구분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 (합)	보통 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합)
2021년 (3,996)	3.4	44.9	48.3	28.3	20.8	2.6	23.4
2020년 (3,973)	9.0	42.1	51.0	21.3	23.7	4.0	27.6
2019년 (3,952)	4.7	48.0	52.6	20.8	20.8	5.7	26.5
2018년 (2,766)	4.3	42.2	46.4	29.1	21.3	3.1	24.4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114> 정신건강

지난 1년(2020.09.01.~2021.08.31.) 동안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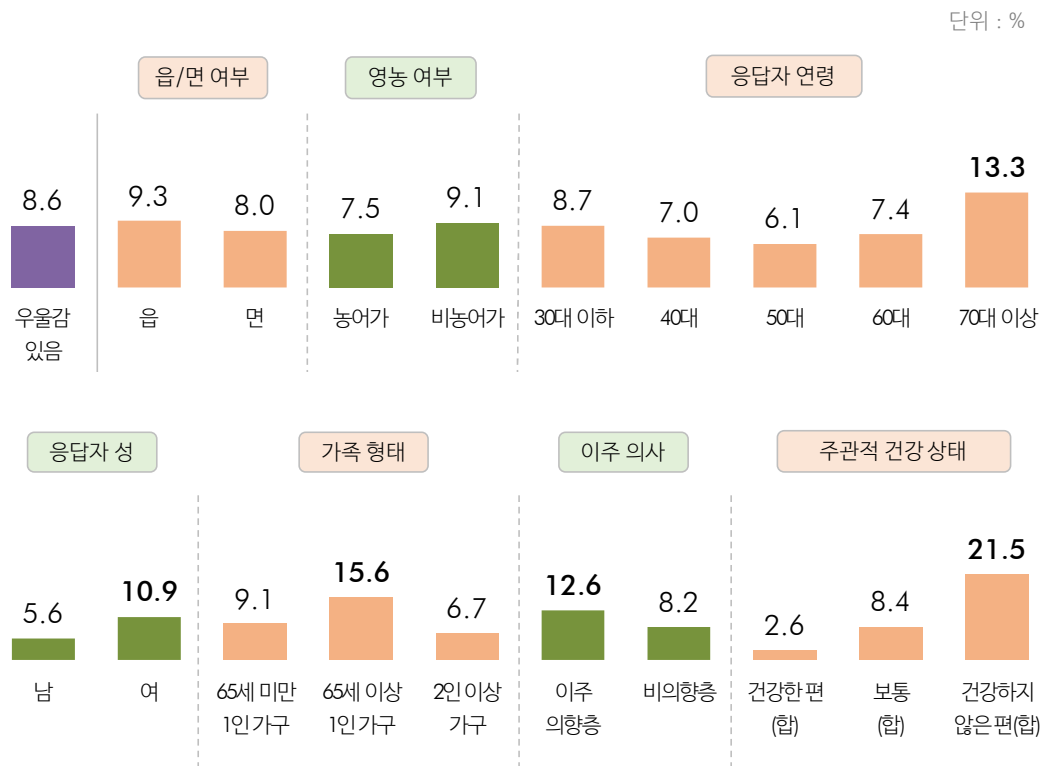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층은 8.6%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는 층은 8.6%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 65세 이상 1인 가구,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 주관적 건강 상태를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인지하는 층에서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 1114 - (1) |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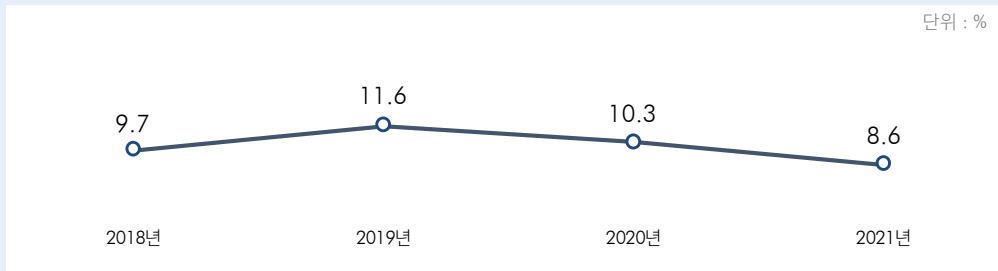




정신건강 - 추이

- 2019년 이후 우울감 경험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그림 1114 - (2) | 정신건강 - 추이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115>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귀하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98)]

▶ 5년 전 대비 삶의 질이 [나빠진 편(합)](32.2%) > [좋아진 편(합)](21.2%)

‘나빠진 편이다’(28.0%) 등 [나빠진 편(합)] 비율이 32.2%로, ‘좋아진 편이다’(20.4%) 등 [좋아진 편(합)](21.2%)에 비해 높았다.

읍지역, 40대 연령층, 이주민층에서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표 1115 - (1) |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아졌다	좋아진 편이다	좋아진 편(합)	보통 이다	나빠진 편이다	매우 나빠졌다	나빠진 편(합)
합계 (3,998)			0.7	20.4	21.2	46.7	28.0	4.2	32.2
읍/면	읍 (1,926)		0.5	24.2	24.7	46.8	23.7	4.8	28.5
	면 (2,072)		1.0	16.9	17.9	46.5	32.0	3.6	35.6
영농 여부	농어가 (1,168)		1.0	18.9	19.9	44.0	32.4	3.7	36.1
	비농어가 (2,830)		0.6	21.0	21.7	47.8	26.2	4.3	30.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29.4	29.4	57.2	13.3		13.3
	40대 (734)		1.2	35.0	36.2	44.1	16.1	3.7	19.7
	50대 (840)		1.4	19.0	20.4	51.5	24.9	3.1	28.0
	60대 (829)		0.8	15.0	15.8	45.2	34.1	4.9	39.0
	70대 이상 (926)		0.3	8.5	8.8	37.9	45.5	7.8	53.3
응답자 성	남 (1,716)		0.8	19.9	20.8	51.6	24.4	3.3	27.7
	여 (2,282)		0.7	20.8	21.5	43.0	30.7	4.8	35.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0.9	22.9	23.8	47.7	24.4	4.1	28.5
	선주민 (1,406)		0.4	15.9	16.3	44.8	34.6	4.3	38.9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좋아진 편(합)]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표 1115 - (2) |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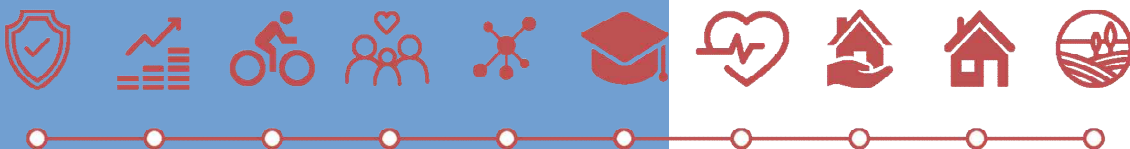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아졌다	좋아진 편이다	좋아진 편(합)	보통 이다	나빠진 편이다	매우 나빠졌다	나빠진 편(합)
2021년 (3,998)	0.7	20.4	21.2	46.7	28.0	4.2	32.2
2020년 (3,967)	1.1	24.2	25.3	43.0	27.3	4.4	31.6
2018년 (2,744)	1.1	26.1	27.2	48.8	21.4	2.6	24.0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200〉 보건의료

- 1201> 의료기관 이용실태
- 1202> 공공의료기관 이용실태
- 1203> 응급실 이용실태
- 1204> 질병치료 시 어려움
- 1205>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 1206>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1201 > 의료기관 이용실태

-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83.6%), '월 1회 미만' 이용층이 53.7%
- ▶ 의료기관까지 주로 '자가용'(57.8%)으로 이동,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5.8분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83.6%)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귀택에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4%(n=3,977)]

주로 '병(의)원'(83.6%)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종합병원' 이용률은 11.8%, '한방병(의)원' 이용률은 1.4%였으며, '보건진료소'(1.4%), '보건소(지소)'(1.3%), '보건의료원'(0.5%) 등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1%로 나타났다.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병(의)원' 비율이 더욱 높았다.

| 표 1201 - (1)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단위 : %(명)

구분		보건 의료원	보건소 (지소)	보건 진료소	공공의료 기관	병(의)원	한방 병(의)원	종합병원	민간의료 기관
합계 (3,977)		0.5	1.3	1.4	3.1	83.6	1.4	11.8	96.9
읍/면	읍 (1,918)	0.3	0.4	0.3	1.0	86.3	1.6	11.0	99.0
	면 (2,059)	0.6	2.1	2.5	5.1	81.0	1.3	12.6	94.9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0.7	2.2	3.1	6.0	78.4	1.5	14.1	94.0
	비농어가 (2,811)	0.4	0.9	0.7	2.0	85.7	1.4	10.9	98.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58)			2.2	2.2	91.8	1.5	4.5	97.8
	40대 (728)	0.0			0.0	84.8	0.7	14.5	100.0
	50대 (838)	0.7	0.6	1.5	2.9	84.0	1.2	12.0	97.1
	60대 (827)	0.2	1.3	1.0	2.5	82.9	1.4	13.2	97.5
	70대 이상 (925)	1.2	3.7	2.2	7.1	77.1	2.3	13.5	92.9
응답자 성	남 (1,696)	0.5	1.0	1.6	3.1	82.8	1.4	12.7	96.9
	여 (2,281)	0.5	1.5	1.2	3.2	84.2	1.5	11.2	96.8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추이

-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병(의)원' 비율이 가장 높음

| 표 1201 - (2)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추이

단위 : %(명)

구분	보건 의료원	보건소 (지소)	보건 진료소	병(의)원	한방 병(의)원	종합병원
2021년 (3,977)	0.5	1.3	1.4	83.6	1.4	11.8
2018년 (2,769)	2.9	1.9	2.0	81.2	2.1	9.9
2016년 (3,952)		3.0	1.3	83.5	1.4	10.8
2013년 (2,746)		3.0	3.7	76.4	2.3	13.9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8년 '보건의료원' 항목이 추가됨

*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월 1회 미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53.7%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한 월 평균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의료기관 이용률(n=3,977)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2%(n=3,946)]

의료기관 이용 횟수로 ‘월 1회 미만’(53.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월 1-2회’(30.8%)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 3-4회’(9.8%), ‘월 5회 이상’(5.4%), ‘거의 매일’(0.4%)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층에서 ‘월 1회 미만’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에서 ‘월 1-2회’ 비율이 높았다.

| 표 1201 - (3) | 의료기관 이용 횟수

단위 : %(명)

구분			월 1회 미만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거의 매일
합계 (3,946)			53.7	30.8	9.8	5.4	0.4
읍/면	읍	(1,912)	57.9	26.6	9.1	6.0	0.5
	면	(2,034)	49.7	34.7	10.4	4.8	0.3
영농 여부	농어가	(1,152)	47.2	36.3	10.6	5.8	0.1
	비농어가	(2,794)	56.4	28.5	9.4	5.2	0.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58)	74.1	16.9	6.8	2.3	
	40대	(721)	66.3	20.5	7.5	4.4	1.3
	50대	(834)	62.8	28.7	5.1	3.3	0.1
	60대	(815)	47.9	36.8	10.3	4.7	0.3
	70대 이상	(918)	26.1	45.4	17.4	10.7	0.4
응답자 성	남	(1,683)	59.9	30.9	6.2	2.5	0.5
	여	(2,263)	49.1	30.7	12.4	7.5	0.3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125)	52.0	37.6	6.7	3.7	
	병(의원) (한방 포함)	(3,360)	53.5	30.6	10.3	5.2	0.4
	종합병원	(461)	55.3	30.5	6.6	7.3	0.3



의료기관 이용 횟수 - 추이

- 2016년 이후 '월 1-2회'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표 1201 - (4) | 의료기관 이용 횟수 - 추이

단위 : %(명)

구분	월 1회 미만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거의 매일
2021년 (3,946)	53.7	30.8	9.8	5.4	0.4
2018년 (2,764)	54.3	32.1	8.3	5.4	
2016년 (3,944)	43.4	34.6	12.6	9.4	
2013년 (2,761)	48.9	33.3	9.4	8.4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21년 '거의 매일' 항목이 추가됨

의료기관까지 주로 '자가용'(57.8%)으로 이동

그 의료기관으로 가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의료기관 이용층(n=3,977)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73)]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가용'(57.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중교통'(25.9%), '걸어서'(15.0%) 순이었다.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층, 교통수단 보유층, 종합병원 이용층에서 '자가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 교통수단 미보유층에서 '대중교통'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연령층, 공공의료기관 이용층에서 '걸어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201 - (5) | 의료기관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합계 (3,973)			15.0	25.9	57.8	1.3
읍/면	읍 (1,918)		25.1	17.1	56.5	1.3
	면 (2,055)		5.6	34.1	59.0	1.3
영농 여부	농어가 (1,165)		6.3	31.8	60.3	1.5
	비농어가 (2,808)		18.6	23.4	56.8	1.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58)		14.4	11.5	74.0	0.1
	40대 (728)		19.5	9.5	70.2	0.9
	50대 (838)		15.1	18.1	66.0	0.7
	60대 (825)		13.5	28.3	56.3	2.0
	70대 이상 (923)		13.2	54.0	30.5	2.3
응답자 성	남 (1,693)		11.4	18.1	69.4	1.2
	여 (2,279)		17.7	31.7	49.2	1.4
보유 교통수단	있음 (3,125)		14.3	14.5	69.7	1.5
	없음 (848)		17.4	68.1	14.1	0.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125)		27.4	24.2	46.0	2.4
	병(의)원 (한방 포함) (3,379)		16.6	25.8	56.3	1.3
	종합병원 (470)		0.5	26.8	72.0	0.8



의료기관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 2018년 대비 '자가용'(+5.5%p) 비율이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6.1%p) 비율은 감소함

| 표 1201 - (6) | 의료기관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단위: %(명)

구분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2021년 (3,973)	15.0	25.9	57.8	1.3
2018년 (2,761)	13.5	32.0	52.3	2.2
2016년 (3,946)	15.9	29.3	53.4	1.4
2013년 (2,754)	42.9	34.7	18.9	3.5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8년 '대중교통'은 "버스", "택시"의 합이며, '자가용'은 "개인차량" 항목의 수치임

의료기관까지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5.8분

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의료기관 이용층(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9%(n=3,957)]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으로 '10-20분 미만'(34.3%), '20-30분 미만'(23.4%), '10분 미만'(9.0%) 등 [30분 미만]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40분 미만'(15.5%), '40-50분 미만'(5.7%), '50분-1시간 미만'(2.2%) 등 [30분-1시간 미만](23.3%), '1시간 이상'(9.9%) 순이었으며, 의료기관까지의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5.8분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 종합병원 이용층, 의료기관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층에서 평균 소요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 표 1201 - (7) | 의료기관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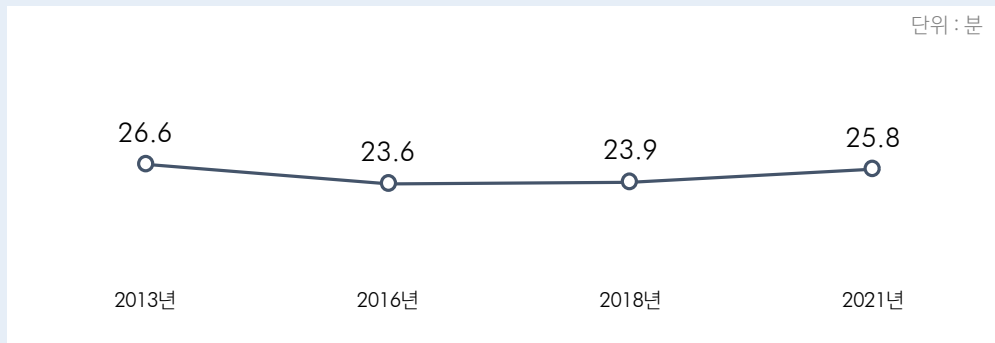
구분			평균	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40분 미만	40-50분 미만	50분- 1시간미만	1시간 이상
합계 (3,957)			25.8분	9.0	34.3	23.4	15.5	5.7	2.2	9.9
읍/면	읍 (1,909)		22.9분	13.2	41.4	19.3	10.9	5.6	1.2	8.4
	면 (2,049)		28.5분	5.1	27.7	27.3	19.8	5.8	3.0	11.4
영농 여부	농어가 (1,160)		30.6분	5.3	26.4	23.4	22.2	7.5	2.7	12.6
	비농어가 (2,797)		23.8분	10.6	37.6	23.5	12.7	5.0	1.9	8.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58)		19.4분	15.3	36.1	29.4	9.4	4.5	1.8	3.5
	40대 (726)		24.5분	11.5	41.7	16.6	13.6	4.7	0.5	11.5
	50대 (830)		21.4분	10.3	39.3	22.3	15.4	5.5	2.5	4.8
	60대 (822)		31.1분	5.3	32.6	24.8	14.6	4.7	3.0	15.0
	70대 이상 (921)		30.7분	4.6	24.2	24.4	22.2	8.4	2.7	13.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125)		18.1분	20.3	34.2	15.7	23.1	4.9	0.8	1.0
	병(의)원 (한방 포함) (3,364)		22.0분	9.8	36.8	25.1	15.7	5.4	1.6	5.5
	종합병원 (468)		55.0분	0.3	16.1	13.6	11.7	8.1	6.4	43.9
의료기관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걸어서 (586)		11.8분	18.6	68.7	8.7	4.0			
	대중교통 (1,027)		36.1분	1.6	15.0	29.5	22.8	8.7	4.0	18.5
	자가용 (2,290)		24.9분	9.2	34.3	24.6	15.2	5.9	1.9	8.8
	기타 (51)		17.9분	37.1	29.3	14.6	13.2	1.6	1.2	2.9



의료기관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 추이

- 전반적으로 평균 소요시간이 비슷한 경향을 보임

| 그림 1201 | 의료기관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 추이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202 > 공공의료기관 이용실태

- ▶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층은 31.1%
- ▶ '예방접종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층이 38.1%
- ▶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층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71.1점
- ▶ '이용하는 병·의원이 있어서'(64.5%)가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층'은 31.1%

주된 공공의료기관 이용 사유는 '예방접종을 위해서'(38.1%)

귀댁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의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귀댁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 :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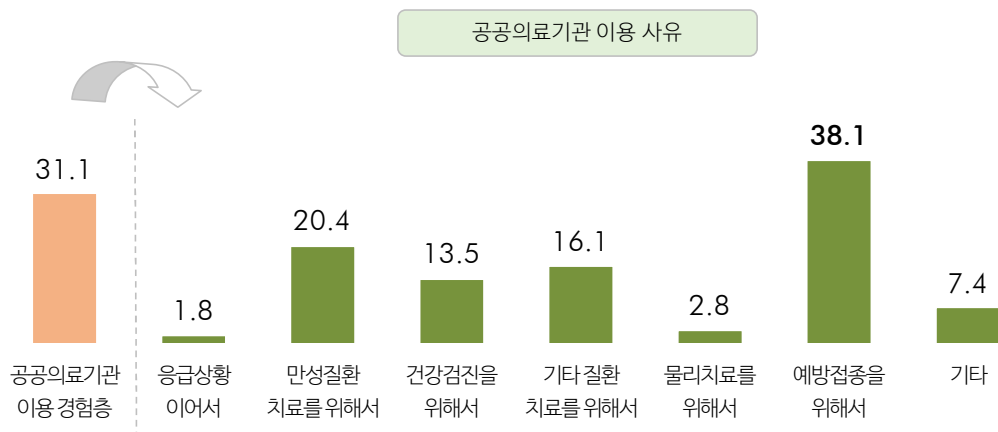
[공공의료기관 이용 사유 : 공공의료기관 이용층(n=1,243)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3%(n=1,234)]

지난 1년간 지역의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에 있는 층은 31.1%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이용 사유로 '예방접종을 위해서'(38.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서'(20.4%), '기타 질환 치료를 위해서'(16.1%), '건강검진을 위해서'(13.5%), '물리치료를 위해서'(2.8%), '응급상황이어서'(1.8%) 순이었다.

| 그림 1202 - (1) |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 및 이용 사유

단위 : %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층에서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층 비율이 높았다.

농어가, 40대 연령층에서 '예방접종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면지역,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만성' 및 '기타 질환치료를 위해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 남성층에서 '건강검진을 위해서' 비율이 높았다.

| 표 1202 - (1) |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 및 이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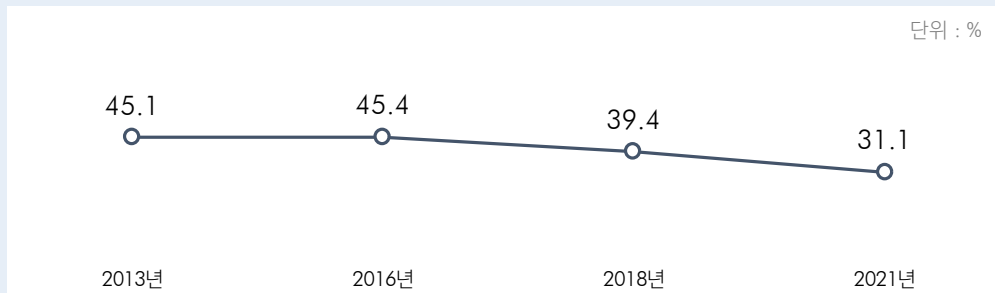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이용 경험		공공의료기관 이용 사유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응급상황 이어서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서	건강 검진을 위해서	기타 질환 치료를 위해서	물리 치료를 위해서	예방 접종을 위해서	기타
합계		(3,999)	31.1	(1,234)	1.8	20.4	13.5	16.1	2.8	38.1	7.4
읍/면	읍	(1,926)	27.9	(531)	2.7	10.5	18.1	10.6	2.7	40.1	15.4
	면	(2,073)	34.1	(703)	1.1	27.8	10.1	20.3	2.8	36.6	1.3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41.6	(483)	0.9	25.6	5.9	22.4	2.4	41.0	1.8
	비농어가	(2,830)	26.7	(751)	2.3	17.0	18.5	12.1	3.0	36.2	10.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17.4	(116)			46.7	12.2		27.6	13.4
	40대	(734)	20.8	(147)	0.2	1.6	8.6	7.2	1.4	64.3	16.7
	50대	(840)	25.6	(215)	4.2	23.9	14.1	14.4	1.1	31.3	11.1
	60대	(829)	36.4	(301)	2.6	21.5	8.0	17.7	2.8	40.3	7.1
	70대 이상	(927)	49.4	(455)	1.0	29.3	10.0	19.8	4.7	34.0	1.2
응답자 성	남	(1,717)	28.6	(484)	1.0	16.5	18.1	17.0	2.1	40.0	5.4
	여	(2,282)	33.0	(749)	2.3	22.9	10.6	15.6	3.2	36.9	8.6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 및 이용 사유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그림 1202 - (2) |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 - 추이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6년 대비 '예방접종을 위해서'(+8.9%p)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한편, '기타 질환치료를 위해서' 비율은 감소함(-11.3%p)

| 표 1202 - (2) | 공공의료기관 이용 사유 - 추이

단위: %(명)

구분	응급상황 이어서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서	건강 검진을 위해서	기타 질환 치료를 위해서	물리 치료를 위해서	예방 접종을 위해서	기타
2021년 (1,234)	1.8	20.4	13.5	16.1	2.8	38.1	7.4
2016년 (1,786)	4.3	19.4	11.5	27.4	4.6	29.2	3.6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71.1점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층(n=1,243)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3%(n=1,210)]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층(n=1,210)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71.1점으로 ‘다소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다소 만족’(51.6%), ‘매우 만족’(18.4%) 등 [만족하는 편(합)] 비율이 70.0%로, ‘다소 불만족’(3.2%) 등 [불만족하는 편(합)](3.5%)에 비해 높았다.

면지역,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만성질환치료 및 물리치료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한 층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표 1202 - (3) | 공공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하는 편(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합)
합계		(1,210) 71.1점	18.4	51.6	70.0	26.5	3.2	0.3	3.5
읍/면	읍	(514) 68.6점	12.0	53.6	65.6	30.9	3.4		3.4
	면	(696) 73.0점	23.0	50.2	73.2	23.2	3.0	0.6	3.5
영농 여부	농어가	(482) 73.8점	22.3	54.3	76.5	20.4	2.7	0.4	3.1
	비농어가	(728) 69.4점	15.8	49.9	65.7	30.6	3.5	0.3	3.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8) 70.1점	4.8	70.7	75.4	24.6			
	40대	(147) 70.6점	18.1	47.2	65.3	33.6	1.1		1.1
	50대	(214) 67.0점	15.6	47.2	62.7	27.3	9.6	0.4	10.0
	60대	(301) 70.2점	18.5	48.1	66.6	29.9	2.6	0.8	3.5
	70대 이상	(450) 74.2점	22.6	53.4	76.1	21.9	1.8	0.1	2.0
응답자 성	남	(471) 70.4점	16.3	54.4	70.7	24.1	5.0	0.2	5.2
	여	(739) 71.6점	19.7	49.9	69.6	28.0	2.0	0.4	2.4
공공 의료기관 이용 사유	응급상황	(22) 65.3점	7.9	45.5	53.4	46.6			
	만성질환치료	(246) 75.6점	24.0	56.4	80.4	17.6	2.0	0.1	2.0
	건강검진	(143) 69.7점	21.0	44.9	65.9	25.7	8.4		8.4
	기타 질환치료	(199) 71.5점	17.1	57.5	74.6	20.5	3.7	1.1	4.8
	물리치료	(34) 75.9점	30.7	48.0	78.7	16.8	3.3	1.2	4.5
	예방접종	(467) 69.3점	15.9	48.3	64.2	33.0	2.5	0.2	2.8
	기타	(91) 71.8점	13.6	61.4	75.0	23.7	1.3		1.3



공공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 추이

- 2018년 대비 '다소 만족'(-15.7%p) 등 [만족하는 편(합)](-9.6%p) 비율이 감소한 반면, '보통'(+11.2%p) 비율이 증가하여 공공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는 2018년도와 비슷한 수준(평균 -0.5점)을 보임

| 표 1202 - (4) | 공공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하는 편(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합)
2021년 (1,210)	71.1점	18.4	51.6	70.0	26.5	3.2	0.3	3.5
2018년 (2,780)	71.6점	12.3	67.3	79.6	15.3	4.5	0.6	5.0
2016년 (1,787)	69.0점	14.8	51.9	66.7	28.6	3.8	0.9	4.7
2013년 (1,234)	73.4점	25.8	47.0	72.8	23.3	2.9	1.0	3.9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이용하는 병·의원이 있어서'(64.5%)

귀택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의료기관 비이용층(n=2,756)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9%(n=2,698)]

공공의료기관 비이용층(n=2,698)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하는 병·의원이 있어서'(64.5%)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성이 떨어져서'(19.7%), '시설이 낙후되어서'(5.5%), '거리가 멀어서'(4.8%), '동행자가 없어서'(1.1%) 순이었다.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이용하는 병·의원이 있어서'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에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202 - (5) | 공공의료기관 비이용 사유

단위 : %(명)

구분		거리가 멀어서	시설이 낙후되어서	이용하는 병·의원이 있어서	동행자가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기타
합계 (2,698)		4.8	5.5	64.5	1.1	19.7	4.5
읍/면	읍 (1,345)	4.8	3.2	65.9	0.2	20.4	5.4
	면 (1,353)	4.7	7.7	63.1	1.9	19.0	3.5
영농 여부	농어가 (675)	3.5	6.8	71.6	2.4	13.9	1.9
	비농어가 (2,023)	5.2	5.1	62.1	0.6	21.6	5.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32)	4.1	3.6	57.7		25.6	9.0
	40대 (554)	3.1	5.6	62.0		23.3	6.0
	50대 (624)	4.4	6.6	62.3	2.0	21.0	3.7
	60대 (524)	4.2	8.2	67.4	0.6	17.8	1.9
	70대 이상 (465)	8.7	2.9	75.0	2.8	9.2	1.3
응답자 성	남 (1,198)	2.9	7.3	63.3	0.3	20.0	6.2
	여 (1,500)	6.3	4.0	65.4	1.6	19.5	3.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944)	3.9	6.2	61.1	0.8	22.2	5.7
	선주민 (754)	6.9	3.6	73.2	1.7	13.3	1.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43)	5.6	4.7	54.7		28.8	6.2
	비의향층 (2,348)	4.7	5.6	65.8	1.2	18.5	4.2



공공의료기관 비용 사유 - 추이

- 2016년 대비 '이용하는 병·의원이 있어서'(+60.3%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전문성이 떨어져서'(-26.7%p), '거리가 멀어서'(-14.3%p) 비율은 감소함

| 표 1202 - (6) | 공공의료기관 비용 사유 - 추이

단위 : %(명)

구분	거리가 멀어서	시설이 낙후되어서	이용하는 병·의원이 있어서	동행자가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기타
2021년 (2,698)	4.8	5.5	64.5	1.1	19.7	4.5
2016년 (2,067)	19.1	5.2	4.2	1.6	46.4	23.4

* 2016년 '기타'는 "돈이 없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타"의 합임

1203> 응급실 이용실태

- ▶ 응급실 이용 경험층은 12.6%, '응급질환발생'(73.0%)이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된 원인
- ▶ 응급질환발생 유형으로 '소화기질환'(30.1%) 비율이 가장 높음
- ▶ 응급실 의료서비스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평균 63.1점)의 평가
- ▶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30분 이내(합)](78.6%) 비율이 높음
- ▶ 응급실까지의 주된 교통수단은 '개인용 차량'(58.2%), '구급차' 이용률은 34.9%
- ▶ 구급차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수준'(평균 80.7점)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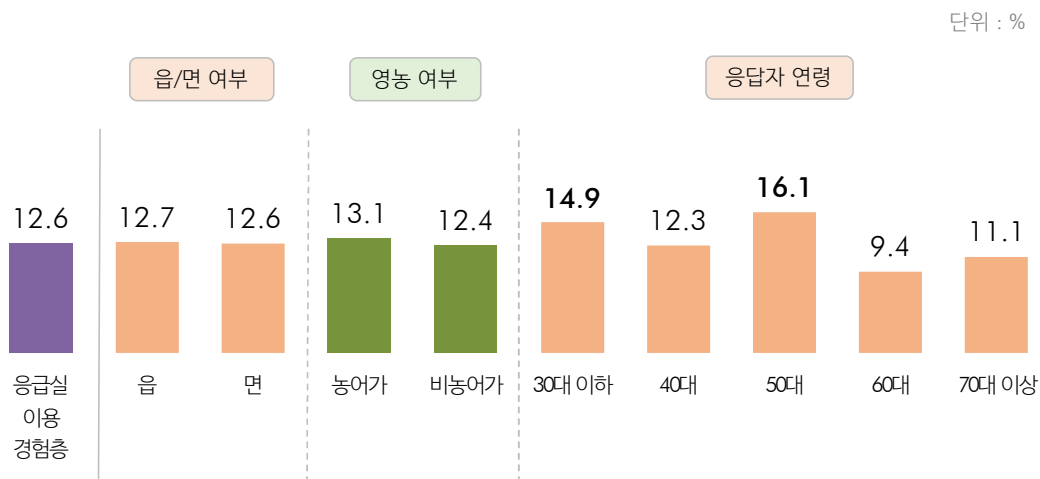
응급실 이용 경험층은 12.6%

귀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지난 1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이 12.6%였으며, 30대 이하, 50대 연령층에서 응급실 이용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 그림 1203 - (1) | 응급실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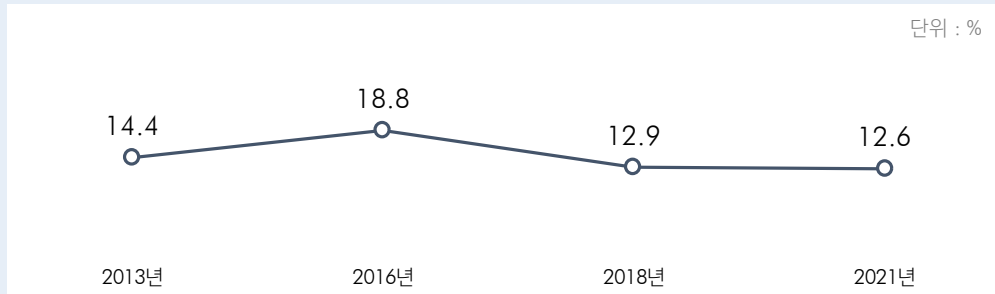




응급실 이용 경험 - 추이

-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0.3%p)

| 그림 1203 - (2) | 응급실 이용 경험 - 추이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된 원인은 '응급질환발생'(73.0%)

응급실 이용 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응급실 이용층(n=505) 기준]

‘응급질환발생’(73.0%)이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된 원인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정내 안전사고’(18.8%), ‘농작업 안전사고’(4.8%), ‘교통사고’(1.9%), ‘농약중독’(1.6%) 순이었다.

읍지역, 50대 이상 연령층, 남성층에서 ‘응급질환발생’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 여성층에서 ‘가정내 안전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203 - (1) |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 원인

단위 : %(명)

구분			교통사고	농작업 안전사고	가정내 안전사고	농약중독	응급질환발생
합계 (505)			1.9	4.8	18.8	1.6	73.0
읍/면	읍 (244)		1.2	0.1	22.9	0.5	75.2
	면 (260)		2.5	9.2	14.9	2.5	70.9
영농 여부	농어가 (153)		4.1	11.5	6.9	2.8	74.6
	비농어가 (351)		0.9	1.8	23.9	1.0	72.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9)				44.2	4.3	51.4
	40대 (90)		5.1	7.7	18.2	2.4	66.6
	50대 (135)			1.6	14.6		83.8
	60대 (78)		1.8	10.1	9.1		78.9
	70대 이상 (103)		3.6	6.9	7.3	1.3	80.9
응답자 성	남 (188)		0.8	5.8	10.3	3.5	79.6
	여 (317)		2.5	4.1	23.8	0.4	69.1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 원인 - 추이

- 문항 구성이 달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2016년 대비 '응급질환발생' 비율이 감소함(-18.5%p)

| 표 1203 - (2) |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 원인 - 추이

단위 : %(명)

구분	교통사고	농작업 안전사고	가정내 안전사고	농약중독	응급질환발생
2021년 (505)	1.9	4.8	18.8	1.6	73.0
2016년 (741)	4.7	3.7		0.2	91.5

* 2021년 '가정내 안전사고' 항목이 추가됨



'소화기질환'(30.1%)이 주된 응급질환발생 유형

응급질환 발생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어떤 질환 때문이었습니까?

[응급질환발생총(n=368) 기준]

응급질환발생 유형(n=368)으로 '소화기질환'(30.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뇌혈관질환'(15.3%), '호흡기질환'(14.1%), '외상'(11.7%), '심혈관질환'(9.0%) 순이었으며, "어지럼증" 등 '기타'는 19.8%였다.

면지역, 비농어가, 50대 연령층, 남성층에서 '소화기질환'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농어가, 여성층에서 '뇌혈관질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호흡기질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 1203 - (3) | 응급질환발생 유형

단위 : %(명)

구분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외상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기타
합계 (368)			9.0	15.3	11.7	30.1	14.1	19.8
읍/면	읍	(184)	4.6	19.4	16.2	27.8	14.3	17.7
	면	(185)	13.4	11.2	7.2	32.5	13.8	21.9
영농 여부	농어가	(114)	16.0	19.1	9.5	24.0	14.2	17.2
	비농어가	(254)	5.9	13.6	12.7	32.9	14.0	20.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		18.1	5.3	21.2	33.7	21.8
	40대	(60)	4.8	18.7	11.7	23.5	23.5	17.8
	50대	(113)	11.9	11.7	17.3	41.3	5.1	12.6
	60대	(61)	6.9	12.9	5.1	32.1	14.1	28.9
	70대 이상	(83)	15.2	17.7	12.9	23.8	7.4	23.0
응답자 성	남	(149)	9.0	12.6	10.4	33.5	16.6	17.9
	여	(219)	9.0	17.2	12.6	27.8	12.4	21.1

응급실 의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3.1점

응급실의 의뢰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응급실 이용층(n=505)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4%(n=502)]

응급실 이용 경험층(n=502)의 응급실 의뢰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만족’(41.3%) 등 [만족하는 편(합)](53.4%)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불만족하는 편(합)](10.6%)에 비해 높아 ‘약간 만족하는 수준’(평균 63.1점)의 평가를 보였다.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 남성층, 선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응급실 의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표 1203 - (4) | 응급실 의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하는 편(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합)
합계 (502)			63.1점	12.0	41.3	53.4	36.0	8.0	2.6	10.6
읍/면	읍	(242)	62.2점	7.5	42.9	50.5	41.0	8.1	0.5	8.6
	면	(260)	63.8점	16.2	39.8	56.1	31.5	7.9	4.5	12.5
영농 여부	농어가	(152)	68.7점	15.8	53.6	69.4	22.4	5.9	2.3	8.2
	비농어가	(349)	60.6점	10.4	35.9	46.3	42.0	9.0	2.7	11.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9)	59.1점	16.4	23.7	40.1	44.8	10.1	5.1	15.1
	40대	(90)	57.2점	6.7	45.0	51.7	23.1	21.0	4.3	25.2
	50대	(134)	60.9점	7.9	35.1	43.0	51.6	3.5	1.8	5.4
	60대	(77)	69.7점	17.5	49.2	66.7	28.4	4.3	0.7	4.9
	70대 이상	(102)	69.9점	13.8	57.5	71.3	24.3	3.3	1.1	4.4
응답자 성	남	(187)	65.3점	15.9	37.2	53.1	41.0	4.3	1.7	6.0
	여	(315)	61.7점	9.8	43.8	53.5	33.1	10.2	3.1	13.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320)	61.7점	12.3	36.4	48.7	40.7	6.8	3.8	10.6
	선주민	(182)	65.5점	11.5	50.0	61.5	27.9	10.1	0.5	10.6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0)	51.4점	4.3	13.9	18.2	65.0	16.8		16.8
	비의향층	(452)	64.3점	12.9	44.4	57.3	32.8	7.1	2.9	9.9



응급실 의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2016년 대비 만족도가 증가함(평균 +9.3점)

| 표 1203 - (5) | 응급실 의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합)
2021년 (502)	63.1점	12.0	41.3	53.4	36.0	8.0	2.6	10.6
2016년 (733)	53.8점	6.2	38.4	44.6	29.3	16.7	9.4	26.1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30분 이내(합)](78.6%) 비율이 높음

응급실 이용 시,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응급실 이용층(n=505)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0%(n=500)]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20분 이내'(32.6%), '30분 이내'(25.2%), '10분 이내'(20.8%) 등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어촌서비스 기준인 [30분 이내(합)]를 충족하는 비율은 78.6%였으며, '1시간 이내' 비율은 21.4%였다.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 택시 이용층에서 [30분 이내(합)]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 표 1203 - (6) |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단위 : %(명)

구분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30분 이내(합)	1시간 이내
합계 (500)			20.8	32.6	25.2	78.6	21.4
읍/면	읍 (241)		19.0	34.5	24.8	78.2	21.8
	면 (260)		22.4	30.9	25.6	79.0	21.0
영농 여부	농어가 (153)		13.2	33.1	24.2	70.6	29.4
	비농어가 (347)		24.1	32.4	25.6	82.1	17.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9)		28.5	40.8	28.0	97.3	2.7
	40대 (90)		22.8	26.5	20.5	69.9	30.1
	50대 (132)		15.1	36.7	26.7	78.5	21.5
	60대 (77)		22.5	26.9	25.3	74.7	25.3
	70대 이상 (102)		17.5	29.1	24.5	71.1	28.9
응답자 성	남 (187)		13.8	31.7	34.7	80.2	19.8
	여 (313)		24.9	33.2	19.5	77.6	22.4
보유 교통수단	있음 (442)		21.6	31.8	25.1	78.5	21.5
	없음 (58)		14.5	38.8	25.9	79.2	20.8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구급차 (175)		20.8	29.1	23.1	73.1	26.9
	개인용 차량 (290)		21.7	31.0	27.4	80.1	19.9
	택시 (34)		11.7	65.4	17.4	94.5	5.5
	기타 (1)		42.5			42.5	57.5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 추이

- 2016년 대비 '10분 이내' 비율이 감소함(-6.3%p)

| 표 1203 - (7) |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 추이

단위 : %(명)

구분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30분 이내(합)	1시간 이내
2021년 (500)	20.8	32.6	25.2	78.6	21.4
2016년 (742)	27.1	31.6	23.8	82.5	17.5



응급실까지의 주된 교통수단은 '개인용 차량'(58.2%), '구급차' 이용률은 34.9%

응급실 이동 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다?

[응급실 이용층(n=505) 기준]

‘개인용 차량’(58.2%)이 응급실 이동 시 주된 교통수단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구급차’(34.9%) 이용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택시’를 이용하여 응급실까지 이동한 층은 6.7%였다.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 여성층, 교통수단 보유층에서는 ‘개인용 차량’ 이용률이 높은 반면,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통수단 미보유층에서 ‘구급차’ 이용률이 높았다.

| 표 1203 - (8) |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구급차	개인용 차량	택시	기타
합계 (505)			34.9	58.2	6.7	0.2
읍/면	읍	(244)	35.2	57.5	7.0	0.3
	면	(260)	34.6	58.9	6.5	0.0
영농 여부	농어가	(153)	44.6	48.4	6.7	0.3
	비농어가	(351)	30.6	62.5	6.7	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9)	24.0	71.6	4.3	
	40대	(90)	28.1	64.2	7.7	
	50대	(135)	31.2	58.6	10.2	
	60대	(78)	32.5	62.9	4.5	
	70대 이상	(103)	58.1	35.9	5.3	0.8
응답자 성	남	(188)	33.8	52.7	13.5	0.0
	여	(317)	35.5	61.5	2.7	0.2
보유 교통수단	있음	(446)	31.4	61.9	6.7	0.1
	없음	(59)	61.5	30.4	7.3	0.8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 추이

- 2016년 이후 '구급차'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개인용 차량'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표 1203 - (9) |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 추이

단위 : %(명)

구분	구급차	개인용 차량	택시	걸어서	기타
2021년 (505)	34.9	58.2	6.7		0.2
2018년 (350)	26.2	61.0	12.0	0.5	0.4
2016년 (742)	25.1	66.3	7.1	1.0	0.5
2013년 (399)	26.6	62.9	7.0	2.4	1.1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구급차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수준'(평균 80.7점)의 평가

구급차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급차 이용층(n=176) 기준]

구급차 이용층(n=176)의 구급차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다소 만족'(47.4%), '매우 만족'(38.2%) 등 [만족하는 편(합)]이라는 의견이 85.6%로 '매우 만족하는 수준'(평균 80.7점)의 평가를 보였다.

면지역, 농어가, 남성층에서 만족도가 높은 반면, 4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 1203 - (10) |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하는 편(합)	보통	다소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합)
합계			(176)	80.7점	38.2	47.4	85.6	13.4	1.0
읍/면	읍	(86)	76.5점	27.4	51.5	78.9	20.6	0.5	0.5
	면	(90)	84.8점	48.5	43.6	92.1	6.4	1.5	1.5
영농 여부	농어가	(68)	83.0점	40.2	53.1	93.3	5.3	1.4	1.4
	비농어가	(108)	79.2점	36.9	43.9	80.8	18.5	0.7	0.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4)	83.7점	34.8	65.2	100.0			
	40대	(25)	68.7점	29.8	15.2	44.9	55.1		
	50대	(42)	82.1점	36.1	56.1	92.2	7.8		
	60대	(25)	83.4점	48.1	39.0	87.1	11.1	1.8	1.8
	70대 이상	(60)	82.5점	40.5	51.4	91.9	5.9	2.2	2.2
응답자 성	남	(63)	82.7점	43.9	44.6	88.5	10.1	1.5	1.5
	여	(112)	79.6점	35.1	49.0	84.0	15.2	0.8	0.8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2016년 대비 만족도가 증가함(평균 +2.9점)

| 표 1203 - (11) |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합)
2021년 (176)	80.7점	38.2	47.4	85.6	13.4	1.0		1.0
2016년 (186)	77.8점	29.3	55.0	84.3	13.8	1.3	0.5	1.9

1204 > 질병치료 시 어려움

귀댁에 환자가 생길 경우, 그 환자의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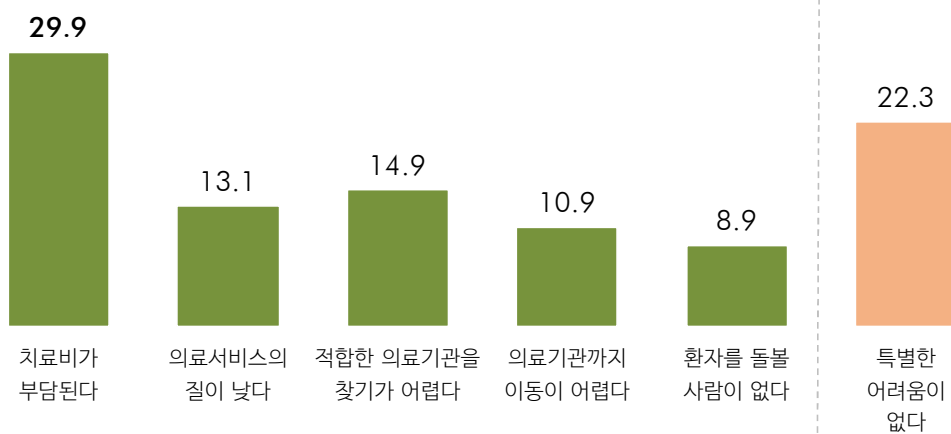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3,991)]

▶ '치료비 부담'(29.9%)이 주된 어려움

환자의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치료비가 부담된다'(29.9%)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14.9%),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13.1%),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10.9%),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8.9%) 순이었으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층은 22.3%였다.

| 그림 1204 | 질병치료 시 어려움

단위 : %



면지역, 6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65세 이상 1인 가구, 선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치료비가 부담된다’ 비율이 높은 반면, 보건의료비 지출이 없는 층에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 표 1204 - (1) | 질병치료 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치료비가 부담된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합계 (3,991)		29.9	13.1	14.9	10.9	8.9	22.3
읍/면	읍 (1,919)	26.2	15.5	19.3	6.1	7.0	26.0
	면 (2,072)	33.4	10.8	10.8	15.3	10.7	18.9
영농 여부	농어가 (1,167)	30.6	14.2	11.1	16.6	6.1	21.5
	비농어가 (2,824)	29.7	12.6	16.4	8.5	10.1	22.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16.4	9.7	26.0	4.2	6.4	37.3
	40대 (728)	26.5	19.4	15.3	9.1	6.1	23.6
	50대 (840)	25.3	21.6	19.0	6.1	5.9	22.1
	60대 (828)	36.2	11.8	11.0	9.8	9.8	21.4
	70대 이상 (927)	41.0	4.0	6.3	22.3	14.9	11.5
응답자 성	남 (1,711)	23.7	15.5	13.8	8.5	10.1	28.4
	여 (2,280)	34.6	11.3	15.7	12.6	8.0	17.8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416)	41.7	8.7	10.0	18.3	7.6	13.7
	없음 (3,575)	28.6	13.6	15.4	10.0	9.1	23.3
가족 형태	65세 미만 1인 가구 (508)	25.9	10.7	9.4	5.1	16.6	32.2
	65세 이상 1인 가구 (727)	37.6	4.6	5.2	22.7	17.8	12.1
	2인 이상 가구 (2,757)	28.7	15.8	18.4	8.8	5.2	23.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87)	26.3	16.0	16.8	7.7	8.6	24.6
	선주민 (1,404)	36.7	7.8	11.3	16.6	9.5	18.1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25.3	24.4	10.5	8.1	4.3	27.4
	비의향층 (3,575)	30.5	11.8	15.3	11.2	9.4	21.8
보건 의료비	없음 (221)	20.8	4.2	8.8	3.8	8.8	53.7
	10만원 미만 (1,285)	30.9	12.1	11.4	10.5	9.0	26.1
	10-30만원 미만 (1,987)	30.6	13.8	15.1	13.0	9.7	17.9
	30만원 이상 (492)	28.9	16.9	26.0	6.2	5.6	16.4

질병치료 시 어려움 - 추이

- 2016년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치료비가 부담된다'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18년 대비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비율이 증가함(+4.1%p)

| 표 1204 - (2) | **질병치료 시 어려움 - 추이**

단위 : %(명)

구분	치료비가 부담된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2021년 (3,991)	29.9	13.1	14.9	10.9	8.9	22.3
2018년 (2,765)	32.0	10.7	10.8	13.4	12.7	20.4
2016년 (3,952)	32.4	8.8	16.5	11.8	5.9	24.6
2013년 (2,739)	44.9	9.1	8.4	10.4	5.6	20.7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놓여준 가구 기준 수치임

* 2013년 '기타'(0.9%)는 제시하지 않음

1205 >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읍/면)에서 평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꼈던 진료과목이 있습니까?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진료과목을 우선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3,987)/ 중복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 가장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과목은 '내과'(16.5%), '정형외과'(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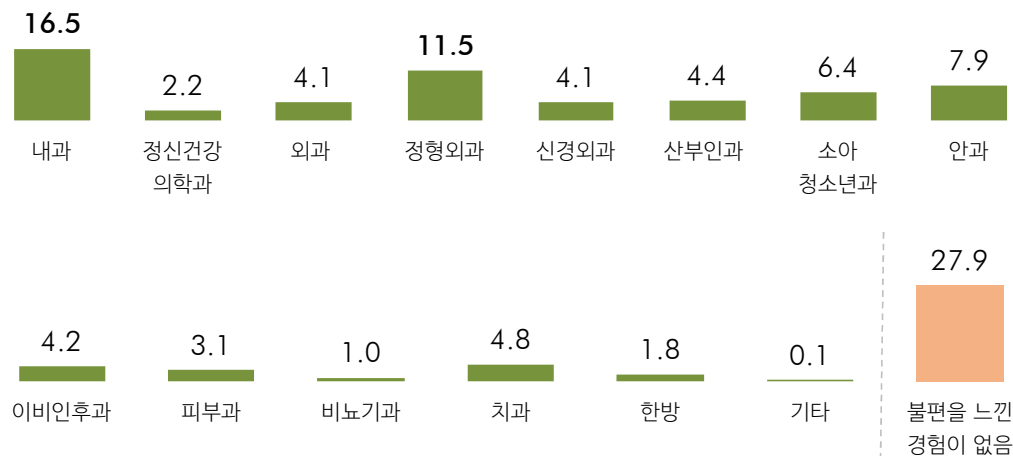
평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꼈던 진료과목으로 '내과'(16.5%)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정형외과'(11.5%)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과'(7.9%), '소아청소년과'(6.4%), '치과'(4.8%), '산부인과'(4.4%), '이비인후과'(4.2%), '외과', '신경외과'(각 4.1%), '피부과'(3.1%), '정신건강의학과'(2.2%), '한방'(1.8%), '비뇨기과'(1.0%) 순이었다.

한편, 평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층은 27.9%였다.

면지역, 60대 연령층에서 '내과' 비율이 높았으며,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정형외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에서 '소아청소년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 1205 |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단위 : %



| 표 1205 - (1) |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단위 : %(명)

구분		내과	정신건강 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안과
합계 (3,987)		16.5	2.2	4.1	11.5	4.1	4.4	6.4	7.9
읍/면	읍 (1,920)	13.9	1.8	4.3	8.7	3.4	5.2	8.7	9.0
	면 (2,067)	18.8	2.6	4.0	14.2	4.7	3.7	4.3	6.8
영농 여부	농어가 (1,164)	16.8	2.4	3.6	15.1	3.9	3.6	1.8	6.3
	비농어가 (2,822)	16.4	2.1	4.3	10.1	4.1	4.7	8.3	8.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13.0		2.9	8.6	0.2	5.6	18.8	7.1
	40대 (734)	11.7	1.8	4.6	8.9	2.9	8.6	12.5	7.8
	50대 (834)	17.0	3.6	5.2	9.7	5.4	5.0	2.8	8.7
	60대 (825)	21.8	2.2	4.2	12.8	4.6	2.3	1.4	8.0
	70대 이상 (925)	17.7	2.9	3.5	16.3	6.2	1.5	0.1	7.6
응답자 성	남 (1,708)	16.2	1.8	4.3	12.0	4.5	3.2	4.9	7.9
	여 (2,279)	16.7	2.5	4.0	11.2	3.7	5.3	7.5	7.9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86)	16.0	1.9	4.5	9.7	4.1	5.6	7.8	8.1
	선주민 (1,401)	17.5	2.7	3.4	15.0	4.0	2.1	3.8	7.4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14.3	2.8	4.6	7.4	2.3	9.7	10.6	6.6
	비의향층 (3,571)	16.8	2.2	4.0	12.0	4.3	3.8	5.9	8.0
구분		이비 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한방	기타	불편을 느낀 경험이 없음	
합계 (3,987)		4.2	3.1	1.0	4.8	1.8	0.1	27.9	
읍/면	읍 (1,920)	4.5	3.9	1.3	5.1	1.2	0.1	29.0	
	면 (2,067)	3.9	2.4	0.8	4.5	2.3	0.2	27.0	
영농 여부	농어가 (1,164)	4.0	1.8	1.8	5.7	1.9	0.3	30.9	
	비농어가 (2,822)	4.2	3.6	0.7	4.4	1.7	0.1	26.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5.8	4.8		6.3			26.9	
	40대 (734)	5.0	4.2	1.3	4.5	0.5	0.4	25.4	
	50대 (834)	3.0	3.2	0.9	3.8	0.7	0.2	30.8	
	60대 (825)	3.9	2.2	1.4	4.3	2.3	0.1	28.4	
	70대 이상 (925)	3.6	1.6	1.2	5.3	4.5	0.1	27.8	
응답자 성	남 (1,708)	3.7	3.2	1.4	4.9	0.8	0.3	30.9	
	여 (2,279)	4.5	3.0	0.7	4.7	2.4	0.1	25.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86)	4.1	3.6	0.9	4.8	1.1	0.2	27.6	
	선주민 (1,401)	4.2	2.1	1.2	4.8	3.0	0.1	28.7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3.9	6.4	0.8	3.7	0.8	0.4	25.7	
	비의향층 (3,571)	4.2	2.7	1.0	4.9	1.9	0.1	28.2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추이

○ 2016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 표 1205 - (2) | 필요 보건의료서비스 과목 - 추이

단위 : %(명)

구분	내과	정신건강 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안과
2021년 (3,987)	16.5	2.2	4.1	11.5	4.1	4.4	6.4	7.9
2016년 (3,952)	17.4	0.7	3.8	9.0		4.4	9.1	10.1
구분	이비 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한방	기타	불편을 느끼 경험이 없음	
2021년 (3,987)	4.2	3.1	1.0	4.8	1.8	0.1	27.9	
2016년 (3,952)	6.4	5.0		4.9	2.5	0.5	26.2	

* 2016년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과", '소아청소년과'는 "소아과" 항목의 수치임

* 2021년 '신경외과', '비뇨기과' 항목이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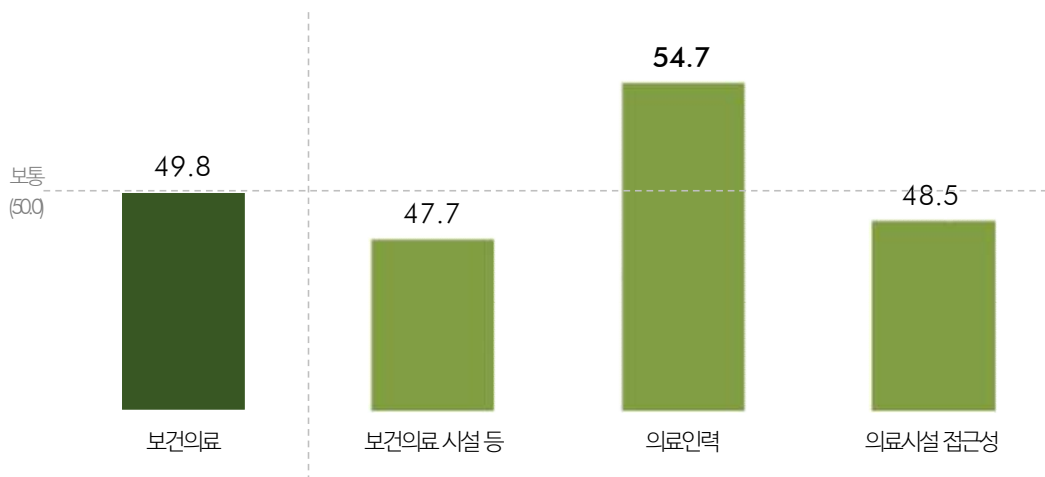
1206>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의료인력'(평균 54.7점), '의료시설 접근성'(평균 48.5점), '보건의료 시설 등'(평균 47.7점) 등 보건의료 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의 평가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등 농어촌의 '보건의료' 만족도가 평균 49.8점인 가운데, 거주하는 지역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54.7점으로 보건의료 여건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8.5점, 보건의료 시설이나 장비 여건 등 '보건의료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7.7점으로 보건의료 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보였다.

| 그림 1206 - (1) |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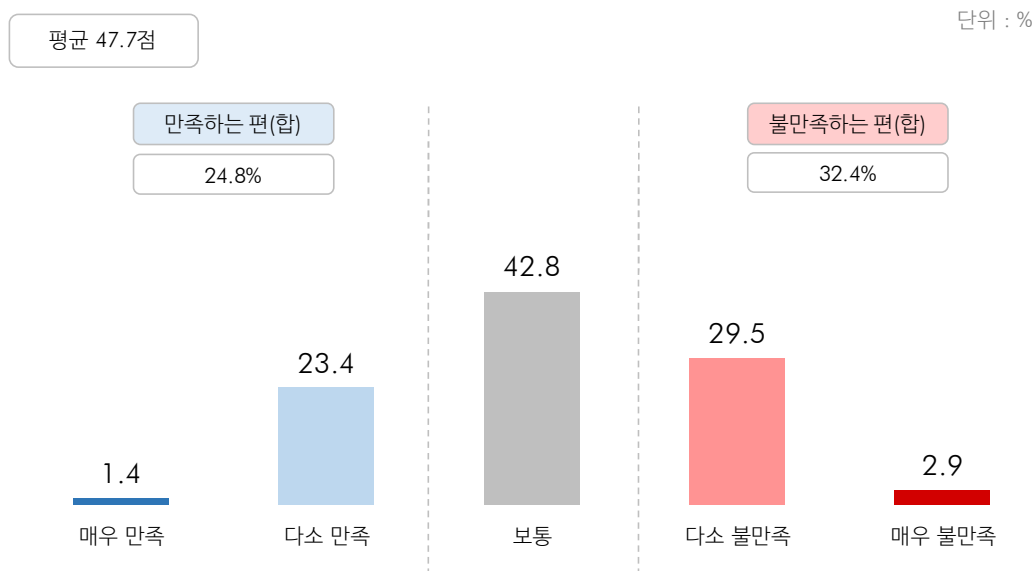
보건의료 시설이나 장비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7.7점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읍/면)의 보건의료시설이나 장비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3,989)]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의료 시설이나 장비 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47.7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다소 불만족’(29.5%) 등 [불만족하는 편(합)](32.4%) 비율이 ‘다소 만족’(23.4%) 등 [만족하는 편(합)](24.8%)에 비해 높았다.

| 그림 1206 - (2) | 보건의료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7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 공공의료기관 이용층에서 보건의료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표 1206 - (1) | 보건의료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합)
합계 (3,989)			47.7점	1.4	23.4	24.8	42.8	29.5	2.9	32.4
읍/면	읍	(1,926)	48.4점	1.5	23.6	25.1	43.9	29.0	2.0	31.1
	면	(2,064)	47.1점	1.3	23.2	24.5	41.9	30.0	3.6	33.6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47.1점	0.6	21.9	22.5	45.3	29.9	2.3	32.2
	비농어가	(2,824)	48.0점	1.7	24.0	25.7	41.8	29.4	3.1	32.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4)	48.1점	5.4	22.2	27.6	36.8	30.3	5.3	35.5
	40대	(734)	46.3점	0.1	20.2	20.3	48.7	27.1	4.0	31.1
	50대	(836)	46.1점	0.3	18.4	18.7	49.0	29.8	2.5	32.3
	60대	(829)	45.6점	0.2	21.9	22.1	39.7	36.5	1.7	38.2
	70대 이상	(926)	52.0점	1.6	32.7	34.2	39.8	24.4	1.6	26.0
응답자 성	남	(1,708)	48.3점	2.1	23.2	25.3	43.2	29.0	2.6	31.5
	여	(2,281)	47.3점	0.8	23.6	24.4	42.6	30.0	3.1	33.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83)	46.4점	1.6	19.5	21.1	44.9	30.9	3.1	34.0
	선주민	(1,406)	50.1점	0.9	30.6	31.5	39.0	27.0	2.4	29.5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3)	43.2점	0.0	15.1	15.2	47.3	32.8	4.7	37.5
	비의향층	(3,578)	48.2점	1.5	24.4	25.9	42.2	29.2	2.6	31.9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 의료기관	(125)	54.9점	0.5	38.2	38.7	42.1	19.1	0.1	19.2
	병(의)원 (한방 포함)	(3,378)	48.3점	1.1	24.2	25.3	43.9	28.4	2.5	30.9
	종합병원	(470)	41.9점	3.7	14.6	18.3	33.8	41.4	6.4	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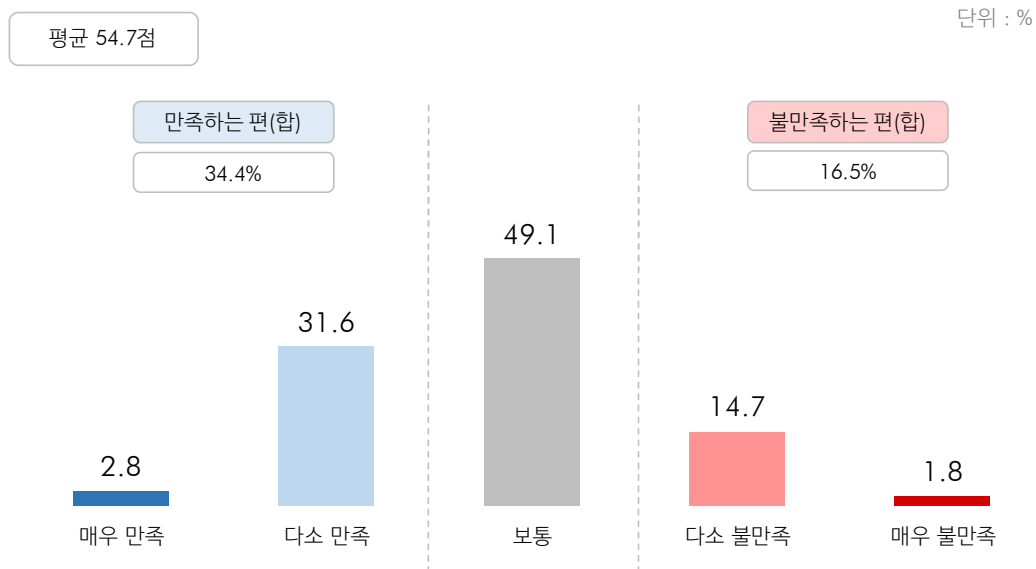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4.7점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읍/면)의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3,989)]

거주하는 지역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54.7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다소 만족’(31.6%) 등 [만족하는 편(합)](34.4%) 비율이 ‘다소 불만족’(14.7%) 등 [불만족하는 편(합)](16.5%)에 비해 높았다.

| 그림 1206 - (3) |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보건의료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7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 공공의료기관 이용층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표 1206 - (2) |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합)
합계 (3,989)			54.7점	2.8	31.6	34.4	49.1	14.7	1.8	16.5
읍/면	읍	(1,926)	55.5점	2.8	31.7	34.5	51.3	13.0	1.2	14.2
	면	(2,064)	54.1점	2.9	31.5	34.3	47.1	16.2	2.4	18.6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53.5점	2.5	29.5	32.0	48.8	17.9	1.3	19.3
	비농어가	(2,824)	55.3점	3.0	32.4	35.4	49.2	13.3	2.0	15.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4)	54.1점	6.2	23.8	30.0	53.2	13.9	2.9	16.8
	40대	(734)	52.7점	1.0	27.7	28.7	55.4	12.6	3.2	15.8
	50대	(836)	53.0점	1.1	29.7	30.8	50.9	16.6	1.7	18.3
	60대	(829)	53.3점	1.4	30.7	32.1	48.2	18.9	0.8	19.7
	70대 이상	(926)	59.8점	4.7	42.8	47.5	40.3	11.2	1.0	12.2
응답자 성	남	(1,708)	55.0점	3.2	31.9	35.1	48.7	14.2	2.0	16.2
	여	(2,281)	54.5점	2.6	31.3	33.9	49.4	15.0	1.7	16.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83)	53.3점	2.2	29.0	31.2	50.9	15.6	2.3	17.9
	선주민	(1,406)	57.4점	4.0	36.4	40.4	45.8	12.9	0.9	13.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3)	47.1점	0.2	17.5	17.8	57.3	20.3	4.6	24.9
	비의향층	(3,578)	55.6점	3.1	33.2	36.3	48.2	14.0	1.5	15.5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 의료기관	(125)	58.6점	5.7	38.9	44.6	40.2	14.6	0.6	15.2
	병(의)원 (한방 포함)	(3,378)	55.2점	2.6	32.4	34.9	49.9	13.9	1.3	15.2
	종합병원	(470)	50.2점	4.2	25.1	29.3	44.0	20.8	5.9	26.7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2016년 대비 [만족하는 편(합)](+5.5%p) 비율이 증가한 반면, [불만족하는 편(합)](-3.6%p) 비율은 감소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평균 +2.8점)을 보임

| 표 1206 - (3) |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합)
2021년 (3,989)	54.7점	2.8	31.6	34.4	49.1	14.7	1.8	16.5
2016년 (3,946)	51.9점	2.1	26.8	28.9	51.0	16.8	3.3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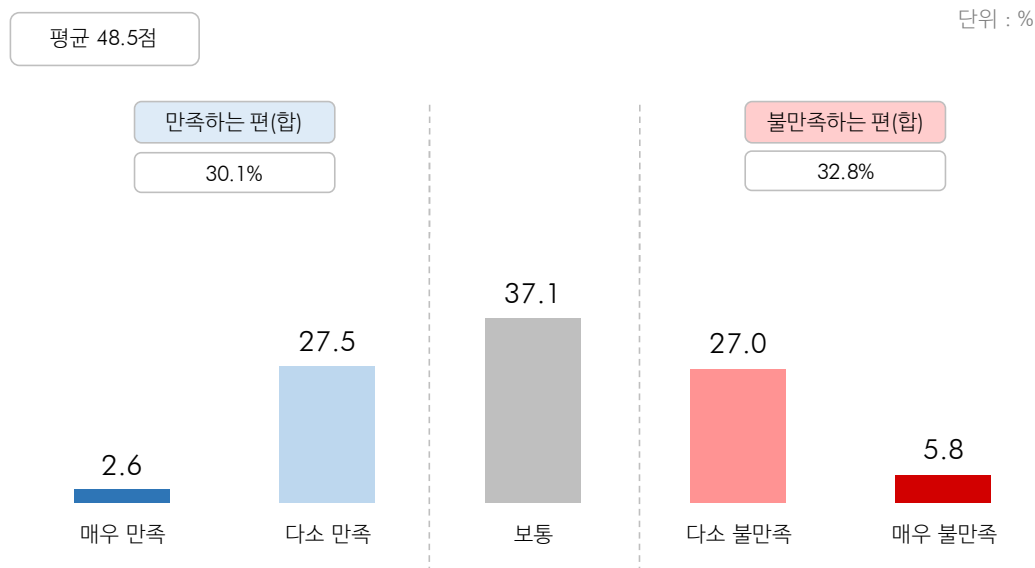
전반적인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8.5점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읍/면)의 전반적인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95)]

거주하는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해 ‘다소 불만족’(27.0%) 등 [불만족하는 편(합)] 비율이 32.8%로 ‘다소 만족’(27.5%) 등 [만족하는 편(합)](30.1%)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평균 48.5점)의 평가를 보였다.

| 그림 1206 - (4) |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읍지역, 비농어가,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종합병원 이용층에서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 표 1206 - (4) |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합)
합계 (3,995)			48.5점	2.6	27.5	30.1	37.1	27.0	5.8	32.8
읍/면	읍	(1,926)	51.3점	3.2	32.9	36.1	35.0	23.6	5.3	28.9
	면	(2,069)	45.9점	1.9	22.5	24.4	39.1	30.2	6.2	36.4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45.8점	2.5	22.4	24.9	37.0	32.1	6.1	38.2
	비농어가	(2,829)	49.6점	2.6	29.6	32.2	37.2	25.0	5.6	30.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49.0점	4.8	25.7	30.5	35.1	29.4	5.0	34.4
	40대	(734)	50.3점	1.8	33.0	34.8	36.4	22.5	6.3	28.8
	50대	(836)	48.4점	2.6	23.9	26.5	42.5	26.4	4.6	31.0
	60대	(829)	47.2점	1.5	26.5	28.0	36.8	29.5	5.7	35.2
	70대 이상	(926)	48.0점	2.5	28.6	31.1	34.6	27.4	7.0	34.3
응답자 성	남	(1,713)	48.4점	3.4	24.9	28.3	38.7	28.0	5.0	33.0
	여	(2,281)	48.6점	1.9	29.4	31.4	36.0	26.3	6.3	32.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88)	48.3점	2.2	26.9	29.1	38.9	25.9	6.1	32.0
	선주민	(1,406)	48.9점	3.2	28.5	31.8	33.9	29.1	5.2	34.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43.3점	0.5	19.9	20.4	36.8	37.6	5.1	42.7
	비의향층	(3,578)	49.1점	2.8	28.4	31.1	37.1	25.9	5.8	31.7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 의료기관	(125)	50.2점	3.6	29.5	33.1	32.5	32.8	1.5	34.3
	병(의)원 (한방 포함)	(3,378)	49.2점	2.2	28.3	30.5	38.5	26.4	4.7	31.0
	종합병원	(470)	42.4점	4.9	21.2	26.1	27.6	31.3	15.0	46.3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평균 +2.1점)

| 표 1206 - (5) |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합)
2021년 (3,995)	48.5점	2.6	27.5	30.1	37.1	27.0	5.8	32.8
2016년 (3,950)	46.4점	3.0	20.0	22.9	43.8	26.4	6.9	33.3

1300〉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 1301>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 1302> 공적연금 가입실태
- 1303> 기타보험 가입현황
- 1304>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 1305>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 1306>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 1307>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 1308>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 1309> 정신건강 인식
- 1310>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 1311>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1312>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1313> 복지시설 이용실태
- 1314>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1315>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1301 >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 ▶ '직장가입자'(40.0%), '지역가입자'(32.7%)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층은 95.7%
- ▶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층이 절반 이상(56.6%)

 국민건강보험 가입층은 95.7%, 가입층 중 '직장가입자'는 40.0%

귀댁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96)]

'직장가입자'(40.0%), '지역가입자'(32.7%),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음)'(23.0%)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 95.7%로 나타난 가운데, 외래와 입원 진료 시 전액이 지원되는 '의료급여(1종)'(2.3%), 외래 진료 시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2종)'(2.0%) 등 의료급여 수급률은 4.3%였다.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 더욱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 50대 이하 연령층, 남성층에서 '직장가입자'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301 - (1) |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구분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수급
합계 (3,996)		40.0	32.7	23.0	95.7	2.3	2.0	4.3
읍/면	읍 (1,926)	51.6	32.3	12.9	96.9	1.7	1.4	3.1
	면 (2,069)	29.2	33.1	32.3	94.6	2.8	2.6	5.4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19.6	42.5	35.6	97.8	0.9	1.3	2.2
	비농어가 (2,830)	48.4	28.7	17.8	94.8	2.9	2.3	5.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66.8	33.1		99.9	0.1		0.1
	40대 (734)	69.8	24.5	2.4	96.7	1.2	2.1	3.3
	50대 (836)	50.6	38.0	9.9	98.5	0.6	0.9	1.5
	60대 (829)	16.8	47.0	28.7	92.5	2.8	4.7	7.5
	70대 이상 (927)	8.2	21.4	62.6	92.2	5.7	2.1	7.8
응답자 성	남 (1,714)	43.4	37.9	15.8	97.1	1.2	1.7	2.9
	여 (2,282)	37.4	28.9	28.4	94.6	3.1	2.2	5.4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 추이

-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높은 가입률을 보임

| 그림 1301 |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 추이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부담됨(합)](56.6%) > [부담되지 않음(합)](12.8%)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국민건강보험 가입층(피부양자 제외)](n=2,905)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5.1%(n=2,762)]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부담되는 편’(39.5%), ‘매우 부담됨’(17.1%) 등 부담된다는 의견이 56.6%로, ‘부담되지 않는 편’(11.5%) 등 [부담되지 않음(합)](12.8%)에 비해 우세하였다.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 보건의료비 10만원 이상 지출층, 지역가입자층에서 [부담됨(합)] 비율이 높았다.

| 표 1301 - (2)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부담됨(합)	보통	부담되지 않는 편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합)
합계 (2,762)			17.1	39.5	56.6	30.6	11.5	1.2	12.8
읍/면	읍	(1,532)	13.5	42.3	55.8	33.8	9.3	1.2	10.5
	면	(1,230)	21.7	35.9	57.6	26.7	14.3	1.4	15.7
영농 여부	농어가	(683)	18.6	42.1	60.8	24.9	13.1	1.2	14.3
	비농어가	(2,078)	16.6	38.6	55.2	32.5	11.0	1.3	12.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0)	12.4	40.8	53.2	35.5	10.5	0.8	11.3
	40대	(681)	14.2	39.2	53.3	33.2	12.4	1.1	13.4
	50대	(729)	19.4	34.5	53.9	32.8	11.8	1.6	13.3
	60대	(490)	22.2	43.5	65.7	21.3	11.9	1.1	13.0
	70대 이상	(201)	21.7	44.7	66.5	20.8	10.4	2.4	12.7
응답자 성	남	(1,338)	16.4	39.0	55.3	32.8	10.8	1.1	11.9
	여	(1,424)	17.8	40.0	57.7	28.6	12.2	1.4	13.6
보건 의료비	없음	(195)	16.8	37.8	54.6	35.3	7.1	3.0	10.1
	10만원 미만	(952)	16.9	32.4	49.3	32.6	17.6	0.5	18.1
	10-30만원 미만	(1,228)	15.9	44.7	60.6	29.1	8.6	1.7	10.3
	30만원 이상	(385)	21.5	41.2	62.7	28.5	8.0	0.8	8.8
가입 유형	직장가입자	(1,513)	11.4	36.7	48.1	38.3	12.6	1.0	13.6
	지역가입자	(1,248)	24.0	42.8	66.9	21.3	10.3	1.5	11.8

* ‘분가한 자녀가 납부하여 잘 모름’을 제외한 결과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 추이

-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표 1301 - (3)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 되는 편	부담됨 (합)	보통	부담되지 않는 편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 (합)
2021년 (2,762)	17.1	39.5	56.6	30.6	11.5	1.2	12.8
2016년 (2,870)	18.3	36.6	54.9	29.4	12.9	2.7	15.6
2013년 (2,088)	13.5	39.1	52.6	38.3	6.7	2.3	9.1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분가한 자녀가 납부하여 잘 모름'을 제외한 결과임

1302> 공적연금 가입실태

- ▶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가입률(71.8%) 및 수급률(30.6%)이 가장 높음
- ▶ 납부하는 공적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총이 51.1%
- ▶ 국민연금 미가입 주된 이유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62.1%)



'국민연금' 가입률은 71.8%

귀택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하신 적이 있습니까?(현재 수급 중인 경우 포함)
가입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가구원 중 1명 이상 가입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중복응답 : 공적연금 유형별 각 100.0%]

전체 가구 기준, 71.8%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가입률은 3.4%였으며, '군인연금'(0.4%), '사학연금'(0.3%) 가입률은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읍지역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반면, 면지역에서 '미가입' 비율이 높았다.

| 표 1302 - (1) | 공적연금 가입현황(전체 가구)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합계 (3,999)		71.8	3.4	0.3	0.4	25.5
읍/면	읍 (1,926)	76.5	4.5	0.3	0.1	20.8
	면 (2,073)	67.4	2.3	0.2	0.7	29.9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69.7	2.7	0.2	0.3	27.5
	비농어가 (2,830)	72.7	3.7	0.3	0.5	24.7

| 표 1302 - (2) | 공적연금 가입현황(만 19-6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합계 (2,654)		82.0	4.3	0.1	0.3	15.1
읍/면	읍 (1,491)	83.0	5.3	0.2	0.1	14.1
	면 (1,163)	80.8	3.0		0.7	16.4
영농 여부	농어가 (642)	79.2	2.9		0.1	18.5
	비농어가 (2,012)	82.9	4.7	0.1	0.4	14.0



공적연금 가입현황(전체 가구)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는 반면, '미가입'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표 1302 - (3) | 공적연금 가입현황(전체 가구) - 추이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2021년 (3,999)	71.8	3.4	0.3	0.4	25.5
2016년 (3,948)	64.5	6.2	0.2	1.2	30.2
2013년 (2,764)	62.2	3.9	0.9	0.8	33.7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납부하는 공적연금 보험료가 [부담됨(합)](51.1%) > [부담되지 않음(합)](10.3%)

공적연금으로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만 19-60세 사이 가구원이 1명이라도 있는 공적연금 가입층(n=2,25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89.1%(n=2,008)]

납부하는 공적연금 보험료가 ‘부담되는 편’(41.5%) 등 [부담됨(합)](51.1%)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부담되지 않는 편’(8.7%) 등 [부담되지 않음(합)](10.3%)에 비해 높게 나타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읍지역, 국민연금 가입층에서 [부담됨(합)] 비율이 높았다.

| 표 1302 - (4) |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부담됨 (합)	보통	부담되지 않는 편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 (합)
합계 (2,008)			9.6	41.5	51.1	38.6	8.7	1.5	10.3
읍/면	읍	(1,191)	7.9	45.0	53.0	40.0	5.6	1.5	7.0
	면	(817)	12.0	36.3	48.4	36.6	13.3	1.7	15.0
영농 여부	농어가	(415)	13.3	39.0	52.3	31.2	14.9	1.6	16.5
	비농어가	(1,593)	8.6	42.1	50.8	40.6	7.1	1.5	8.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82)	13.3	39.0	52.4	38.5	8.2	0.9	9.2
	40대	(646)	7.4	43.7	51.1	39.4	8.6	0.9	9.5
	50대	(623)	9.0	41.3	50.3	38.8	10.0	0.8	10.8
	60대	(133)	7.4	39.3	46.7	36.8	6.7	9.8	16.5
	70대 이상	(25)	5.3	58.1	63.4	27.9	1.5	7.2	8.7
응답자 성	남	(1,002)	10.1	40.4	50.4	38.8	9.1	1.7	10.8
	여	(1,006)	9.1	42.6	51.7	38.5	8.4	1.4	9.7
공적연금 가입 유형*	국민연금	(1,952)	9.8	42.4	52.2	37.5	8.7	1.5	10.2
	공무원연금	(100)	20.8	12.2	33.0	56.2	10.6	0.2	10.9

* 만 19-60세 사이 가구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에 한해(전체 가구원이 수급 중인 가구 제외)

* ‘공적연금 가입 유형’은 유형별로 배타성이 확보되지 않는 중복응답 값으로 유형별 합계가 전체 사례수보다 많으며, 해석 시 주의를 요함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 추이

- 2016년 대비 [부담되지 않음(합)] 비율이 감소함(-5.2%p)

| 표 1302 - (5) |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부담됨 (합)	보통	부담되지 않는 편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 (합)
2021년 (2,008)	9.6	41.5	51.1	38.6	8.7	1.5	10.3
2016년 (1,953)	14.4	36.4	50.9	33.6	13.1	2.4	15.5
2013년 (1,365)	12.9	39.5	52.4	39.3	7.6	0.6	8.2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현재 연금 수급 중이어서 해당 없음'을 제외한 결과임

* 2013, 2016년 : 18-60세 사이 가구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에 한해(전체 가구원이 수급 중인 가구 제외)

* 2021년 : 만 19-60세 사이 가구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에 한해(전체 가구원이 수급 중인 가구 제외)

'국민연금' 수급률은 30.6%

귀택에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공적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공적연금 가입층(n=2,979) 기준/ 중복응답 : 공적연금 유형별 각 100.0%]

공적연금 가입층(n=2,979)의 30.6%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률이 낮았던 '공무원연금'(1.1%), '군인연금'(0.6%), '사학연금'(0.3%)은 수급률 또한 낮게 나타났다.

| 그림 1302 - (1) | 공적연금 수급현황



면지역,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에서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층에서 '미수급' 비율이 높았다.

| 표 1302 - (6) | 공적연금 수급현황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수급	공무원연금 수급	사학연금 수급	군인연금 수급	미수급
합계 (2,979)			30.6	1.1	0.3	0.6	67.6
읍/면	읍	(1,526)	19.6	0.8	0.2	0.1	79.5
	면	(1,453)	42.1	1.3	0.3	1.1	55.1
영농 여부	농어가	(848)	51.4	1.6	0.3	0.4	45.8
	비농어가	(2,131)	22.3	0.8	0.2	0.6	76.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87)	3.2				96.8
	40대	(662)	5.0				95.0
	50대	(698)	9.4	0.9	0.0	1.2	88.0
	60대	(602)	66.0	2.0	0.9	0.4	31.4
	70대 이상	(431)	91.9	3.1	0.5	1.5	3.0
응답자 성	남	(1,371)	26.0	0.8	0.2	0.8	72.2
	여	(1,608)	34.4	1.3	0.3	0.4	63.6



공적연금 수급현황 - 추이

- '국민연금' 수급률이 증가(+4.2%p)한 반면, '미수급' 비율은 감소함(-3.6%p)

| 표 1302 - (7) | 공적연금 수급현황 - 추이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수급	공무원연금 수급	사학연금 수급	군인연금 수급	미수급
2021년 (2,979)	30.6	1.1	0.3	0.6	67.6
2016년 (2,757)	26.4	1.8	0.1	0.6	71.2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62.1%)가 국민연금 미가입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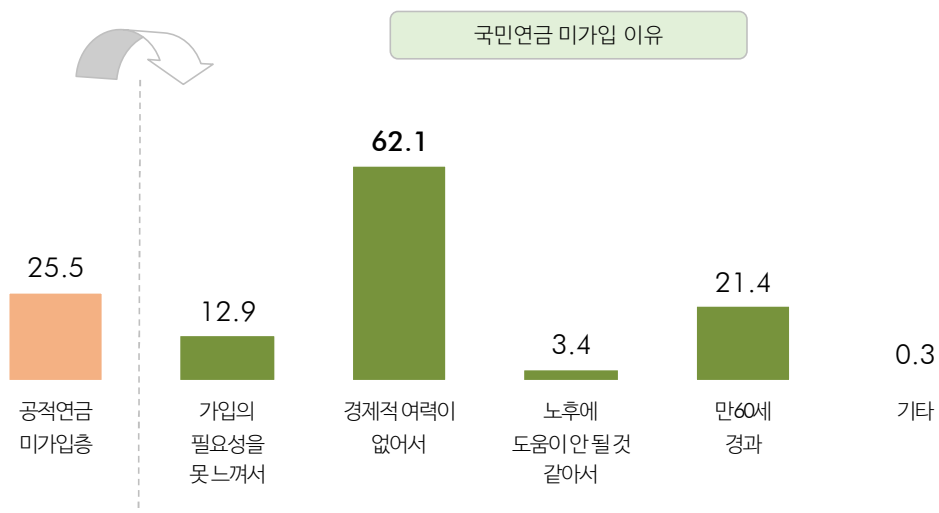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적연금 미가입층(n=1,02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1,018)]

공적연금 미가입층(n=1,018)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62.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만60세 경과'(21.4%),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12.9%), '노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3.4%) 순이었다.

| 그림 1302 - (2) |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단위 : %



읍지역, 농어가, 50대 연령층, 부채 보유층, 이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에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면지역, 비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 비저축층, 부채 미보유층, 선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만60세 경과’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40대 이하 연령층, 남성층, 저축층에서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302 - (8) |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단위 : %(명)

구분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노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만60세 경과	기타
합계 (1,018)		12.9	62.1	3.4	21.4	0.3
읍/면	읍 (399)	14.5	71.0	1.7	12.6	0.2
	면 (619)	11.8	56.3	4.5	27.1	0.3
영농 여부	농어가 (321)	10.2	66.1	4.7	18.9	0.1
	비농어가 (697)	14.1	60.2	2.8	22.6	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2)	30.2	69.8			
	40대 (72)	33.5	66.1	0.4		
	50대 (141)	7.7	77.9	10.9	3.4	
	60대 (227)	11.8	67.5	1.5	19.2	
	70대 이상 (495)	8.9	53.2	3.1	34.2	0.5
응답자 성	남 (345)	17.4	64.4	4.4	13.7	0.1
	여 (672)	10.6	60.9	2.9	25.4	0.3
저축 현황	저축층 (168)	18.4	65.2	8.9	7.5	
	비저축층 (850)	11.8	61.5	2.3	24.2	0.3
부채 현황	있음 (190)	14.1	71.3	5.9	8.8	
	없음 (828)	12.6	60.0	2.8	24.3	0.3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516)	15.3	64.2	3.0	17.4	0.2
	선주민 (502)	10.4	59.9	3.8	25.5	0.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71)	9.6	78.1	7.0	5.3	
	비의향층 (946)	13.1	60.9	3.1	22.6	0.3

1303> 기타보험 가입현황

이밖에 귀댁은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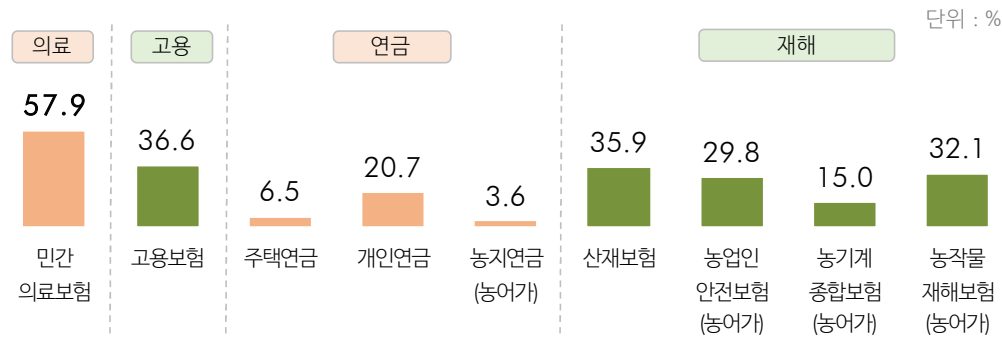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농업인 보험 : 농어가(n=1,169) 기준/ 중복응답 : 보험 유형별 각 100.0%]

▶ '민간의료보험'(57.9%) 가입률이 가장 높음

기타보험 중 '민간의료보험'(57.9%)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용보험'(36.6%), '산재보험'(35.9%), '개인연금'(20.7%), '주택연금'(6.5%) 순이었다.

한편, 농업인 보험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32.1%), '농업인안전보험'(29.8%), '농기계종합보험'(15.0%) 순이었으며, '농지연금'(3.6%)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그림 1303 | 기타보험 가입현황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민간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연금', '주택연금' 가입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면지역에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303 - (1) | 기타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구분		의료	고용	연금			재해			
		민간 의료 보험	고용 보험	주택 연금	개인 연금	농지 연금	산재 보험	농업인 안전 보험	농기계 종합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합계		57.9	36.6	6.5	20.7	3.6	35.9	29.8	15.0	32.1
읍/면	읍	63.9	45.8	9.3	26.8	3.1	44.8	29.8	10.6	31.7
	면	52.3	28.1	3.9	15.2	3.8	27.7	29.8	16.6	32.3
영농 여부	농어가	54.3	18.2	0.8	19.4	3.6	18.2	29.8	15.0	32.1
	비농어가	59.4	44.2	8.8	21.3		43.3			

 기타보험 가입현황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산재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6년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함(+5.9%p)

| 표 1303 - (2) | 기타보험 가입현황 - 추이

단위 : %(명)

구분	의료	고용	연금			재해			
	민간 의료 보험	고용 보험	주택 연금	개인 연금	농지 연금	산재 보험	농업인 안전 보험	농기계 종합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2021년	57.9	36.6	6.5	20.7	3.6	35.9	29.8	15.0	32.1
2018년	52.1			25.6	3.0		16.8	15.0	16.2
2016년	59.7	30.7	2.8	18.8	2.1	29.4	16.6	11.7	15.2
2013년	46.5			21.6	2.6	17.0	10.7	14.2	8.4

* '농지연금',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항목은 농어가에 한해 질문함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6년 '고용보험', '주택연금' 항목이 추가됨

1304>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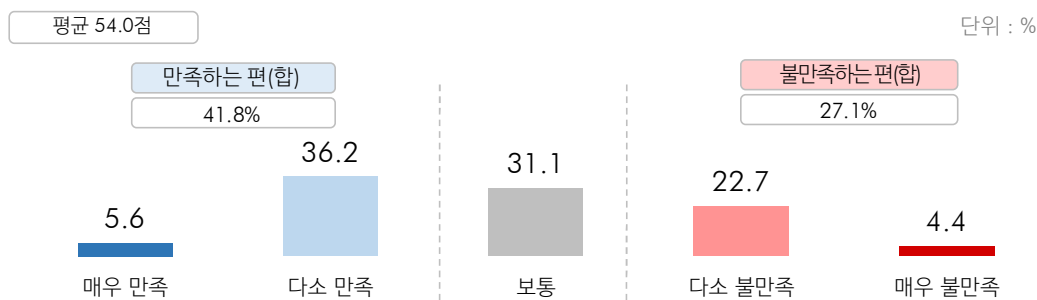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97)]

▶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54.0점)의 평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54.0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다소 만족'(36.2%) 등 [만족하는 편(합)](41.8%) 비율이 '다소 불만족'(22.7%) 등 [불만족하는 편(합)](27.1%)에 비해 높았다.

| 그림 1304 |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 남성층에서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 1304 - (1) |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하는 편(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합)
합계 (3,997)			54.0점	5.6	36.2	41.8	31.1	22.7	4.4	27.1
읍/면	읍 (1,925)		56.8점	6.3	39.7	46.0	32.0	18.8	3.2	22.0
	면 (2,072)		51.4점	5.0	32.9	37.9	30.3	26.3	5.5	31.8
영농 여부	농어가 (1,167)		51.4점	3.5	32.9	36.3	33.9	25.4	4.4	29.8
	비농어가 (2,830)		55.0점	6.5	37.5	44.0	30.0	21.5	4.5	26.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67.1점	15.2	43.9	59.2	34.7	6.1		6.1
	40대 (734)		59.5점	5.3	45.4	50.7	31.6	17.2	0.5	17.7
	50대 (840)		62.3점	7.9	48.7	56.6	29.5	12.3	1.6	13.9
	60대 (828)		51.0점	1.6	33.3	34.8	37.9	22.2	5.1	27.3
	70대 이상 (926)		35.3점	0.5	14.5	15.0	23.6	48.7	12.8	61.5
응답자 성	남 (1,715)		59.2점	8.6	39.5	48.1	33.8	16.0	2.1	18.1
	여 (2,282)		50.1점	3.4	33.7	37.0	29.1	27.7	6.2	33.9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 추이

-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표 1304 - (2) |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합)
2021년 (3,997)	54.0점	5.6	36.2	41.8	31.1	22.7	4.4	27.1
2016년 (3,952)	54.1점	6.6	32.8	39.4	36.6	18.4	5.6	24.0

1305>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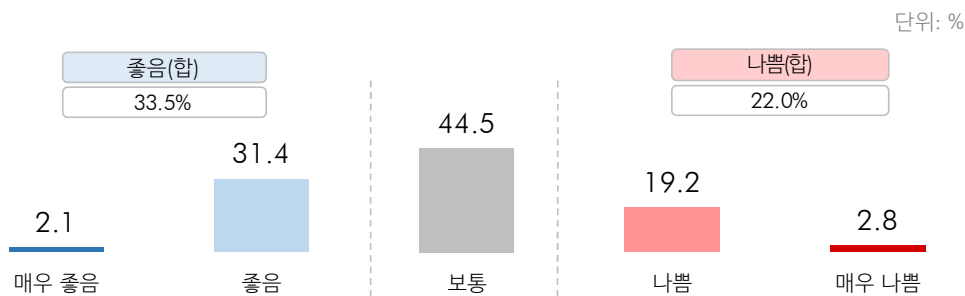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비슷한 연령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97)]

▶ 비슷한 연령대에 비해 본인의 건강이 [좋음(합)](33.5%) > [나쁨(합)](22.0%)

비슷한 연령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3.5%로 ‘나쁨’(19.2%) 등 [나쁨(합)](22.0%)에 비해 높았다.

| 그림 1305 |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읍지역, 비농어가, 50대 이하 연령층, 남성층에서 비슷한 연령대 대비 본인의 건강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 1305 - (1) |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단위: %(명)

구분			매우 좋음	좋음	좋음 (합)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나쁨 (합)
합계 (3,997)			2.1	31.4	33.5	44.5	19.2	2.8	22.0
읍/면	읍 (1,925)		1.4	35.9	37.3	43.5	17.1	2.2	19.3
	면 (2,072)		2.8	27.2	30.0	45.4	21.2	3.4	24.6
영농 여부	농어가 (1,167)		1.8	27.8	29.7	43.0	24.9	2.5	27.3
	비농어가 (2,830)		2.2	32.8	35.1	45.1	16.9	2.9	19.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5.4	43.3	48.7	46.8	4.5		4.5
	40대 (734)		1.9	38.3	40.2	43.4	16.0	0.4	16.4
	50대 (840)		2.1	41.0	43.1	43.4	12.1	1.5	13.6
	60대 (828)		1.1	25.4	26.5	50.9	19.3	3.2	22.6
	70대 이상 (926)		0.8	13.9	14.7	38.9	38.9	7.5	46.4
응답자 성	남 (1,715)		3.8	33.3	37.1	48.0	13.7	1.2	14.9
	여 (2,282)		0.9	29.9	30.8	41.8	23.4	4.0	27.4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 추이

- 2016년 대비 [좋음(합)] 비율이 증가함(+3.7%p)

| 표 1305 - (2) |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 추이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음	좋음	좋음 (합)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나쁨 (합)
2021년 (3,997)	2.1	31.4	33.5	44.5	19.2	2.8	22.0
2016년 (3,952)	4.0	25.8	29.8	49.6	16.7	3.9	20.6

1306>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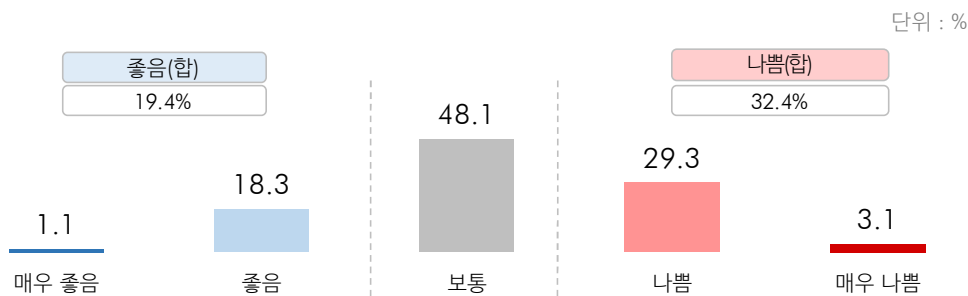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97)]

▶ 1년 전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층이 32.4%

본인의 건강상태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나쁨'(29.3%) 등 [나쁨(합)](32.4%) 비율이 [좋음(합)](19.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그림 1306 |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1년 전 대비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 표 1306 - (1) |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음	좋음	좋음 (합)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나쁨 (합)
합계 (3,997)			1.1	18.3	19.4	48.1	29.3	3.1	32.4
읍/면	읍 (1,925)		1.2	21.5	22.7	47.9	27.0	2.4	29.4
	면 (2,072)		1.1	15.3	16.4	48.3	31.5	3.8	35.2
영농 여부	농어가 (1,167)		1.0	15.5	16.5	45.6	34.9	3.1	37.9
	비농어가 (2,830)		1.2	19.5	20.7	49.1	27.1	3.1	30.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3.6	29.2	32.8	63.4	3.8		3.8
	40대 (734)		1.0	27.7	28.7	46.9	22.6	1.8	24.4
	50대 (840)		0.6	22.6	23.1	54.1	22.0	0.7	22.8
	60대 (828)		0.7	10.0	10.7	54.2	32.3	2.7	35.1
	70대 이상 (926)		0.4	6.5	7.0	27.1	57.0	8.9	66.0
응답자 성	남 (1,715)		2.0	17.7	19.8	57.3	21.4	1.6	23.0
	여 (2,282)		0.5	18.7	19.2	41.2	35.3	4.3	39.6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 추이

- 2016년 대비 [나쁨(합)] 비율이 증가함(+8.4%p)

| 표 1306 - (2) |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 추이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음	좋음	좋음 (합)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나쁨 (합)
2021년 (3,997)	1.1	18.3	19.4	48.1	29.3	3.1	32.4
2016년 (3,952)	2.0	15.4	17.4	58.7	17.9	6.1	24.0

1307 >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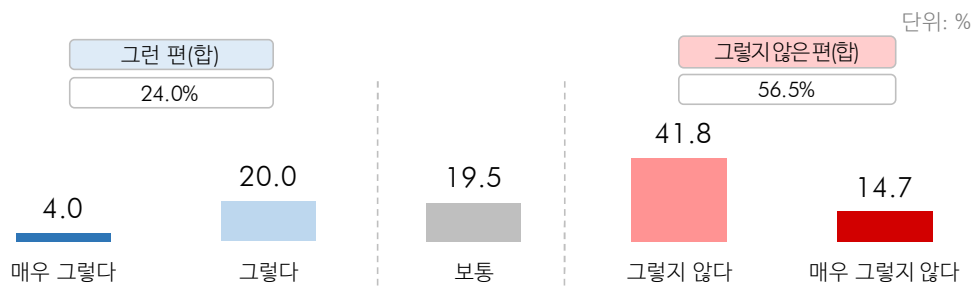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97)]

▶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응답한 층은 24.0%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응답한 층이 24.0%로, '그렇지 않다'(41.8%) 등[그렇지 않은 편(합)](56.5%)에 비해 낮았다.

| 그림 1307 |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층에서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표 1307 - (1) |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 (합)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합)
합계 (3,997)			4.0	20.0	24.0	19.5	41.8	14.7	56.5
읍/면	읍 (1,925)		3.4	16.7	20.1	17.8	46.4	15.7	62.1
	면 (2,072)		4.6	22.9	27.6	21.1	37.6	13.8	51.4
영농 여부	농어가 (1,167)		3.9	23.2	27.0	25.1	36.7	11.2	47.9
	비농어가 (2,830)		4.1	18.6	22.7	17.2	43.9	16.2	6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0.7	3.0	3.7	16.1	50.4	29.8	80.2
	40대 (734)		0.6	9.1	9.7	19.0	52.8	18.6	71.4
	50대 (840)		1.1	10.6	11.7	21.8	46.7	19.8	66.5
	60대 (828)		4.9	20.3	25.1	21.3	45.9	7.7	53.6
	70대 이상 (926)		10.9	49.1	60.0	18.7	18.9	2.4	21.2
응답자 성	남 (1,715)		2.3	14.0	16.3	23.4	42.3	18.0	60.3
	여 (2,282)		5.3	24.4	29.8	16.6	41.4	12.2	53.7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 추이

- 2016년 대비 [그렇지 않은 편(합)] 비율이 증가함(+5.3%p)

| 표 1307 - (2) |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 추이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 (합)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합)
2021년 (3,997)	4.0	20.0	24.0	19.5	41.8	14.7	56.5
2016년 (3,952)	6.1	14.3	20.4	28.3	33.2	18.1	51.2

1308 >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귀하께서는 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n=2,764)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2,755)]

▶ 동거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편(합)](47.1%) > [불만족하는 편(합)](17.4%)

동거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해 ‘다소 만족’(43.0%) 등 [만족하는 편(합)](47.1%)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다소 불만족’(12.3%) 등 [불만족하는 편(합)](17.4%)에 비해 높았다.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층에서 동거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표 1308 - (1) |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하는 편(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합)
합계 (2,755)			4.1	43.0	47.1	35.5	12.3	5.1	17.4
읍/면	읍	(1,420)	4.0	49.5	53.6	33.1	9.2	4.1	13.3
	면	(1,335)	4.2	36.0	40.2	37.9	15.7	6.2	21.9
영농 여부	농어가	(879)	3.4	32.4	35.8	38.7	20.0	5.5	25.5
	비농어가	(1,876)	4.4	48.0	52.4	33.9	8.7	4.9	13.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81)	5.8	60.1	65.9	33.9		0.2	0.2
	40대	(666)	4.6	49.6	54.3	32.1	8.7	4.9	13.6
	50대	(692)	4.7	45.5	50.2	37.4	9.4	3.0	12.4
	60대	(548)	2.3	33.0	35.3	39.5	19.3	5.9	25.2
	70대 이상	(367)	2.5	18.7	21.1	33.9	30.2	14.7	44.9
응답자 성	남	(1,284)	2.1	43.0	45.1	38.6	13.0	3.3	16.3
	여	(1,471)	5.8	43.0	48.8	32.7	11.7	6.7	18.4
총 가구원 수	2명	(1,282)	4.0	34.0	38.0	36.5	18.3	7.1	25.5
	3명 이상	(1,473)	4.2	50.8	55.0	34.5	7.1	3.3	10.4

* ‘동거가족이 없음’을 제외한 결과임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 추이

- 2016년 대비 [만족하는 편(합)] 비율이 증가함(+7.4%p)

| 표 1308 - (2) |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합)
2021년 (2,755)	4.1	43.0	47.1	35.5	12.3	5.1	17.4
2016년 (3,129)	3.5	36.1	39.7	40.7	13.9	5.8	19.7

* '동거가족이 없음'을 제외한 결과임

1309 > 정신건강 인식

다음에 제시하는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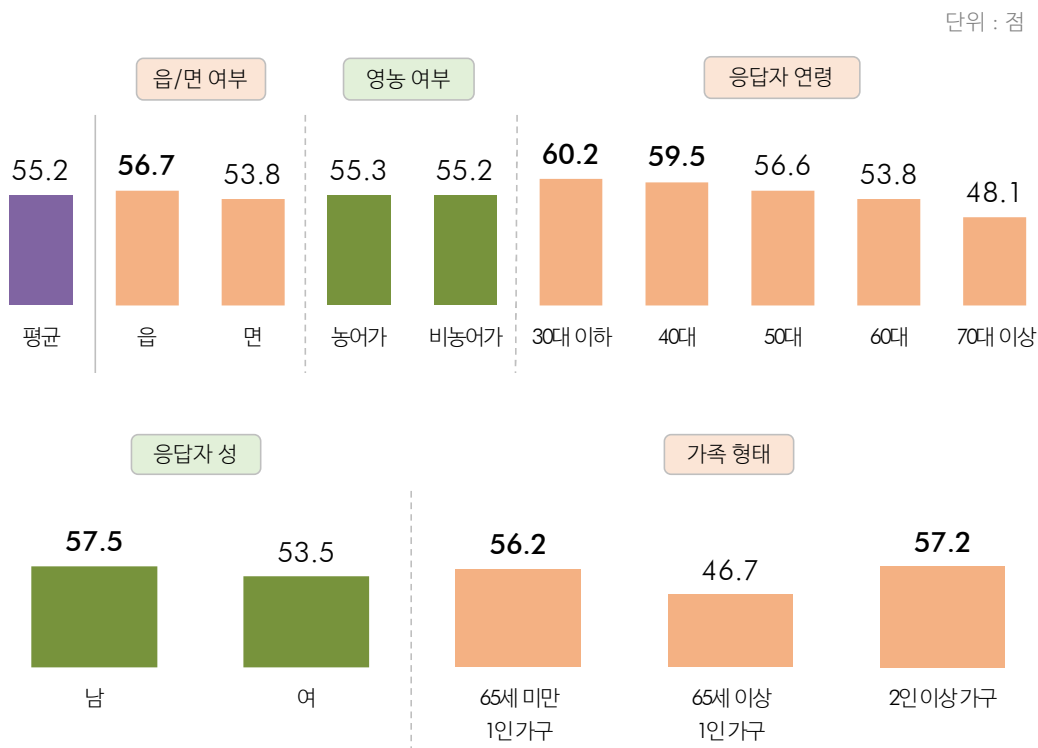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99) 기준/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 정신건강 인식 수준은 '보통 수준'(평균 55.2점)

총 20가지 진술문을 통해 정신건강 인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정신건강 인식 정도는 평균 55.2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계층별로는 읍지역,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층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정신건강 인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 그림 1309 | 정신건강 인식



| 표 1309 - (1) | 정신건강 인식

단위: 점

구분			평균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두려울 때가 있다*	나는 별 이유 없이 화내는 일이 있다*	나의 기억력은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뒤죽박죽일 때가 있다*
합계 (3,999)			55.2	56.4	63.4	67.0	53.3	61.0
읍/면	읍	(1,926)	56.7	58.7	66.1	67.6	54.5	62.0
	면	(2,073)	53.8	54.4	61.0	66.4	52.3	60.0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55.3	55.5	64.5	68.0	52.5	64.3
	비농어가	(2,830)	55.2	56.9	63.0	66.5	53.7	59.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60.2	61.0	67.3	67.9	64.5	57.1
	40대	(734)	59.5	60.0	68.6	67.5	59.6	64.1
	50대	(840)	56.6	56.9	66.0	66.5	56.8	65.5
	60대	(829)	53.8	56.0	63.3	68.1	51.0	63.0
	70대 이상	(927)	48.1	50.4	54.4	65.2	39.3	55.3
응답자 성	남	(1,717)	57.5	58.3	67.1	68.5	57.8	64.2
	여	(2,282)	53.5	55.0	60.7	65.8	50.0	58.5
가족 형태	65세 미만 1인 가구	(508)	56.2	58.5	65.8	68.5	61.8	63.4
	65세 이상 1인 가구	(727)	46.7	49.2	53.2	64.6	38.8	54.5
	2인 이상 가구	(2,764)	57.2	58.0	65.7	67.3	55.6	62.2
구분			현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있다	요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다	외롭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합계 (3,999)			41.2	42.7	57.3	47.9	72.1	46.6
읍/면	읍	(1,926)	41.7	44.4	60.6	50.4	74.4	47.7
	면	(2,073)	40.7	41.1	54.2	45.6	70.0	45.6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40.6	40.4	58.2	45.6	72.9	44.7
	비농어가	(2,830)	41.5	43.7	56.9	48.9	71.8	47.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48.4	52.7	64.8	59.2	73.5	60.6
	40대	(734)	43.7	47.6	63.7	56.3	76.0	53.7
	50대	(840)	43.0	43.5	60.5	49.3	74.3	50.5
	60대	(829)	39.1	39.9	56.4	43.5	71.8	43.2
	70대 이상	(927)	34.4	33.4	44.6	35.7	66.4	30.6
응답자 성	남	(1,717)	43.1	43.9	60.9	48.9	73.4	52.0
	여	(2,282)	39.8	41.8	54.6	47.2	71.2	42.6
가족 형태	65세 미만 1인 가구	(508)	43.6	43.3	54.4	49.0	70.6	55.3
	65세 이상 1인 가구	(727)	33.8	32.6	39.2	34.8	64.3	29.3
	2인 이상 가구	(2,764)	42.7	45.2	62.6	51.1	74.5	49.6

* 별표(*)가 표시된 항목은 역코딩함

| 표 1309 - (1) | 정신건강 인식(계속)

단위: 점

구분			나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늘 행복한 편이다	나도 모르게 걱정할 때가 많다*	자주 우울해지고 기분이 언짢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때다*
합계 (3,999)			54.2	51.4	49.7	62.0	67.1
읍/면	읍	(1,926)	55.9	53.0	52.0	64.7	70.6
	면	(2,073)	52.6	49.9	47.6	59.5	63.8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55.1	50.3	50.1	60.8	66.5
	비농어가	(2,830)	53.8	51.8	49.6	62.6	67.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59.6	56.7	55.9	66.8	77.9
	40대	(734)	57.3	56.3	53.2	68.7	73.3
	50대	(840)	54.5	50.6	50.3	64.3	70.4
	60대	(829)	52.5	48.8	47.9	59.4	64.1
	70대 이상	(927)	49.2	46.7	43.6	53.6	54.0
응답자 성	남	(1,717)	55.7	52.5	52.7	64.6	70.3
	여	(2,282)	53.1	50.5	47.5	60.1	64.6
가족 형태	65세 미만 1인 가구	(508)	54.4	49.8	52.0	60.5	67.8
	65세 이상 1인 가구	(727)	46.6	45.1	43.5	52.5	50.5
	2인 이상 가구	(2,764)	56.2	53.3	51.0	64.8	71.3
구분			나는 돈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목에 무언가 꼭 막힌 것 같은 때가 있다*	
합계 (3,999)			42.2	50.3	52.5	65.3	
읍/면	읍	(1,926)	43.3	49.0	51.5	64.9	
	면	(2,073)	41.1	51.5	53.4	65.8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45.1	51.6	54.8	63.8	
	비농어가	(2,830)	41.0	49.7	51.5	65.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42.5	51.3	47.0	69.5	
	40대	(734)	43.4	52.5	55.1	68.7	
	50대	(840)	41.7	50.1	51.1	65.2	
	60대	(829)	41.5	49.0	53.7	64.4	
	70대 이상	(927)	42.0	49.0	54.5	60.5	
응답자 성	남	(1,717)	43.1	52.0	53.3	67.3	
	여	(2,282)	41.5	49.0	51.9	63.8	
가족 형태	65세 미만 1인 가구	(508)	41.3	49.2	49.1	66.1	
	65세 이상 1인 가구	(727)	41.2	47.4	54.0	58.7	
	2인 이상 가구	(2,764)	42.6	51.2	52.7	66.9	

* 별표(*)가 표시된 항목은 역코딩함

 정신건강 인식 - 추이

○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표 1309 - (2) | 정신건강 인식 - 추이

단위: 점

구분	평균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두려울 때가 있다*	나는 별 이유 없이 화내는 일이 있다*	나의 기억력은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뒤죽박죽일 때가 있다*
2021년 (3,999)	55.2	56.4	63.4	67.0	53.3	61.0
2016년 (3,952)	57.3	56.5	67.6	67.2	53.1	64.7
구분	현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있다	요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다	외롭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2021년 (3,999)	41.2	42.7	57.3	47.9	72.1	46.6
2016년 (3,952)	43.2	43.8	63.3	51.0	73.3	48.0
구분	나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늘 행복한 편이다	나도 모르게 걱정할 때가 많다*	자주 우울해지고 기분이 언짢다*	자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때다*	나는 돈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2021년 (3,999)	54.2	51.4	49.7	62.0	67.1	42.2
2016년 (3,952)	54.6	51.1	54.0	65.8	70.3	42.0
구분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목에 무언가 꼭 막힌 것 같은 때가 있다*			
2021년 (3,999)	50.3	52.5	65.3			
2016년 (3,952)	53.9	53.7	68.6			

* 별표(*)가 표시된 항목은 역코딩함

1310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69.2%),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67.3%), '노인장기요양보험'(65.4%), '의치(틀니) 지원사업'(63.6%) 인지도가 높음
- ▶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40.0%) 경험률이 가장 높음
- ▶ '노인장기요양보험'(평균 79.5점), '가정방문간호사업'(평균 78.7점) 만족도가 가장 높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69.2%),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67.3%), '노인장기요양보험'(65.4%), '의치(틀니) 지원사업'(63.6%) 인지도가 높음

귀하께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n=1,725)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서비스별 각 100.0%]

노인복지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69.2%),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67.3%), '노인장기요양보험'(65.4%), '의치(틀니) 지원사업'(63.6%) 인지도가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방문간호사업'(50.8%), '노인건강진단사업'(48.7%)은 절반 수준의 인지도를 보였다.

한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32.6%),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16.4%)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읍지역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농어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건강진단사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 1310 - (1) |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합계		(1,703)	67.3	(1,700)	32.6	(1,700)	63.6	(1,697)	65.4
읍/면	읍	(571)	67.6	(571)	37.9	(570)	69.4	(570)	69.9
	면	(1,131)	67.2	(1,129)	29.9	(1,129)	60.7	(1,127)	63.1
영농 여부	농어가	(704)	67.5	(703)	33.9	(702)	65.3	(703)	67.0
	비농어가	(998)	67.2	(998)	31.6	(998)	62.5	(994)	64.3
구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인건강 진단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합계		(1,702)	69.2	(1,694)	48.7	(1,702)	50.8	(1,702)	16.4
읍/면	읍	(571)	73.1	(569)	50.9	(571)	56.3	(571)	21.7
	면	(1,130)	67.2	(1,125)	47.6	(1,131)	48.0	(1,131)	13.7
영농 여부	농어가	(704)	71.6	(703)	52.5	(704)	51.2	(704)	15.3
	비농어가	(998)	67.5	(991)	46.0	(998)	50.5	(998)	17.1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표 1310 - (2) |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2021년	(1,703)	67.3	(1,700)	32.6	(1,700)	63.6	(1,697)	65.4
2016년	(1,467)	60.8	(1,465)	32.0	(1,464)	63.7	(1,464)	59.7
2013년	(1,159)	35.8	(1,161)	29.3	(1,160)	40.2	(1,160)	35.7
구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인건강 진단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사례수	인지충
2021년	(1,702)	69.2	(1,694)	48.7	(1,702)	50.8	(1,702)	16.4
2016년	(1,465)	54.6 ⁽¹⁾	(1,465)	40.4	(1,466)	44.3	(1,464)	15.9
	(1,465)	59.2 ⁽²⁾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놓여준 가구 기준 수치임

* 2016년 '노인건강진단사업', '가정방문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항목이 추가됨

* 2016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가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됨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40.0%) 경험률이 가장 높음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노인복지서비스 인지층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서비스별 각 100.0%]

각 서비스별 인지층 중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40.0%)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치(틀니) 지원사업’(33.7%), ‘노인건강진단사업’(24.0%), ‘노인맞춤돌봄서비스’(16.4%),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14.3%), ‘가정방문간호사업’(13.6%), ‘노인장기요양보험’(9.4%) 순이었다.

한편,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3.7%) 경험률은 낮았다.

비농어가에서 이용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면지역에서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가정방문간호사업’ 경험률이 높았다.

| 표 1310 - (3)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합계		(1,146)	40.0	(554)	14.3	(1,082)	33.7	(1,110)	9.4
읍/면	읍	(386)	35.4	(217)	12.6	(396)	35.8	(399)	6.9
	면	(760)	42.3	(337)	15.4	(686)	32.4	(711)	10.7
영농 여부	농어가	(475)	39.3	(238)	7.8	(458)	27.7	(471)	6.0
	비농어가	(671)	40.5	(316)	19.2	(623)	38.0	(639)	11.9
구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인건강 진단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합계		(1,177)	16.4	(825)	24.0	(865)	13.6	(279)	3.7
읍/면	읍	(418)	15.1	(290)	22.0	(322)	10.5	(124)	1.6
	면	(760)	17.1	(535)	25.0	(543)	15.4	(155)	5.3
영농 여부	농어가	(504)	7.9	(369)	22.1	(360)	8.1	(108)	2.2
	비농어가	(673)	22.7	(456)	25.4	(504)	17.5	(171)	4.6

* 사례수는 인지층의 사례수임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 추이

- 2016년 대비 '의치(틀니) 지원사업'(+22.7%p),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5.2%p), '노인장기요양보험'(+4.2%p), '가정방문간호사업'(+3.8%p) 경험층이 증가함
- 반면, '노인건강진단사업'(-21.7%p),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14.2%p) 경험층은 감소함

| 표 1310 - (4)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 추이

단위 : %(명)

구분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2021년	(1,146)	40.0	(554)	14.3	(1,082)	33.7	(1,110)	9.4
2016년	(891)	34.8	(468)	13.8	(933)	11.0	(874)	5.2
2013년	(421)	15.6	(343)	10.1	(471)	11.7	(418)	5.7
구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인건강 진단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2021년	(1,177)	16.4	(825)	24.0	(865)	13.6	(279)	3.7
2016년	(800)	9.2 ⁽¹⁾	(591)	45.7	(650)	9.8	(232)	17.9
	(867)	8.1 ⁽²⁾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 사례수는 인지층의 사례수임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놓여진 가구 기준 수치임

* 2016년 '노인건강진단사업', '가정방문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항목이 추가됨

* 2016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가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됨



‘노인장기요양보험’(평균 79.5점), ‘가정방문간호사업’(평균 78.7점) 등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소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 중 응답가구에 한해/ 서비스별 각 100.0점]

‘노인장기요양보험’(평균 79.5점), ‘가정방문간호사업’(평균 78.7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의치(틀니) 지원사업’(평균 76.7점),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각 평균 73.9점), ‘노인맞춤돌봄서비스’(평균 73.5점),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평균 70.2점),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평균 68.0점) 순으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소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였다.

읍지역에서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농어가에서 ‘의치(틀니) 지원사업’ 만족도가 높은 반면, 비농어가에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만족도가 높았다.

| 표 1310 - (5) |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치매검진·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건강 진단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합계		70.2	68.0	76.7	79.5	73.5	73.9	78.7	73.9
읍/면	읍	71.9	67.3	80.0	77.3	71.0	78.4	80.6	100.0
	면	69.4	68.5	74.6	80.3	74.8	71.7	78.0	67.6
영농 여부	농어가	71.1	69.4	79.7	77.1	72.1	75.4	78.3	52.8
	비농어가	69.5	67.6	75.1	80.4	73.9	72.8	78.9	80.4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 - 추이

- 2016년 대비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0.9점) 만족도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9.1점) 만족도는 감소함

| 표 1310 - (6) | 노인복지서비스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 - 추이

단위: 점

구분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건강 진단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2021년	70.2	68.0	76.7	79.5	73.5	73.9	78.7	73.9
2016년	65.8	62.7	69.3	80.4	68.3 ⁽¹⁾ 68.4 ⁽²⁾	70.8	70.7	83.0
2013년	68.7	67.4	60.2	72.5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놓여춘 가구 기준 수치임

* 2016년 '노인건강진단사업', '가정방문간호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항목이 추가됨

* 2016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가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됨

1311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다음의 노인복지서비스 중 귀하 또는 귀댁의 어르신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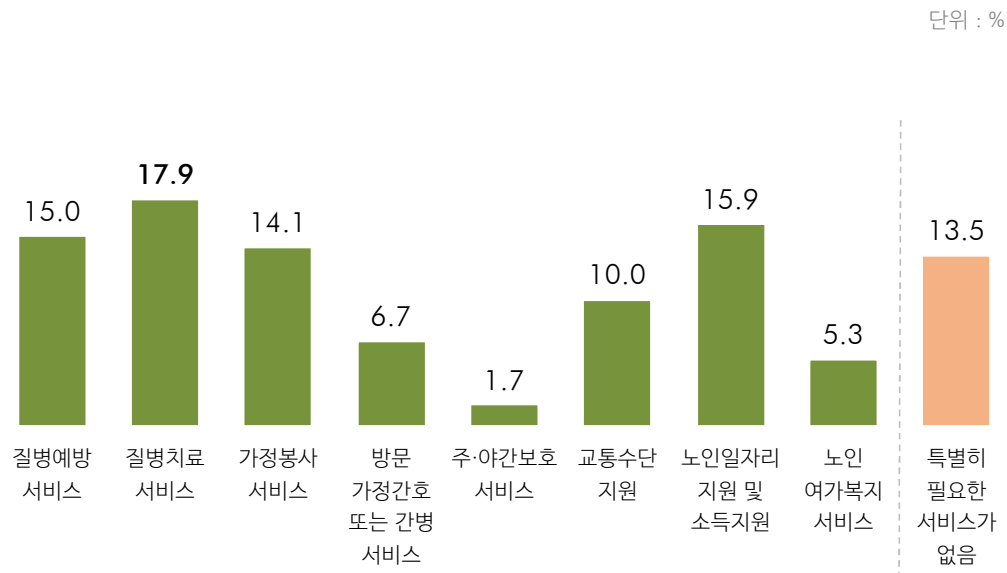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n=1,725)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6%(n=1,684)]

▶ 가장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는 '질병치료서비스'(17.9%)

응답자 본인 혹은 만 65세 이상 가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로 '질병치료서비스'(17.9%)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15.9%), '질병예방서비스'(15.0%), '가정봉사서비스'(14.1%), '교통수단 지원'(10.0%),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6.7%), '노인여가복지서비스'(5.3%), '주·야간보호서비스'(1.7%) 순이었다.

한편,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없다고 응답한 층은 13.5%였다.

| 그림 1311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70대 이상 연령층,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 ‘질병치료서비스’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연령층, 장애 가구원이 없는 가구에서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읍지역,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층에서 ‘질병예방서비스’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면지역, 여성층에서 ‘가정봉사서비스’ 비율이 높았다.

| 표 1311 - (1)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질병 예방 서비스	질병 치료 서비스	가정 봉사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합계 (1,684)			15.0	17.9	14.1	6.7	1.7	10.0	15.9	5.3	13.5
읍/면	읍 (565)		18.2	18.5	10.9	7.5	0.6	7.0	15.8	7.2	14.5
	면 (1,119)		13.3	17.7	15.7	6.3	2.2	11.5	15.9	4.3	13.1
영농 여부	농어가 (699)		14.6	19.1	12.0	5.2	2.5	9.8	15.9	5.1	16.0
	비농어가 (986)		15.3	17.1	15.6	7.8	1.1	10.1	15.8	5.4	11.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			100.0							
	40대 (80)		47.4	8.8	10.2	0.9	1.9	5.7	4.0	6.9	14.2
	50대 (172)		30.0	18.0	5.9	13.5	2.6	8.3	3.9	11.5	6.3
	60대 (509)		12.2	15.2	9.8	3.4	1.8	5.1	26.4	5.1	21.0
	70대 이상 (923)		10.9	20.1	18.4	7.8	1.4	13.3	13.3	4.1	10.7
응답자 성	남 (547)		18.4	19.1	11.1	5.3	2.3	6.1	14.5	4.6	18.6
	여 (1,137)		13.3	17.4	15.6	7.3	1.3	11.8	16.5	5.6	11.1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323)		11.7	22.5	16.9	10.5	1.6	11.0	8.8	5.5	11.5
	없음 (1,361)		15.8	16.9	13.5	5.8	1.7	9.7	17.5	5.2	14.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723)		16.0	17.3	13.0	8.1	1.2	7.4	17.2	5.9	13.9
	선주민 (962)		14.2	18.5	15.0	5.6	2.0	11.9	14.9	4.8	13.2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추이

- 2016년 이후 '가정봉사서비스'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질병예방서비스'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18년 대비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6.3%p) 비율이 증가한 반면,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 서비스'(-5.3%p) 비율은 감소함

| 표 1311 - (2)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추이

단위 : %(명)

구분	질병 예방 서비스	질병 치료 서비스	가정 봉사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2021년 (1,684)	15.0	17.9	14.1	6.7	1.7	10.0	15.9	5.3	13.5
2018년 (1,113)	17.3	15.6	9.0	12.0	0.7	10.4	9.6	3.3	20.3
2016년 (1,460)	22.0	23.4	8.2	6.5	0.8	7.6	13.6	4.4	13.5
2013년 (1,121)	21.0	20.1	9.7	12.5	0.9	8.8	4.9		20.3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놓여준 가구 기준 수치임

* 2016년 '노인여가복지서비스' 항목이 추가됨

* 2018년 '가정봉사서비스'는 '가정 활동지원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는 '방문 요양 및 간호 서비스', '노인여가복지서비스'는 '여가 취미활동 서비스' 항목의 수치임

* 2018년 추가된 '노인공동생활서비스'(1.5%) 항목은 제시하지 않음

*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1312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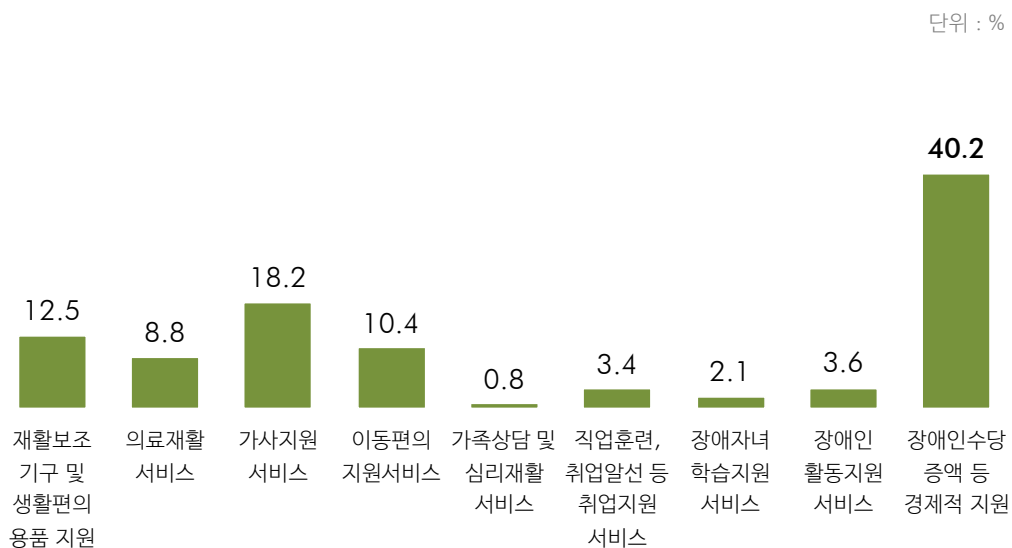
귀하 또는 귀택의 장애가 있는 가구원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n=416)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1.8%(n=382)]

▶ 가장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40.2%)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40.2%)이 장애가 있는 가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가사지원서비스'(18.2%),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12.5%), '이동편의지원서비스'(10.4%), '의료재활서비스'(8.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3.6%),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3.4%), '장애자녀 학습지원서비스'(2.1%),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0.8%) 순이었다.

| 그림 1312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면지역, 50대 연령층, 가구원 수가 2명 이하인 층, 이주민층에서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 비율이 높은 가운데, 비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사지원서비스' 비율이 높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 남성층,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 편의용품 지원' 비율이 높았으며, 읍지역에서 '이동편의지원서비스' 비율이 높았다.

| 표 1312 - (1)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재활보조 기구 및 생활 편의용품 지원	의료재활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이동편의 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장애인 학습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
합계 (382)		12.5	8.8	18.2	10.4	0.8	3.4	2.1	3.6	40.2
읍/면	읍 (119)	14.8	9.9	13.0	18.8	0.7	5.5	1.3	0.9	35.0
	면 (263)	11.5	8.3	20.5	6.6	0.9	2.5	2.4	4.8	42.5
영농 여부	농어가 (150)	14.3	7.9	14.6	10.1	0.8	1.9	3.0	6.5	41.0
	비농어가 (231)	11.4	9.4	20.5	10.6	0.9	4.4	1.4	1.7	39.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									100.0
	40대 (48)	6.1	14.5	12.6	2.0		10.3	15.5	1.8	37.3
	50대 (63)	9.3	5.2	13.3	4.4	1.9	1.8	0.7	7.4	56.0
	60대 (98)	15.6	11.9	8.8	13.4	0.9	1.8		3.5	44.1
	70대 이상 (171)	13.9	6.9	27.1	13.4	0.6	3.0		2.8	32.3
응답자 성	남 (160)	16.8	11.2	15.1	8.5	1.0	3.0	1.2	1.7	41.5
	여 (222)	9.4	7.1	20.4	11.8	0.7	3.7	2.6	4.9	39.2
총 가구원 수	1명 (126)	10.9	3.9	22.2	15.3	1.0	2.3	0.3	3.5	40.4
	2명 (173)	12.3	12.3	18.6	9.5	0.8	2.6		2.6	41.4
	3명 이상 (83)	15.6	8.9	11.2	5.0	0.5	6.9	9.0	5.7	37.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52)	11.5	6.0	17.1	13.3	1.4	3.2	0.9	3.5	43.3
	선주민 (230)	13.2	10.7	18.9	8.5	0.5	3.6	2.8	3.7	38.1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추이

- 2016년 대비 '가사지원서비스'(+10.3%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의료재활서비스'(-6.5%p) 비율은 감소함

| 표 1312 - (2)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추이

단위: %(명)

구분	재활보조 기구 및 생활 편의용품 지원	의료재활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이동편의 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장애자녀 학습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
2021년 (382)	12.5	8.8	18.2	10.4	0.8	3.4	2.1	3.6	40.2
2018년 (236)	15.3	8.2	19.2	8.1	5.9	10.9	3.6	9.2	
2016년 (426)	10.5	15.3	7.9	7.4	2.2	6.2	1.1	6.2	43.1
2013년 (138)	20.8	16.8	14.7	18.0	3.5	7.3	6.3		

* 2013년,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항목이 추가됨

* 2016년 추가된 '장애인 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 항목은 2018년에 조사하지 않음

* 2018년 '필요한 서비스 없음'(19.4%)은 제시하지 않음

*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1313 > 복지시설 이용실태

- ▶ '노인복지시설'(52.6%) 인지도가 가장 높음
- ▶ '노인복지시설'(17.3%), '아동,청소년 복지시설'(16.4%) 이용률이 가장 높음
- ▶ '노인복지시설'(평균 72.7점), '영유아 복지시설'(평균 72.2점) 만족도가 가장 높음
- ▶ 복지시설 이용 횟수로 '월 1회 미만'(38.0%), '월 5회 이상'(33.0%) 비율이 높음
- ▶ 복지시설까지 주로 '걸어서'(51.9%) 이동,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13.1분
- ▶ '바빠서'(30.8%),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25.5%)가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노인복지시설'(52.6%) 인지도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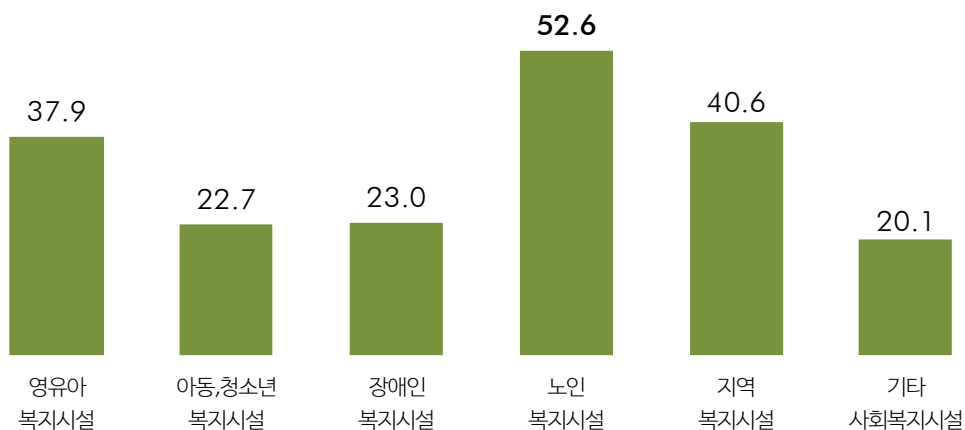
다음은 지역 내 설치되는 주요 복지시설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지시설별 각 100.0%]

지역 내 주요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인지도가 5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복지관(종합, 종별) 등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치된 '지역복지시설'(40.6%), '영유아 복지시설'(37.9%), '장애인 복지시설'(23.0%), '아동,청소년 복지시설'(22.7%), '기타 사회복지시설'(20.1%) 순이었다.

| 그림 1313 - (1) | 복지시설 인지도

단위 : %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복지시설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층, 선주민층에서 ‘노인복지시설’ 인지도가 높은 반면, 40대 이하 연령층, 이주민층에서 ‘영유아 복지시설’ 인지도가 높았다.

| 표 1313 - (1) | 복지시설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합계		(3,998)	37.9	(3,998)	22.7	(3,998)	23.0
읍/면	읍	(1,925)	40.8	(1,925)	29.1	(1,925)	27.2
	면	(2,072)	35.3	(2,072)	16.7	(2,072)	19.1
영농 여부	농어가	(1,168)	34.3	(1,168)	16.3	(1,168)	20.4
	비농어가	(2,830)	39.4	(2,830)	25.3	(2,830)	24.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42.9	(669)	25.4	(669)	18.1
	40대	(734)	45.2	(734)	36.2	(734)	27.1
	50대	(840)	37.9	(840)	23.5	(840)	26.0
	60대	(829)	37.1	(829)	19.5	(829)	26.3
	70대 이상	(925)	29.4	(925)	12.0	(925)	17.7
응답자 성	남	(1,717)	37.2	(1,717)	20.8	(1,717)	20.6
	여	(2,281)	38.5	(2,281)	24.0	(2,281)	24.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2)	39.9	(2,592)	25.1	(2,592)	21.4
	선주민	(1,406)	34.3	(1,406)	18.1	(1,406)	26.0
구분		노인복지시설		지역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합계		(3,998)	52.6	(3,998)	40.6	(3,998)	20.1
읍/면	읍	(1,925)	49.4	(1,925)	44.9	(1,925)	20.6
	면	(2,072)	55.5	(2,072)	36.5	(2,072)	19.6
영농 여부	농어가	(1,168)	55.2	(1,168)	35.4	(1,168)	18.2
	비농어가	(2,830)	51.5	(2,830)	42.7	(2,830)	20.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35.2	(669)	35.2	(669)	15.1
	40대	(734)	46.0	(734)	41.1	(734)	24.4
	50대	(840)	50.4	(840)	46.2	(840)	24.3
	60대	(829)	59.4	(829)	44.6	(829)	22.3
	70대 이상	(925)	66.3	(925)	35.4	(925)	14.4
응답자 성	남	(1,717)	44.7	(1,717)	39.9	(1,717)	18.2
	여	(2,281)	58.5	(2,281)	41.0	(2,281)	21.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2)	47.7	(2,592)	40.9	(2,592)	19.8
	선주민	(1,406)	61.7	(1,406)	40.0	(1,406)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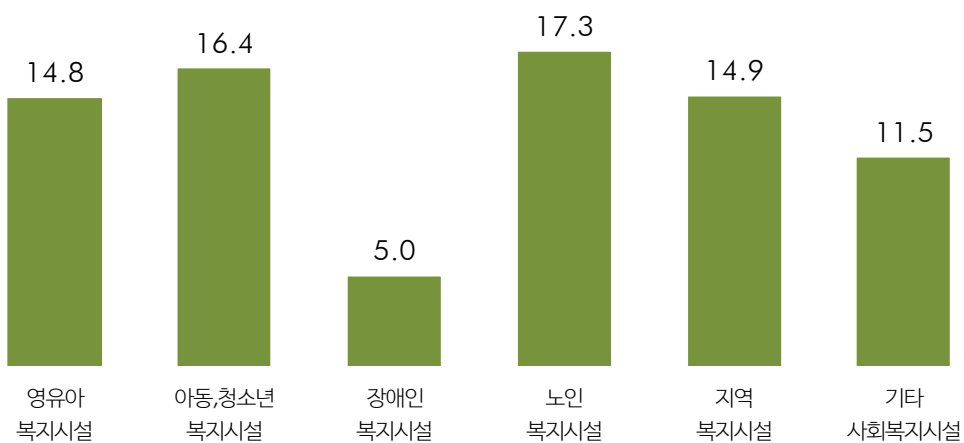
‘노인복지시설’(17.3%), ‘아동,청소년 복지시설’(16.4%) 이용률이 가장 높음

[복지시설 인지층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지시설별 각 100.0%]

각 복지시설별 인지층의 이용률은 ‘노인복지시설’(17.3%), ‘아동,청소년 복지시설’(16.4%), ‘지역 복지시설’(14.9%), ‘영유아 복지시설’(14.8%), ‘기타 사회복지시설’(11.5%) 순이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5.0%)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그림 1313 - (2) | 복지시설 이용 경험

단위 : %



면지역, 농어가, 여성층,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층, 선주민층에서 ‘노인복지시설’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 이주민층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영유아 복지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 표 1313 - (2) | 복지시설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사례수	이용층	사례수	이용층	사례수	이용층
합계		(1,516)	14.8	(906)	16.4	(920)	5.0
읍/면	읍	(786)	22.2	(560)	18.3	(524)	5.6
	면	(731)	7.0	(346)	13.3	(396)	4.2
영농 여부	농어가	(401)	6.9	(190)	3.6	(239)	3.1
	비농어가	(1,115)	17.7	(715)	19.8	(681)	5.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87)	37.2	(170)	25.3	(121)	
	40대	(332)	30.3	(266)	32.9	(199)	9.6
	50대	(319)	3.9	(197)	7.3	(218)	3.9
	60대	(308)	0.9	(162)	2.2	(218)	4.4
	70대 이상	(272)	1.0	(111)	0.2	(164)	5.3
응답자 성	남	(639)	16.2	(357)	14.0	(354)	6.2
	여	(878)	13.8	(548)	17.9	(566)	4.3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034)	18.5	(651)	22.4	(554)	5.0
	선주민	(482)	7.1	(255)	1.0	(366)	5.1
구분		노인복지시설		지역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사례수	이용층	사례수	이용층	사례수	이용층
합계		(2,102)	17.3	(1,622)	14.9	(803)	11.5
읍/면	읍	(951)	11.9	(865)	15.4	(397)	10.2
	면	(1,151)	21.7	(757)	14.4	(405)	12.8
영농 여부	농어가	(645)	20.0	(413)	12.9	(212)	16.5
	비농어가	(1,457)	16.0	(1,209)	15.6	(591)	9.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35)	3.9	(235)	17.1	(101)	9.2
	40대	(338)	4.5	(302)	23.3	(179)	4.9
	50대	(423)	7.0	(387)	9.8	(204)	24.7
	60대	(492)	19.4	(370)	12.9	(185)	9.5
	70대 이상	(613)	34.8	(327)	14.0	(133)	5.0
응답자 성	남	(767)	11.8	(686)	11.5	(313)	10.9
	여	(1,335)	20.4	(936)	17.4	(489)	12.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235)	11.0	(1,059)	17.4	(513)	13.7
	선주민	(867)	26.2	(563)	10.2	(289)	7.7

* 사례수는 인지층의 사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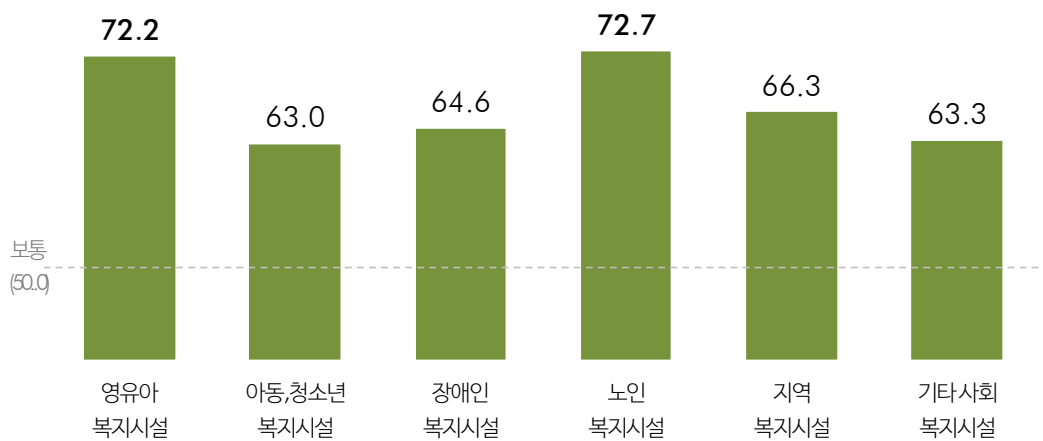
‘노인복지시설’(평균 72.7점), ‘영유아 복지시설’(평균 72.2점) 만족도가 가장 높음

[복지시설 이용층 중 응답가구에 한해/ 복지시설별 각 100.0점]

복지시설 이용층의 만족도는 ‘노인복지시설’(평균 72.7점), ‘영유아 복지시설’(평균 72.2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복지시설’(평균 66.3점), ‘장애인 복지시설’(평균 64.6점), ‘기타 사회복지시설’(평균 63.3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평균 63.0점) 순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였다.

| 그림 1313 - (3) |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



여성층에서 전반적인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30대 이하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노인복지시설’ 만족도가 높았으며,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 이주민층에서 ‘영유아 복지시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면지역, 농어가에서 ‘지역복지시설’ 만족도가 높은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 1313 - (3) |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영유아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지역 복지시설	기타 사회 복지시설
합계		72.2	63.0	64.6	72.7	66.3	63.3
읍/면	읍	75.6	63.2	65.7	71.3	61.4	61.5
	면	60.6	62.7	62.8	73.3	72.2	64.7
영농 여부	농어가	61.6	52.4	60.0	74.4	71.9	64.2
	비농어가	73.7	63.5	65.5	71.8	64.7	62.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6	60.9		75.0	52.5	50.0
	40대	73.8	63.3	67.8	72.5	69.2	82.1
	50대	61.3	69.7	62.6	69.1	63.1	62.9
	60대	59.7	53.7	55.5	71.5	70.8	56.4
	70대 이상	57.0	50.0	69.8	73.6	71.9	78.5
응답자 성	남	68.4	61.4	57.7	70.6	61.9	57.9
	여	75.4	63.8	70.9	73.4	68.4	66.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72.6	63.1	57.8	70.5	63.0	62.2
	선주민	69.6	56.4	74.7	74.0	76.8	66.7



복지시설 이용 횟수로 '월 1회 미만'(38.0%), '월 5회 이상'(33.0%)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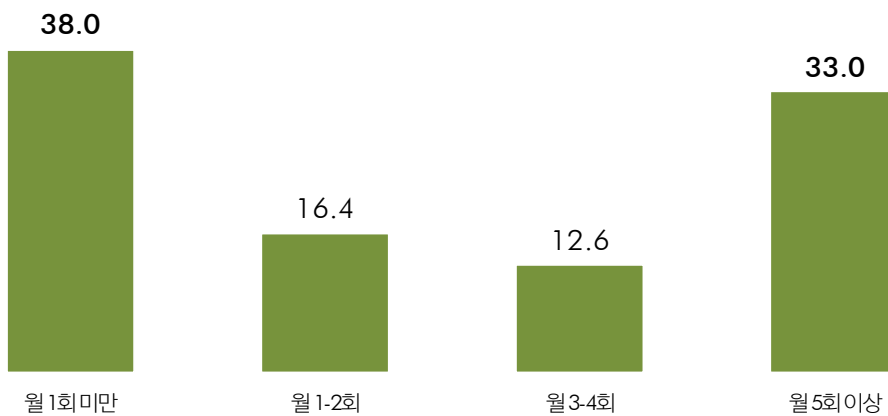
귀덕에서는 지난 1년간 가장 자주 이용한 복지시설을 기준으로 월 평균 이용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시설 이용층(n=82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84.8%(n=695)]

복지시설 이용 횟수로 '월 1회 미만'(38.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월 5회 이상'(33.0%) 비율 또한 높았다. 다음으로 '월 1-2회' 이용층은 16.4%였으며, '월 3-4회' 이용층은 12.6%로 나타났다.

| 그림 1313 - (4) | 복지시설 이용 횟수

단위 : %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 남성층,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층, 복지시설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층에서 ‘월 1회 미만’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층, 영유아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층에서 ‘월 5회 이상’ 비율이 높았다.

| 표 1313 - (4) | 복지시설 이용 횟수

단위 : %(명)

구분			월 1회 미만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합계 (695)			38.0	16.4	12.6	33.0
읍/면	읍	(375)	44.5	12.9	9.6	32.9
	면	(320)	30.3	20.4	16.1	33.2
영농 여부	농어가	(158)	32.5	16.1	16.9	34.5
	비농어가	(537)	39.6	16.5	11.3	32.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26)	50.9	9.9	2.1	37.0
	40대	(166)	44.9	11.0	14.7	29.5
	50대	(96)	45.7	22.6	11.9	19.8
	60대	(118)	19.2	29.2	21.5	30.1
	70대 이상	(188)	31.1	14.2	12.6	42.1
응답자 성	남	(223)	41.8	18.0	10.7	29.6
	여	(472)	36.2	15.6	13.5	34.7
이용하는 복지시설 유형*	영유아 복지시설	(195)	40.1	4.3	8.1	47.6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133)	56.3	14.8	11.5	17.4
	장애인 복지시설	(42)	55.7	21.9	6.3	16.0
	노인복지시설	(305)	29.1	19.5	12.2	39.2
	지역복지시설	(196)	44.5	23.7	15.3	16.6
	기타 사회복지시설	(92)	37.7	18.9	19.2	24.2
복지시설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걸어서	(361)	31.4	18.2	12.8	37.6
	대중교통	(58)	64.6	22.2	6.0	7.2
	자가용	(209)	51.5	16.2	15.4	16.9
	기타	(67)	8.3	2.2	8.8	80.8

* ‘이용하는 복지시설 유형’은 유형별로 배타성이 확보되지 않는 중복응답 값으로 유형별 합계가 전체 사례수보다 많으며, 해석 시 주의를 요함

복지시설까지 주로 '걸어서'(51.9%) 이동

이용하시는 복지시설로 이동하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복지시설 이용층(n=820)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84.8%(n=695)]

복지시설까지 주로 '걸어서'(51.9%)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가용'(30.1%), '대중교통'(8.3%) 순이었다. 면지역, 70대 이상 연령층, 여성층, 교통수단 미보유층, 노인복지시설 이용층에서 '걸어서'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농어가, 50대 연령층, 교통수단 보유층, 기타 사회 복지시설 이용층에서 '자가용' 비율이 높았다.

| 표 1313 - (5) | 복지시설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합계 (695)			51.9	8.3	30.1	9.7
읍/면	읍	(375)	49.2	6.3	31.0	13.5
	면	(320)	55.1	10.7	29.0	5.2
영농 여부	농어가	(158)	52.5	6.1	35.1	6.3
	비농어가	(537)	51.7	8.9	28.7	10.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26)	40.3		44.7	15.0
	40대	(166)	41.7	3.7	38.9	15.7
	50대	(96)	26.2	16.8	53.5	3.6
	60대	(118)	64.9	11.5	18.8	4.8
	70대 이상	(188)	73.6	11.6	7.8	7.0
응답자 성	남	(223)	45.2	9.0	29.5	16.3
	여	(472)	55.1	8.0	30.4	6.6
보유 교통수단	있음	(555)	45.5	6.5	37.3	10.7
	없음	(140)	77.3	15.4	1.8	5.5
이용하는 복지시설 유형*	영유아 복지시설	(195)	37.5	0.4	37.5	24.6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133)	36.0	13.4	44.8	5.8
	장애인 복지시설	(42)	28.1	9.3	40.3	22.3
	노인복지시설	(305)	71.3	12.2	11.6	4.8
	지역복지시설	(196)	43.6	6.9	44.8	4.8
	기타 사회복지시설	(92)	40.0	9.3	49.8	1.0

* '이용하는 복지시설 유형'은 유형별로 배타성이 확보되지 않는 중복응답 값으로 유형별 합계가 전체 사례수보다 많으며, 해석 시 주의를 요함

 복지시설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 2016년 대비 '자가용'(+10.0%p) 비율이 증가한 반면, '걸어서'(-12.5%p) 비율은 감소함

| 표 1313 - (6) | 복지시설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2021년 (695)	51.9	8.3	30.1	9.7
2016년 (821)	64.4	12.0	20.1	3.6

복지시설까지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13.1분

이용하시는 복지시설로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복지시설 이용층(n=820)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80.5%(n=660)]

복지시설까지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으로 '10-20분 미만'(47.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10분 미만'(23.3%), '20-30분 미만'(11.1%), '30분 이상'(10.0%), '5분 미만'(7.9%) 순이었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13.1분으로 나타났다. 비농어가, 50대 연령층, 아동, 청소년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층, 복지시설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층에서 평균 소요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 표 1313 - (7) | 복지시설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 이상
합계 (660)		13.1분	7.9	23.3	47.7	11.1	10.0
읍/면	읍 (353)	13.4분	2.6	25.4	52.6	9.5	9.9
	면 (307)	12.9분	14.1	20.8	42.0	12.8	10.2
영농 여부	농어가 (154)	10.3분	15.6	29.6	33.3	18.1	3.5
	비농어가 (506)	14.0분	5.6	21.4	52.1	8.9	12.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26)	14.1분		23.9	59.6	9.1	7.4
	40대 (138)	12.9분	4.5	22.0	51.0	13.8	8.6
	50대 (95)	18.2분	4.4	8.4	57.2	13.4	16.6
	60대 (117)	12.5분	6.9	25.4	48.3	7.9	11.5
	70대 이상 (183)	10.4분	18.5	30.3	31.5	11.2	8.5
이용하는 복지시설 유형*	영유아 복지시설 (173)	12.5분	1.3	20.0	63.8	7.0	8.0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114)	17.2분		29.8	41.6	11.7	16.9
	장애인 복지시설 (42)	13.8분		21.3	49.4	12.8	16.5
	노인복지시설 (292)	11.2분	16.3	28.6	34.8	12.2	8.2
	지역복지시설 (186)	12.5분	6.7	12.2	61.0	13.4	6.8
	기타 사회복지시설 (92)	16.5분		0.8	64.0	30.6	4.5
복지시설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걸어서 (338)	9.6분	13.2	33.4	40.2	9.3	3.8
	대중교통 (58)	28.7분		0.2	26.6	20.4	52.8
	자가용 (197)	14.9분	3.0	14.9	58.3	14.4	9.4
	기타 (67)	12.3분	2.6	16.9	72.1	2.1	6.3

* '이용하는 복지시설 유형'은 유형별로 배타성이 확보되지 않는 중복응답 값으로 유형별 합계가 전체 사례수보다 많으며, 해석 시 주의를 요함



복지시설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 추이

- 2016년 대비 '10-20분 미만'(+11.9%p) 비율이 증가한 반면, '5-10분 미만'(-5.8%p), '20-30분 미만'(-5.6%p) 비율은 감소하여 평균 소요시간은 2016년과 비슷한 수준(평균 +1.1분)을 보임

| 표 1313 - (8) | 복지시설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 추이

단위 :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 이상
2021년 (660)	13.1분	7.9	23.3	47.7	11.1	10.0
2016년 (807)	12.0분	10.2	29.1	35.8	16.7	8.2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바빠서’(30.8%),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25.5%)

귀하께서 지난 1년간 지역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시설 비이용층(n=3,17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5.0%(n=3,020)]

복지시설 비이용층(n=3,020)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바빠서’(30.8%)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25.5%)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16.7%), ‘시설이 있는지 몰라서’(13.8%), ‘돈이 없어서’(2.3%) 순이었다.

농어가, 남성층, 이주민층에서 ‘바빠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 비율이 높았다.

| 표 1313 - (9) | 복지시설 비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시설이 있는지 몰라서	바빠서	돈이 없어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	기타
합계 (3,020)			16.7	13.8	30.8	2.3	25.5	10.8
읍/면	읍	(1,437)	16.2	13.7	31.3	1.3	25.0	12.4
	면	(1,583)	17.2	13.9	30.4	3.2	25.9	9.3
영농 여부	농어가	(917)	15.1	14.0	38.5	3.1	22.6	6.6
	비농어가	(2,103)	17.5	13.7	27.5	2.0	26.7	12.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4)	12.0	14.6	36.5		18.9	18.1
	40대	(516)	19.5	11.5	37.1	0.5	21.2	10.1
	50대	(681)	23.0	8.8	35.2	0.9	22.4	9.6
	60대	(662)	15.0	15.5	33.8	1.9	25.5	8.4
	70대 이상	(657)	13.5	18.5	13.9	7.5	37.0	9.6
응답자 성	남	(1,384)	14.4	14.2	37.2	1.2	21.4	11.7
	여	(1,636)	18.7	13.5	25.5	3.3	28.9	10.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979)	18.2	12.8	32.2	0.9	24.3	11.5
	선주민	(1,040)	13.9	15.7	28.2	5.0	27.8	9.5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342)	14.0	19.3	31.5	1.7	18.9	14.6
	비의향층	(2,671)	17.1	13.1	30.7	2.3	26.3	10.3



복지시설 비용 이유 - 추이

- 문항 구성이 달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바빠서'(-11.7%p),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8.0%p) 비율이 감소함

| 표 1313 - (10) | 복지시설 비용 이유 - 추이

단위 : %(명)

구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시설이 있는지 몰라서	바빠서	돈이 없어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	기타
2021년 (3,020)	16.7	13.8	30.8	2.3	25.5	10.8
2016년 (3,099)	24.7	12.9	42.5	2.0		18.0

* 2016년 '기타'는 "건강문제/거동불편", "거리/교통불편", "연령대가 맞지 않아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타"의 합임

* 2021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 항목이 추가됨

1314 >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읍/면)의 전반적인 복지 여건(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파악 및 제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3,988)]

▶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48.0점)의 평가

전반적인 복지 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48.0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다소 불만족'(26.0%) 등 [불만족하는 편(합)](27.7%) 비율이 '다소 만족'(19.5%) 등 [만족하는 편(합)](20.4%)에 비해 높았다.

70대 이상 연령층, 복지시설 이용층에서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표 1314 - (1) |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합)
합계 (3,988)			48.0점	0.9	19.5	20.4	51.9	26.0	1.7	27.7
읍/면	읍 (1,919)	47.9점	0.7	19.3	20.0	52.4	26.3	1.3	27.6	
	면 (2,069)	48.0점	1.2	19.6	20.8	51.5	25.7	2.1	27.7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47.5점	1.0	17.6	18.7	53.1	26.7	1.5	28.2	
	비농어가 (2,822)	48.2점	0.9	20.2	21.1	51.4	25.7	1.8	27.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47.1점	0.6	19.5	20.2	47.5	32.3		32.3	
	40대 (734)	47.5점	1.2	18.5	19.8	51.8	25.7	2.8	28.4	
	50대 (833)	45.6점	0.3	16.4	16.7	51.4	29.2	2.8	32.0	
	60대 (829)	48.2점	0.7	17.3	18.0	57.6	22.9	1.5	24.4	
	70대 이상 (923)	51.1점	1.7	24.8	26.6	50.7	21.5	1.3	22.8	
응답자 성	남 (1,716)	47.8점	1.1	16.9	18.0	55.0	25.9	1.1	27.0	
	여 (2,272)	48.2점	0.8	21.4	22.2	49.6	26.0	2.2	28.2	
복지시설 이용 여부	이용층 (819)	54.6점	1.5	34.1	35.6	46.4	17.3	0.7	17.9	
	비이용층 (3,170)	46.3점	0.8	15.7	16.5	53.3	28.2	2.0	30.2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최근으로 올수록 [만족하는 편(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표 1314 - (2) |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추이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하는 편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 편 (합)
2021년 (3,988)	48.0점	0.9	19.5	20.4	51.9	26.0	1.7	27.7
2016년 (3,950)	47.1점	1.2	15.9	17.1	55.3	25.2	2.4	27.6
2013년 (2,725)	44.4점	1.2	10.7	11.9	57.6	25.4	5.1	30.5

* 2013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315>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정부가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조사대상 가구(n=3,99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1%(n=3,963)]

▶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31.5%)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정부가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으로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31.5%)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업의 미래 보호'(16.4%),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13.9%),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13.4%), '주택의 보급 및 개량'(8.5%),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8.1%),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6.4%)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읍 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 비율이 높았다. 40-50대 연령층, 남성층에서 '농업의 미래 보호' 비율이 높았으며, 30대 이하 연령층, 여성층에서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비율이 높았다.

| 표 1315 - (1) |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단위 : %(명)

구분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농업의 미래 보호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주택의 보급 및 개량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	기타
합계 (3,963)		31.5	16.4	8.1	8.5	13.4	13.9	6.4	1.7
읍/면	읍 (1,900)	24.1	18.3	9.2	11.6	11.9	16.2	6.7	2.0
	면 (2,062)	38.3	14.6	7.1	5.7	14.8	11.8	6.2	1.5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48.7	18.7	3.6	4.8	8.9	6.8	5.4	3.0
	비농어가 (2,797)	24.3	15.4	9.9	10.1	15.3	16.9	6.9	1.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57)	12.9	7.4	10.2	12.3	18.5	22.5	13.4	2.8
	40대 (726)	20.3	21.8	9.0	13.3	8.6	18.2	7.2	1.5
	50대 (839)	35.0	21.7	5.3	7.5	10.0	9.2	8.4	3.1
	60대 (824)	40.4	17.3	8.6	5.0	14.2	9.7	4.4	0.4
	70대 이상 (916)	42.5	12.8	8.0	6.1	16.1	12.5	0.9	1.1
응답자 성	남 (1,701)	32.2	19.0	8.2	9.0	8.5	13.9	7.3	1.9
	여 (2,261)	31.0	14.4	8.0	8.2	17.2	13.9	5.8	1.6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추이

- 2020년 대비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4.9%p) 비율이 증가한 반면, '농업의 미래 보호'(-5.8%p) 비율은 감소함

| 표 1315 - (2) | 농촌지역 우선 필요정책 - 추이

단위 : %(명)

구분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농업의 미래 보호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주택의 보급 및 개량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확대	기타
2021년 (3,963)	31.5	16.4	8.1	8.5	13.4	13.9	6.4	1.7
2020년 (3,958)	30.4	22.2	11.2	10.0	8.5	10.1	7.2	0.5
2016년 (3,885)	40.3	13.6	4.9	2.3	8.2	13.1	9.5	8.1
2015년 (3,883)	41.4	21.2	4.6	4.9	10.7	11.4	5.8	

* 2016년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은 "농촌 교육", "농촌주민 건강 증진", '기타'는 "농촌보건의료정책", "기타"의 합임

제 2 부 기존통계 활용

2100〉보건의료

2200〉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100〉 보건의료

-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 2102> 만성질환 현황
-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 2104> 건강검진 수진율
- 2105> 월 평균 보건의료비
-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를
-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2109> 농작업 손상
- 2110> 병상 수
- 2111> 보건의료기관 수
-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101 >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 2020년 기준, 농어촌의 유병률은 33.6%, 평균 유병일수 11.2일, 입원 등 평균 외병일수 0.4일

2020년 기준, 지난 2주 동안 농어촌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사람은 33.6%로, 도시(23.1%)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농어촌 유병자의 평균 유병일수는 11.2일이었으며, 입원하거나 누워 지낸 일수는 평균 0.4일로, 도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101 |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단위: %, 일

연도	구분	유병률	평균 유병일수	평균 외병일수
2008	농어촌	21.8	9.0	0.7
	도시	16.6	8.1	0.7
2010	농어촌	25.3	8.1	0.6
	도시	19.7	7.1	0.6
2012	농어촌	30.4	9.7	0.5
	도시	22.8	8.1	0.6
2014	농어촌	31.8	10.3	0.7
	도시	23.2	8.5	0.7
2016	농어촌	32.8	10.8	0.6
	도시	24.2	8.7	0.9
2018	농어촌	36.1	10.6	0.4
	도시	25.7	9.0	0.5
2020	농어촌	33.6	11.2	0.4
	도시	23.1	9.5	0.6

자료: 통계청(2008~2020), 「사회조사」

주: 0세 이상 인구 대상, 지난 2주간

2102> 만성질환 현황

▶ 2019년 기준, 농어촌의 만성질환으로 '고혈압'(39.5%)이 많으며, 도시에 비해 유병률이 높음

2019년 기준, 농어촌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39.5%), '고콜레스테롤혈증'(26.8%), '당뇨병'(19.0%), '고중성지방혈증'(16.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고혈압'(+8.0%p), '당뇨병'(+5.4%p) 유병률이 높았다.

| 표 2102 - (1) | 만성질환 현황(1)

단위 : %

연도	구분	유병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2005	농어촌	33.8	8.6	17.3	10.1
	도시	26.6	7.9	16.5	8.8
2007	농어촌	26.6	7.7	12.6	8.1
	도시	24.7	11.7	18.2	10.2
2008	농어촌	33.4	10.3	19.3	10.3
	도시	25.7	11.3	16.9	9.9
2009	농어촌	33.0	11.1	17.8	11.4
	도시	26.7	12.0	16.7	9.7
2010	농어촌	33.1	13.2	16.6	10.8
	도시	27.6	14.4	17.1	9.9

자료 : 질병관리청(2005~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 1) 만 30세 이상 대상

2) 고혈압 유병률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을

3)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총 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복용한 분을

4)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 :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인 분을

5) 당뇨병 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분을

| 표 2102 - (2) | 만성질환 현황(2)

단위 : %

연도	구분	유병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2011	농어촌	36.1	14.9	19.1	15.4
	도시	29.3	14.4	15.8	11.6
2012	농어촌	37.2	16.5	16.7	15.5
	도시	30.1	15.1	17.2	10.8
2013	농어촌	33.2	14.7	19.5	15.7
	도시	29.7	16.2	17.1	14.2
2014	농어촌	32.0	16.4	20.4	14.1
	도시	28.2	15.5	17.6	12.8
2015	농어촌	38.4	21.5	20.1	13.3
	도시	30.6	19.1	16.0	11.0
2016	농어촌	38.3	23.5	18.6	19.5
	도시	32.5	21.8	17.3	13.4
2017	농어촌	38.2	23.8	15.3	17.2
	도시	29.8	23.7	16.2	12.7
2018	농어촌	43.0	26.5	18.1	17.4
	도시	31.6	23.3	16.8	13.2
2019	농어촌	39.5	26.8	16.3	19.0
	도시	31.5	25.5	14.1	13.6

자료 : 질병관리청(2011~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 1) 만 30세 이상 대상

2) 고혈압 유병률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을

3)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 총 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복용한 분을

4)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 :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인 분을

5) 당뇨병 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고 있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분을

2103 > 주관적 건강 인식

▶ 2020년 기준, 농어촌 주민의 48.0%가 본인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건강 인식은 [좋다](48.0%)는 평가가 [나쁘다](18.5%)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50.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103 | 주관적 건강 인식

단위 : %

연도	구분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8	농어촌	46.0	10.0	36.0	32.1	21.9	18.8	3.1
	도시	52.8	10.3	42.5	35.0	12.2	10.6	1.5
2010	농어촌	42.2	9.2	33.0	34.8	23.1	19.3	3.8
	도시	47.8	10.0	37.8	38.1	14.1	11.9	2.2
2012	농어촌	43.8	10.0	33.8	33.3	22.8	18.8	4.0
	도시	45.7	10.2	35.5	39.8	14.6	12.2	2.4
2014	농어촌	43.8	11.0	32.8	33.8	22.4	18.8	3.6
	도시	49.7	11.1	38.6	36.7	13.6	11.8	1.8
2016	농어촌	44.9	9.7	35.2	33.7	21.3	18.0	3.3
	도시	47.5	10.2	37.3	38.6	13.8	12.1	1.7
2018	농어촌	46.9	10.4	36.5	32.5	20.6	17.3	3.3
	도시	49.2	8.9	40.3	36.9	13.9	12.0	1.9
2020	농어촌	48.0	10.6	37.4	33.6	18.5	16.1	2.4
	도시	50.9	10.8	40.1	36.6	12.5	11.3	1.2

자료 : 통계청(2008~2020),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104> 건강검진 수진율

▶ 2019년 기준, 농어촌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69.1%

2019년 기준, 농어촌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69.1%로 도시(68.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 표 2104 - (1) | 건강검진 수진율(1)

단위: 명, %

연도	구분	N	분율	표준오차
1998	농어촌	3,107	44.9	1.4
	도시	5,716	49.8	1.0
2001	농어촌	1,651	45.1	1.7
	도시	6,411	48.1	0.9
2005	농어촌	1,564	50.2	1.6
	도시	6,236	46.7	1.0
2007	농어촌	862	52.6	2.5
	도시	2,116	47.5	1.4
2008	농어촌	1,801	53.5	1.7
	도시	5,002	47.8	1.1
2009	농어촌	1,916	57.1	1.7
	도시	5,556	49.8	1.0
2010	농어촌	1,368	55.1	2.3
	도시	4,883	53.8	1.0

자료: 질병관리청(1998~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998년 - 만 20세 이상 대상, 2001년 이후 - 만 19세 이상 대상

| 표 2104 - (2) | 건강검진 수진율(2)

단위: 명, %

연도	구분	N	분율	표준오차
2011	농어촌	1,214	59.9	1.8
	도시	4,809	52.2	1.0
2012	농어촌	1,127	55.3	2.0
	도시	4,478	56.2	1.1
2013	농어촌	1,036	58.8	1.5
	도시	4,319	61.1	1.0
2014	농어촌	949	60.5	2.3
	도시	4,069	58.2	1.2
2015	농어촌	970	62.5	2.3
	도시	4,135	61.1	1.0
2016	농어촌	1,127	63.7	1.9
	도시	4,705	64.9	0.9
2017	농어촌	1,057	63.3	2.6
	도시	4,780	68.8	0.9
2018	농어촌	1,067	68.8	2.2
	도시	4,915	68.2	0.9
2019	농어촌	1,168	69.1	1.7
	도시	4,760	68.1	1.0

자료: 질병관리청(2011~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만 19세 이상 대상

2105> 월 평균 보건의료비

▶ 2020년 기준, 농가의 월 평균 보건의료비는 221,000원, 어가는 201,181원

2020년 기준, 농가의 월 평균 보건의료비는 221,000원으로 어가(201,181원)에 비해 높은 반면, 도시근로자가구(263,413원)에 비해 낮았다.

| 표 2105 - (1) | 월 평균 보건의료비(1)

단위: 원

연도	구분	월 평균 보건의료비
2007	농가	143,031
	어가	128,167
	도시근로자가구	123,555
2008	농가	153,203
	어가	137,000
	도시근로자가구	131,529
2009	농가	161,945
	어가	145,822
	도시근로자가구	142,343
2010	농가	167,058
	어가	163,292
	도시근로자가구	151,101
2011	농가	161,310
	어가	175,174
	도시근로자가구	159,985
2012	농가	162,980
	어가	167,673
	도시근로자가구	164,019

자료: 통계청(2007~2012),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도시)」

주: 1) 2008년 이전 - 구분류 기준, 2009년 이후 - 신분류 기준

2) 전국 2인 이상 농가,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 대상

| 표 2105 - (2) | 월 평균 보건의료비(2)

단위: 원

연도	구분	월 평균 보건의료비
2013	농가	174,851
	어가	188,717
	도시근로자가구	163,456
2014	농가	179,512
	어가	188,831
	도시근로자가구	173,790
2015	농가	179,091
	어가	203,701
	도시근로자가구	174,720
2016	농가	195,954
	어가	232,535
	도시근로자가구	180,390
2017	농가	196,771
	어가	234,544
	도시근로자가구	-
2018	농가	198,437
	어가	207,886
	도시근로자가구	-
2019	농가	213,728
	어가	208,608
	도시근로자가구	241,134
2020	농가	221,000
	어가	201,181
	도시근로자가구	263,413

자료: 통계청(2013~2020),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도시)」

주: 1) 2008년 이전 - 구분류 기준, 2009년 이후 - 신분류 기준

2) 전국 2인 이상 농가,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 대상

2106 >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 2019년 기준, 농어촌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치과' 7.0%, '병의원' 1.2%

2019년 기준, 농어촌의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치과' 7.0%, '병의원' 1.2%로 도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106 - (1) |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1)

단위: 명, %

연도	구분	병의원			치과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07	농어촌	188	20.0	3.9	326	34.8	3.7
	도시	452	22.8	3.1	773	41.9	2.7
2008	농어촌	456	28.0	2.5	729	45.5	2.3
	도시	1,165	21.9	1.6	2,172	39.0	1.4
2009	농어촌	529	21.7	2.8	850	42.0	2.3
	도시	1,319	25.3	1.5	2,586	45.1	1.4
2010	농어촌	360	16.0	2.5	527	34.6	3.6
	도시	855	17.3	1.5	1,820	32.5	1.6
2011	농어촌	263	19.7	3.8	439	32.1	2.7
	도시	837	17.1	1.4	1,735	33.6	1.4
2012	농어촌	226	13.1	2.6	384	31.6	3.3
	도시	709	23.1	2.2	1,579	36.6	1.7
2013	농어촌	140	21.3	4.4	341	37.9	3.0
	도시	566	27.8	2.4	1,290	35.4	2.0

자료: 질병관리청(2007~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2013년 까지 최근 1년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이 병의원/치과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을 제시함

| 표 2106 - (2) |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2)

단위: 명, %

연도	구분	병의원			치과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14	농어촌	952	2.2	0.6	997	11.0	1.3
	도시	4,079	3.0	0.3	4,192	11.1	0.7
2015	농어촌	970	3.1	0.7	1,041	9.4	1.6
	도시	4,138	2.7	0.3	4,361	9.5	0.6
2016	농어촌	1,127	1.8	0.4	1,161	6.5	1.2
	도시	4,707	1.7	0.2	4,851	6.4	0.5
2017	농어촌	1,020	1.8	0.6	938	9.1	1.2
	도시	4,598	1.4	0.2	4,044	6.9	0.6
2018	농어촌	1,040	1.7	0.6	909	9.4	1.3
	도시	4,786	1.3	0.2	4,008	7.8	0.6
2019	농어촌	1,154	1.2	0.3	961	7.0	1.0
	도시	4,684	1.4	0.2	3,862	7.7	0.6

자료: 질병관리청(2014~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2014년부터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우의 미충족의료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로' 분율을 제시함

2107 >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자살 생각률은 6.9%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자살 생각률은 6.9%로 도시(4.3%)에 비해 높았다.

| 표 2107 |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자살 생각률			자살 생각자의 자살시도율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07	농어촌	860	16.0	2.1	158	11.5	2.4
	도시	2,113	14.7	1.1	340	3.4	0.9
2008	농어촌	1,798	19.8	1.3	384	9.3	2.3
	도시	4,998	16.9	0.7	930	5.6	0.8
2009	농어촌	1,920	18.1	1.2	406	4.6	1.2
	도시	5,558	16.0	0.7	942	7.2	1.0
2010	농어촌	1,366	18.3	1.3	260	3.1	1.1
	도시	4,886	14.0	0.7	683	6.6	1.1
2011	농어촌	1,214	16.2	1.2	225	5.2	1.7
	도시	4,812	13.4	0.7	657	6.0	1.3
2012	농어촌	1,124	15.2	1.2	184	3.0	1.4
	도시	4,467	12.9	0.6	604	5.0	1.0
2013	농어촌	1,031	3.6	0.6	-	-	-
	도시	4,308	4.5	0.4	-	-	-
2015	농어촌	1,041	6.2	0.8	-	-	-
	도시	4,365	4.9	0.4	-	-	-
2017	농어촌	1,123	6.9	1.6	-	-	-
	도시	4,991	4.3	0.3	-	-	-

자료: 질병관리청(2007~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만 19세 이상 대상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2019년 기준, 농어촌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2.4%

2019년 기준, 농어촌에서 정신문제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층이 2.4%로 도시(3.5%)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108 |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연도	구분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						우울증상 경험자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2008	농어촌	1,796	2.0	756	1.2	1,040	2.7	317	5.7	98	5.2	219	6.1
	도시	4,998	2.1	2,081	1.4	2,917	2.7	773	8.7	209	8.3	564	8.9
2009	농어촌	1,920	1.6	845	0.8	1,075	2.4	320	6.0	92	4.0	228	6.9
	도시	5,560	2.4	2,391	1.7	3,169	3.1	886	8.7	261	5.5	625	10.4
2010	농어촌	1,366	1.4	595	1.5	771	1.3	197	4.4	57	2.0	140	5.9
	도시	4,889	2.4	2,109	1.2	2,780	3.5	628	10.9	163	8.0	465	12.1
2011	농어촌	1,214	3.2	527	3.0	687	3.3	178	15.1	63	21.9	115	10.3
	도시	4,812	2.2	2,033	1.6	2,779	2.7	640	9.0	187	6.6	453	10.4
2012	농어촌	1,125	2.6	483	2.8	642	2.3	168	8.5	59	12.6	109	5.0
	도시	4,466	2.5	1,826	0.9	2,640	3.9	580	10.1	157	4.3	423	12.7
2013	농어촌	1,030	0.9	452	0.0	578	1.9	-	-	-	-	-	-
	도시	4,306	1.3	1,802	1.0	2,504	1.6	-	-	-	-	-	-
2015	농어촌	1,041	1.9	473	1.0	568	2.9	-	-	-	-	-	-
	도시	4,366	2.7	1,879	1.9	2,487	3.4	-	-	-	-	-	-
2017	농어촌	1,124	2.2	507	1.9	617	2.5	-	-	-	-	-	-
	도시	4,992	2.9	2,211	2.6	2,781	3.1	-	-	-	-	-	-
2018	농어촌	1,123	3.3	505	1.0	618	5.7	-	-	-	-	-	-
	도시	5,062	2.8	2,208	1.9	2,854	3.6	-	-	-	-	-	-
2019	농어촌	1,232	2.4	565	2.2	667	2.6	-	-	-	-	-	-
	도시	4,960	3.5	2,180	2.7	2,780	4.3	-	-	-	-	-	-

자료: 질병관리청(2008~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만 19세 이상 대상

2109 > 농작업 손상

▶ 2019년 기준,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7%, 손상 종류로 '골절'(39.2%)이 가장 많음

2019년 기준, 농업인이 경험한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7%였으며, 농기계 및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각 3.2%, 2.8%의 손상 발생률을 보였다.

| 표 2109 - (1) |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농기계	사용함	43,441	3.9	27,130	2.4	33,699	3.0	27,909	3.2
	사용 안함	21,294	2.1	11,299	1.2	7,979	1.0	20,496	2.2
	총 계	64,735	3.0	38,429	1.9	41,678	2.2	48,405	2.7
농약	사용함	49,331	3.6	26,777	1.9	35,111	2.6	38,285	2.8
	사용 안함	15,465	2.1	11,488	1.7	6,567	1.2	10,120	2.2
	총 계	64,796	3.0	38,265	1.9	41,678	2.2	48,405	2.7

자료 : 농촌진흥청(2013~2019),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주 : 1) 업무상 손상자 수 - 손상으로 인해 1일 이상 휴업한 농업인 수

2) 업무상 손상 발생률 - 업무상 손상자 수/농업인 수×100

업무상 손상 종류로는 ‘골절’ 비율이 3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근육/인대 파열(좌상)’(12.4%), ‘뱀/접질림(염좌)’(10.8%), ‘허리/목 디스크 파열’(7.5%), ‘베임(열상/개방상)’(6.1%), ‘타박상/멍’(6.0%) 순이었다.

| 표 2109 - (2)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손상건수	비율	손상건수	비율	손상건수	비율	손상건수	비율
총계	67,520	100.0	38,497	100.0	41,048	100.0	48,485	100.0
굶힘/찰과상	2,527	3.7	753	2.0	1,313	3.2	1,486	3.1
찢림	848	1.3	1,113	2.9	1,336	3.3	409	0.8
타박상/멍	7,778	11.5	1,548	4.0	3,806	9.3	2,894	6.0
뱀/접질림(염좌)	6,765	10.0	2,569	6.7	2,248	5.5	5,218	10.8
베임(열상/개방상)	4,349	6.4	2,589	6.7	3,423	8.3	2,939	6.1
신체 절단	1,194	1.8	875	2.3	1,200	2.9	797	1.6
골절	22,027	32.6	15,180	39.4	14,386	35.0	18,992	39.2
탈구	796	1.2	682	1.8	106	0.3	266	0.5
근육/인대 파열(좌상)	4,870	7.2	4,750	12.3	5,481	13.4	6,026	12.4
허리/목 디스크 파열	4,160	6.2	3,309	8.6	4,002	9.7	3,614	7.5
일시적인 의식상실(뇌진탕 등)	1,292	1.9	813	2.1	939	2.3	1,555	3.2
농약 중독	1,453	2.2	331	0.9	226	0.6	311	0.6
동물에 물림(교상)	2,184	3.2	605	1.6	890	2.2	731	1.5
일시적/영구적 청력상실	155	0.2	157	0.4	0	0.0	0	0.0
일시적/영구적 시력상실	0	0.0	59	0.2	85	0.2	0	0.0
화상	181	0.3	74	0.2	90	0.2	0	0.0
산소 결핍/질식	134	0.2	0	0.0	0	0.0	67	0.1
감전	0	0.0	0	0.0	0	0.0	0	0.0
복합 손상	3,309	4.9	906	2.4	245	0.6	1,350	2.8
기타	3,498	5.2	2,184	5.7	1,274	3.1	1,827	3.8

자료 : 농촌진흥청(2013~2019),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주 : 업무상 손상건수 - 1일 이상 휴업한 손상 발생 수

2110 > 병상 수

▶ 2020년 기준, 농어촌의 병상 수는 130,453개로 도시(585,750개)의 1/4 수준

2020년 기준, 농어촌의 병상 수는 총 130,453개로 도시(585,750개)의 1/4 수준이었다.

의료기관 유형별 병상 수로는 ‘요양병원’이 65,784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병원’(32,664개), ‘정신병원’(14,174개), ‘종합병원’(9,386개), ‘의원’(6,222개) 순이었다.

| 표 2110 - (1) | 병상 수(1)

단위: 개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구분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계	74,970	375,149	62,287	328,300	65,584	432,718	81,497	442,333	72,338	492,234
종합병원	4,581	121,259	5,016	123,657	5,277	125,324	9,136	123,961	5,893	131,835
요양병원	14,393	52,334	12,789	64,181	15,122	74,381	21,150	91,677	21,144	114,150
병원	25,847	86,545	23,674	98,980	24,066	106,722	24,182	106,488	24,125	121,400
의원	17,432	78,860	9,611	88,231	9,289	82,473	13,181	75,023	8,874	77,703
결핵병원	0	1,373	0	1,355	0	1,345	0	1,318	0	1,318
한센병원	1,000	0	1,000	0	1,000	0	1,000	0	1,000	0
정신병원	10,461	26,253	9,479	30,080	10,197	31,513	11,647	32,634	10,544	33,341
치과병원	29	220	24	229	25	266	25	303	24	327
치과의원	0	17	0	14	0	39	0	45	0	90
한방병원	880	7,365	377	8,233	358	8,336	926	8,565	438	10,205
한의원	154	301	158	704	63	881	63	881	76	1,228
부속의원	191	469	158	704	187	1,361	187	1,361	220	548
조산원	2	153	1	75	0	77	0	77	0	89

자료: 보건복지부(2007~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 표 2110 - (2) | 병상 수(2)

단위 : 개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구분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계	77,050	521,794	74,776	558,311	77,597	590,833	127,663	546,878	129,503	562,842
종합병원	5,882	132,968	5,982	135,443	5,797	139,185	8,459	138,415	9,032	139,986
요양병원	25,362	135,692	26,842	165,817	29,538	184,448	54,999	174,847	57,684	188,689
병원	25,874	129,146	27,464	128,397	25,771	137,803	50,581	139,299	49,839	140,286
의원	8,251	73,618	6,659	72,982	6,220	69,918	9,742	69,206	9,003	66,167
결핵병원	0	1,286	0	1,128	0	932	0	932	0	858
한센병원	700	0	700	0	700	0	700	0	700	0
정신병원	10,486	35,027	6,644	39,231	9,069	40,302	2,277	4,966	2,215	6,433
치과병원	24	293	24	283	0	277	30	256	30	237
치과의원	0	61	0	92	0	76	0	61	0	80
한방병원	278	11,669	279	12,309	338	13,793	579	15,922	785	17,194
한의원	52	1,485	95	1,851	78	2,315	261	2,770	180	2,740
부속의원	140	467	85	505	86	1,635	35	135	35	133
조산원	1	82	2	273	0	149	0	69	0	39

자료 : 보건복지부(2012~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 표 2110 - (3) | 병상 수(3)

단위: 개

연도	2017		2018		2019		2020	
구분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계	131,261	572,147	134,350	574,022	131,137	573,942	130,453	585,750
종합병원	9,182	140,978	9,748	142,356	9,422	143,555	9,386	145,824
요양병원	61,067	198,663	65,972	206,497	64,903	208,381	65,784	211,251
병원	36,353	131,617	35,052	128,556	33,590	127,339	32,664	131,408
의원	8,290	60,514	7,311	55,452	6,565	50,575	6,222	49,034
결핵병원	0	997	0	994	0	988	0	972
한센병원	700	0	700	0	700	0	128	0
정신병원	14,628	16,462	14,376	17,319	14,103	17,213	14,174	16,937
치과병원	30	233	32	230	36	416	36	220
치과의원	0	94	0	95	0	103	0	94
한방병원	681	19,501	823	19,215	1,256	21,538	1,396	25,159
한의원	199	2,899	236	3,132	400	3,719	495	4,732
부속의원	131	153	100	138	162	85	168	85
조산원	0	36	0	38	0	30	0	34

자료 : 보건복지부(2017~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2111 > 보건의료기관 수

▶ 2020년 기준,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8,030개소로 도시(62,121개소)의 1/8 수준

2020년 기준,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030개소로 도시(62,121개소)의 1/8 수준이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이 3,50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치과의원’(1,895개소), ‘한의원’(1,855개소) 순이었다.

| 표 2111 - (1) | 보건의료기관 수(1)

단위: 개소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구분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계	6,857	45,997	4,641	49,524	4,976	50,993	6,411	49,833	5,034	53,462
종합병원	20	282	22	291	22	290	30	282	23	296
요양병원	137	456	130	560	341	621	177	672	170	805
병원	187	758	170	894	175	954	185	969	170	1,075
의원	3,516	22,749	2,301	24,280	2,344	24,760	3,131	24,203	2,383	25,526
결핵병원	0	3	0	3	0	3	0	3	0	3
한센병원	1	0	1	0	1	0	1	0	1	0
정신병원	28	19	26	92	28	102	38	105	32	112
치과병원	4	147	20	164	3	175	5	183	3	196
치과의원	1,543	11,737	947	12,671	1,007	13,064	1,444	12,630	1,118	13,884
한방병원	17	121	8	131	8	143	15	144	8	170
한의원	1,375	9,520	997	10,251	1,024	10,681	1,354	10,450	1,100	11,205
부속의원	25	157	18	157	21	164	29	157	24	156
조산원	4	48	1	30	2	36	2	35	2	34

자료: 보건복지부(2007~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 표 2111 - (2) | 보건의료기관 수(2)

단위: 개소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구분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계	5,145	54,374	4,511	56,388	4,766	58,909	7,387	56,032	7,470	57,529
종합병원	23	300	23	301	21	300	27	310	28	313
요양병원	189	898	190	1,038	205	1,099	336	999	346	1,040
병원	178	1,149	164	1,167	170	1,266	273	1,219	271	1,239
의원	2,432	26,330	2,108	26,708	2,233	28,456	3,211	26,152	3,302	26,855
결핵병원	0	3	0	3	0	4	0	3	0	3
한센병원	1	0	1	0	0	1	1	0	1	0
정신병원	33	123	25	135	32	138	14	23	13	29
치과병원	3	199	3	197	4	198	6	207	6	217
치과의원	1,130	13,670	1,007	14,572	1,018	14,915	1,672	14,912	1,734	15,262
한방병원	5	194	5	198	6	228	10	250	12	270
한의원	1,118	11,322	959	11,857	1,051	12,084	1,706	11,899	1,723	12,137
부속의원	30	154	23	168	24	189	129	29	32	138
조산원	3	32	3	44	2	31	2	29	2	26

자료: 보건복지부(2012~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 표 2111 - (3) | 보건의료기관 수(3)

단위: 개소

연도	2017		2018		2019		2020	
구분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계	7,687	58,944	7,853	59,994	7,962	61,156	8,030	62,121
종합병원	28	316	30	323	29	327	29	332
요양병원	365	1,057	377	1,071	375	1,093	378	1,093
병원	232	1,232	233	1,228	227	1,259	224	1,288
의원	3,397	27,561	3,457	28,215	3,506	28,935	3,508	29,524
결핵병원	0	3	0	3	0	3	0	3
한센병원	1	0	1	0	1	0	1	0
정신병원	46	64	46	68	45	69	46	66
치과병원	6	225	6	231	7	232	7	228
치과의원	1,782	15,601	1,828	15,836	1,869	16,086	1,895	16,358
한방병원	12	300	13	294	20	333	24	387
한의원	1,769	12,386	1,809	12,520	1,829	12,613	1,855	12,632
부속의원	47	175	52	185	54	187	63	192
조산원	2	24	1	20	0	19	0	18

자료 : 보건복지부(2017~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2112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2020년 농어촌 기준, '종합병원'의 66.7%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 있음

2020년 기준, 농어촌 주민들은 '보건소'(90.0%), '보건진료소'(86.0%), '약국'(71.8%), '일반 병·의원'(57.1%), '한방 병·의원'(51.9%), '치과 병·의원'(42.8%)을 읍면 내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은 절반이 넘는 66.7%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12 - (1)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1)

단위 : %

2005									
이동수단	이동 시간								
		15분미만	15~30분	30분 이상					
걸어서	15.3	9.5	3.4	2.3					
자동차	69.9	24.7	25.6	19.6					
기타	14.9	4.6	5.5	4.8					
2010									
구분	(우리) 행정리 안에 있음(①)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있음(②)	다른 지역(①, ② 이외)에 있음			이용 하지 않음			
			15분 미만	15~30분	30분 이상				
약국	11.1	50.1	37.8	42.1	40.9	17.0	0.9		
보건진료소	9.1	32.0	27.6	52.2	31.4	16.4	31.3		
보건소	9.6	62.5	23.6	52.7	33.1	14.2	4.2		
병·의원, 한의원	8.3	39.4	51.2	29.2	43.8	27.0	1.1		
종합병원	1.0	4.6	89.7	6.6	26.2	67.2	4.7		
2015									
구분	행정리 안에 있음	다른 지역에 있음							이용 하지 않음
		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40분 미만	40-50분 미만	50-60분 미만	1시간 이상	
약국	7.6	31.4	40.2	13.6	5.0	1.2	0.2	0.8	0.1
보건진료소	3.0	28.2	27.1	8.2	3.1	1.1	0.3	0.3	28.9
보건소	3.3	41.3	37.3	8.9	2.7	0.6	0.1	0.3	5.4
병·의원, 한의원	5.7	25.9	37.8	17.6	8.5	2.4	0.5	1.3	0.3
종합병원	0.4	3.9	12.0	20.0	23.0	14.2	6.8	15.2	4.5

자료 : 통계청(2005~2015), 「농림어업총조사」

| 표 2112 - (2)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

단위: %

2020										
구분	행정리 내	읍면 내 (행정 리 외)	다른 지역에 있음							
				10분 미만	10- 20분 미만	20- 30분 미만	30- 40분 미만	40- 50분 미만	50- 60분 미만	1시간 이상
약국	8.6	63.2	28.2	1.4	11.6	8.8	4.3	1.1	0.2	0.8
보건진료소	8.4	77.6	14.0	0.5	4.6	5.0	2.5	0.8	0.2	0.5
보건소	7.2	82.8	10.0	0.4	3.2	3.6	2.1	0.5	0.1	0.2
한방 병·의원	4.9	47.0	48.1	1.3	14.7	16.0	10.5	2.7	0.7	2.2
일반 병·의원	5.8	51.3	42.9	1.4	14.1	14.4	9.0	2.2	0.4	1.4
치과 병·의원	4.0	38.8	57.2	1.5	16.2	19.5	13.5	3.5	0.8	2.2
종합병원	0.2	3.6	96.2	0.6	8.7	20.1	25.3	16.8	8.0	16.6

자료: 통계청(2020), 「농림어업총조사」

2113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 2020년 기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불만족 이유는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25.9%)

2020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66.9%), '병원'(64.7%), '한방 병의원'(61.9%), '의원'(59.1%), '약국'(50.5%)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113 - (1)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1)

단위 : %

연도	구분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한방병원)			보건소			약국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2008	농어촌	62.9	26.6	10.5	54.4	38.7	6.8	55.0	37.9	7.0	75.6	21.2	3.2	30.5	63.2	6.4
	도시	52.0	33.3	14.7	47.3	44.1	8.6	55.2	38.1	6.7	50.9	38.3	10.7	30.8	61.9	7.2
2010	농어촌	58.4	29.8	11.8	53.5	44.2	7.7	52.0	38.7	9.3	71.2	26.3	2.5	36.5	52.0	11.6
	도시	51.3	33.4	15.2	46.1	43.1	9.7	56.6	35.7	7.6	50.6	35.0	14.4	32.3	58.4	9.3
2012	농어촌	58.8	30.2	10.9	54.5	37.7	7.8	52.0	35.7	9.3	70.0	25.8	4.2	28.9	68.9	2.2
	도시	51.7	34.4	13.9	45.2	45.6	9.2	56.6	36.2	7.6	56.7	34.2	9.1	28.2	65.9	5.9
2014	농어촌	60.4	34.4	12.6	49.7	43.6	6.7	55.8	37.1	7.1	72.6	23.3	4.1	47.3	50.8	1.9
	도시	53.2	34.4	12.6	47.5	45.0	7.4	54.0	38.6	7.4	62.2	33.9	4.0	30.0	66.2	3.8
2016	농어촌	59.5	31.4	9.1	58.2	36.1	5.7	61.5	30.1	8.4	68.5	28.0	3.5	31.2	63.2	5.7
	도시	51.8	35.3	13.0	47.3	44.8	7.8	51.9	39.9	8.1	55.1	35.7	9.2	33.2	62.5	4.3
2018	농어촌	60.9	30.5	8.6	58.5	35.3	6.2	64.5	31.1	4.4	79.0	17.4	3.6	46.1	52.7	1.2
	도시	57.0	31.9	11.1	53.2	39.4	7.4	56.0	39.0	5.0	63.2	31.9	4.8	40.9	56.0	3.1

자료 : 통계청(2008~2018),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113 - (2)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2)

단위 : %

연도	구분	병원			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			약국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2020	농어촌	64.7	27.1	8.2	59.1	34.3	6.7	61.9	30.9	7.2	66.9	29.4	3.7	50.5	48.5	1.0
	도시	62.8	28.4	8.9	57.6	35.8	6.6	59.9	31.0	9.0	60.4	30.9	8.7	53.9	44.5	1.6

자료 : 통계청(2020), 「사회조사」

주 : 1) 13세 이상 인구 대상

2) 2020년 이후 '종합병원'은 '병원', '병의원'은 '의원', '한의원(한방병원)'은 '한방 병의원'으로 변경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는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25.9%), ‘의료비(약값)가 높다’(17.4%), ‘치료결과가 미흡하다’(16.4%), ‘집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다’(11.1%)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113 - (3) |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연도	구분	불친절하다	의료비(약값)가 높다	치료결과가 미흡하다	진료가 불성실하다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	의료 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검사 등) 많이 한다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집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다	기타
2008	농어촌	13.4	27.9	20.3	9.0	15.7	5.9	4.1	3.7	-	0.0
	도시	11.7	32.8	19.9	9.4	16.4	2.0	5.6	1.6	-	0.6
2010	농어촌	8.4	30.7	21.1	6.7	19.8	5.1	5.1	2.9	-	0.2
	도시	11.7	29.9	17.9	8.0	19.4	2.6	8.5	1.7	-	0.3
2012	농어촌	13.5	24.3	18.1	10.1	16.3	6.7	5.5	5.2	-	0.2
	도시	11.1	28.2	19.7	11.1	17.9	2.4	7.9	1.4	-	0.2
2014	농어촌	10.3	17.5	24.2	8.6	22.5	5.1	5.8	5.2	-	0.7
	도시	11.2	26.1	20.0	9.6	19.8	2.2	9.1	2.0	-	0.1
2016	농어촌	15.6	19.5	20.7	9.2	17.1	7.1	6.4	4.2	-	0.3
	도시	11.5	24.9	20.0	9.8	19.9	1.8	9.8	1.7	-	0.7
2018	농어촌	11.5	22.1	17.3	7.0	17.7	4.9	5.8	6.2	7.6	-
	도시	9.1	25.1	21.7	8.1	20.6	2.0	8.2	2.7	2.1	0.5
2020	농어촌	6.7	17.4	16.4	5.7	25.9	6.3	6.3	4.3	11.1	-
	도시	11.3	24.2	16.9	9.2	22.5	1.7	9.2	2.0	2.7	0.3

자료 : 통계청(2008~2020), 「사회조사」

주 : 1) 의료서비스 불만족자 대상, 주된 응답

2)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3) 2018년 이후 '집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다' 추가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2200>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 2201> 치매노인 비율
- 2202> 노인의 의존 소득원
- 2203> 노인일자리 참여
- 2204> 영유아 비율
- 2205> 유치원 취원율
- 2206> 보육시설 현황
- 2207> 장애인 추가비용
- 2208> 결혼 이민자 현황



2201 > 치매노인 비율

▶ 2019년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노인 수는 794,280명, 치매 유병률은 10.3%

2019년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노인 수는 794,280명으로 10.3%의 치매 유병률을 보였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추정 치매노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 2201 | 치매노인 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65세 이상 인구	추정 치매노인 수						치매 유병률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2015	전국	6,624,120	648,223	46,335	47,149	135,939	169,617	249,183	9.8
2016	전국	6,781,159	661,707	30,351	67,714	167,739	182,588	213,315	9.8
2017	전국	7,066,201	705,473	31,427	67,856	179,075	195,704	231,412	10.0
2018	전국	7,389,480	750,488	32,602	69,854	188,143	208,192	251,699	10.2
2019	전국	7,718,616	794,280	33,981	73,370	190,019	221,781	275,130	10.3

자료 : 중앙치매센터(2015~2019), 「대한민국 치매현황」

2202 > 노인의 의존 소득원

▶ 2021년 기준, 농어촌(72.3%) 및 도시(72.6%) 모두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높으며, 농어촌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68.2%)이 주된 소득원

2021년 기준,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72.3%), [정부 및 사회단체](14.7%), [자녀 또는 친척 지원](13.0%) 순으로 나타나 도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농어촌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68.2%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시는 농어촌에 비해 '연금, 퇴직금'(+9.0%p), '재산소득'(+3.7%p) 비율이 높은 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14.6%p) 비율은 낮았다.

| 표 2202 | 노인의 의존 소득원

단위 : %

연도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기타			
2007	농어촌	66.0	81.7	5.6	7.8	4.8	-	28.7	5.2	0.0
	도시	59.2	56.5	14.2	20.4	8.9	-	36.6	4.1	0.1
2009	농어촌	63.9	73.0	5.8	17.1	4.0	-	27.1	9.0	-
	도시	58.3	48.3	16.8	27.9	7.1	-	33.2	8.4	0.1
2011	농어촌	63.5	70.6	4.9	17.5	7.0	-	28.6	7.8	0.1
	도시	58.8	42.3	15.7	32.0	10.0	-	33.4	7.6	0.2
2013	농어촌	65.1	74.8	6.0	13.6	5.6	-	25.8	9.1	0.0
	도시	63.1	44.4	14.7	29.3	11.6	-	29.9	7.0	0.1
2015	농어촌	66.1	69.7	7.0	17.7	5.6	-	19.9	13.9	0.0
	도시	66.7	48.9	13.4	31.1	6.6	-	24.1	9.1	0.1
2017	농어촌	68.0	67.0	5.4	21.8	5.8	-	20.3	11.6	0.0
	도시	70.5	49.9	12.0	30.3	7.8	-	20.1	9.3	0.0
2019	농어촌	69.8	67.4	5.4	21.6	5.5	0.1	15.5	14.7	-
	도시	69.9	54.7	11.0	27.9	6.3	0.0	18.5	11.6	-
2021	농어촌	72.3	68.2	5.0	23.0	3.8	-	13.0	14.7	-
	도시	72.6	53.6	8.7	32.0	5.8	0.0	14.5	12.9	-

자료 : 통계청(2007~2021), 「사회조사」

주 : 60세 이상 인구 대상

2203 > 노인일자리 참여

▶ 2020년 기준, 농어촌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15.8%

2020년 기준, 농어촌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층은 10.6%,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5.2%, 신청했으나 참여기회가 없었던 층은 5.7%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7.1%)이거나 참여경험(6.1%)이 있는 층은 13.2%로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203 | 노인일자리 참여

단위 : %

연도	구분	참여 실태			
		현재 참여 중	참여경험 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비신청
2011	농어촌	3.1	7.3	3.9	85.7
	도시	4.5	6.6	9.7	79.2
2014	농어촌	3.7	4.0	3.2	89.1
	도시	4.5	4.5	5.0	86.0
2017	농어촌	7.5	4.5	2.2	85.8
	도시	6.3	4.6	4.1	85.0
2020	농어촌	10.6	5.2	5.7	78.5
	도시	7.1	6.1	6.0	80.8

자료 : 보건복지부(2011~2020), 「노인실태조사」

주 :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4> 영유아 비율

▶ 2020년 기준, 농어촌의 영유아 비율은 3.7%

2020년 기준, 농어촌의 0~5세 영유아 비율은 3.7%로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 2204 - (1) | 영유아 비율(1)

단위 : %

연도	구분	총인구	0~5세		
				0~3세	4~5세
2007	농어촌	100.0	5.3	3.4	1.8
	도시	100.0	5.8	3.8	2.0
2008	농어촌	100.0	5.2	3.4	1.8
	도시	100.0	5.7	3.7	2.0
2009	농어촌	100.0	5.2	3.5	1.7
	도시	100.0	5.6	3.7	1.9
2010	농어촌	100.0	5.1	3.5	1.6
	도시	100.0	5.5	3.7	1.8
2011	농어촌	100.0	5.1	3.4	1.7
	도시	100.0	5.6	3.7	1.9
2012	농어촌	100.0	5.1	3.4	1.8
	도시	100.0	5.6	3.7	1.9
2013	농어촌	100.0	4.9	3.3	1.6
	도시	100.0	5.5	3.7	1.8
2014	농어촌	100.0	4.9	3.2	1.7
	도시	100.0	5.4	3.6	1.8

자료 : 행정안전부(2007~2014), 「주민등록 인구통계」

| 표 2204 - (2) | 영유아 비율(2)

단위 : %

연도	구분	총인구	0~5세		
				0~3세	4~5세
2015	농어촌	100.0	4.8	3.2	1.7
	도시	100.0	5.4	3.6	1.9
2016	농어촌	100.0	4.8	3.1	1.7
	도시	100.0	5.4	3.5	1.9
2017	농어촌	100.0	4.6	2.9	1.6
	도시	100.0	5.1	3.3	1.8
2018	농어촌	100.0	4.3	2.7	1.5
	도시	100.0	4.8	3.1	1.7
2019	농어촌	100.0	4.0	2.5	1.5
	도시	100.0	4.6	2.8	1.7
2020	농어촌	100.0	3.7	2.3	1.5
	도시	100.0	4.3	2.6	1.7

자료 : 통계청(2015~2020), 「인구총조사」

2205 유치원 취원율

▶ 2020년 기준,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8.6%

2020년 기준,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8.6%로 도시(50.5%)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205 - (1) | 유치원 취원율(1)

단위: 명, %

연도	구분	유치원 취원 대상자	유치원 재원자	유치원 취원율
2007	농어촌	261,908	95,242	36.4
	도시	1,241,154	446,308	36.0
2010	농어촌	241,045	90,099	37.4
	도시	1,068,985	448,488	42.0
2011	농어촌	212,865	92,009	43.2
	도시	1,088,943	472,825	43.4
2012	농어촌	246,339	97,058	39.4
	도시	1,162,159	516,691	44.5
2013	농어촌	234,651	106,015	45.2
	도시	1,152,386	552,173	47.9
2014	농어촌	237,705	105,105	44.2
	도시	1,157,489	547,441	47.3
2015	농어촌	244,483	110,373	45.1
	도시	1,192,872	572,180	48.0
2016	농어촌	239,790	113,103	47.2
	도시	1,165,697	591,035	50.7

자료 : 행정안전부(2007~2016), 「주민등록 인구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07~2016),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1) 유치원 취원 대상자는 각 지역 만 3~5세 인구수임

2) 취원율 = 재원자 수/취원대상자 x 100

3)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대도시+중소도시를 합한 수치임

| 표 2205 - (2) | 유치원 취원율(2)

단위: 명, %

연도	구분	유치원 취원 대상자	유치원 재원자	유치원 취원율
2017	농어촌	235,892	113,621	48.2
	도시	1,134,081	581,010	51.2
2018	농어촌	225,424	110,622	49.1
	도시	1,099,390	565,376	51.4
2019	농어촌	218,433	104,902	48.0
	도시	1,078,170	529,011	49.1
2020	농어촌	204,842	99,491	48.6
	도시	1,015,204	513,047	50.5

자료: 행정안전부(2017~2020), 「주민등록 인구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17~2020),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1) 유치원 취원 대상자는 각 지역 만 3-5세 인구수임

2) 취원율 = 재원자 수/취원대상자 x 100

3)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대도시+중소도시를 합한 수치임

2206> 보육시설 현황

▶ 2020년 기준, 농어촌의 영유아 보육시설(7,111개)은 도시의 1/4 수준

2020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은 7,111개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도시(28,241개)의 1/4 수준이었다.

농어촌의 보육시설 종사자 수는 69,296명으로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도시(256,373명)의 1/3 수준이었다. 농어촌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289,556명으로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도시(954,840명)의 1/3 수준이었다.

| 표 2206 - (1)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1)

단위: 개소

연도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 외	민간개인			
2007	농어촌	4,901	352	673	346	2,145	1,342	1	42
	대도시	12,456	938	387	403	5,469	5,071	27	161
	중소도시	13,499	458	400	253	5,467	6,771	33	117
2008	농어촌	6,504	426	751	362	2,674	2,246	3	42
	대도시	13,018	921	384	389	5,482	5,628	29	185
	중소도시	13,977	479	323	218	5,150	7,651	33	123
2009	농어촌	6,996	468	764	358	2,775	2,576	7	48
	대도시	13,485	944	393	370	5,486	6,068	29	195
	중소도시	15,069	505	313	207	5,172	8,715	30	127
2010	농어촌	7,759	506	783	354	2,947	3,104	10	55
	대도시	14,034	977	389	343	5,558	6,519	34	214
	중소도시	16,228	551	296	191	5,284	9,744	30	132

자료: 보건복지부(2007~2010), 「보육통계」

| 표 2206 - (2)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2)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개인			
2011	농어촌	8,030	528	781	356	3,068	3,224	13	60
	대도시	14,591	999	387	327	5,630	6,968	41	239
	중소도시	17,221	589	294	187	5,436	10,530	35	150

자료 :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주 : 2011년 기준,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3)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3)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2	농어촌	8,477	555	773	363	3,178	3,509	19	80
	대도시	15,461	1,039	384	308	5,709	7,701	46	274
	중소도시	18,589	609	287	198	5,553	11,725	48	169
2013	농어촌	8,269	569	770	362	3,220	3,224	21	103
	대도시	15,852	1,120	383	302	5,746	7,927	56	619
	중소도시	19,649	643	286	204	5,785	12,481	52	198
2014	농어촌	8,265	587	754	358	3,244	3,178	24	120
	대도시	15,999	1226	378	287	5,720	7,985	64	339
	중소도시	19,478	676	288	207	5,858	12,155	61	233
2015	농어촌	8,216	606	754	363	3,267	3,053	27	146
	대도시	15,695	1,321	377	270	5,619	7,671	66	371
	중소도시	18,606	702	283	201	5,740	11,350	62	268

자료 : 보건복지부(2012~2015),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4)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4)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6	농어촌	8,048	625	746	356	3,228	2,885	27	181
	대도시	15,177	1,494	373	256	5,413	7,128	70	443
	중소도시	17,859	740	283	192	5,675	10,585	60	324
2017	농어촌	7,964	653	739	347	3,177	2,818	30	200
	대도시	14,843	1,720	373	235	5,251	6,700	73	491
	중소도시	17,431	784	280	189	5,617	10,138	61	362
2018	농어촌	7,769	695	733	341	3,061	2,691	29	219
	대도시	14,353	2,002	368	233	4,919	6,257	72	512
	중소도시	17,049	905	276	184	5,538	9,703	63	380
2019	농어촌	7,458	809	712	326	2,869	2,486	27	229
	대도시	13,618	2,325	361	205	4,467	5,657	70	533
	중소도시	16,295	1,190	270	176	5,232	8,974	62	391
2020	농어촌	7,111	918	697	312	2,692	2,230	26	236
	대도시	12,861	2,580	353	188	3,988	5,126	64	562
	중소도시	15,380	1,460	266	171	4,830	8,173	62	418

자료 : 보건복지부(2016~2020), 「보육통계」

주 : 2016년 기준,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협동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5) |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1)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 외	민간개인			
2007	농어촌	30,902	2,506	6,915	2,714	13,942	4,550	5	270
	대도시	68,892	8,835	4,548	2,776	34,318	16,937	154	1,324
	중소도시	69,791	4,287	4,557	2,197	34,828	22,680	186	1,056
2008	농어촌	38,653	3,092	7,490	2,657	17,237	11	7,899	267
	대도시	74,799	9,247	4,476	2,609	36,563	8,339	11,904	1,661
	중소도시	71,450	4,482	3,581	1,940	33,257	153	26,920	1,117
2009	농어촌	45,245	3,781	8,455	3,037	20,166	9,403	32	371
	대도시	82,568	10,507	4,827	2,870	39,804	22,454	161	1,945
	중소도시	79,099	5,109	3,760	2,081	35,698	31,006	155	1,290
2010	농어촌	51,110	4,215	8,870	3,075	22,594	11,827	42	487
	대도시	90,341	11,061	4,928	2,669	43,659	25,518	203	2,303
	중소도시	87,633	5,704	3,570	1,964	38,278	36,550	153	1,414

자료: 보건복지부(2007~2010), 「보육통계」

| 표 2206 - (6) |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2)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개인			
2011	농어촌	54,512	4,530	8,857	3,115	24,577	12,784	55	594
	대도시	97,617	11,541	5,015	2,646	46,959	28,544	248	2,664
	중소도시	96,506	6,158	3,619	1,963	41,243	41,583	182	1,758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주: 2011년 기준,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7) |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3)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2	농어촌	61,460	4,884	9,076	3,336	28,004	15,235	86	839
	대도시	111,076	12,183	5,284	2,616	52,339	35,125	299	3,230
	중소도시	111,701	6,658	3,651	2,142	45,896	50,913	229	2,212
2013	농어촌	63,928	5,292	9,423	3,488	30,481	14,021	99	1,124
	대도시	117,198	13,990	5,492	2,811	54,921	35,603	365	4,016
	중소도시	120,593	7,468	3,850	2,404	50,778	53,107	266	2,720
2014	농어촌	66,101	5,580	9,475	3,517	31,956	14,052	131	1,390
	대도시	120,925	15,340	5,616	2,757	56,227	36,059	421	4,505
	중소도시	124,791	8,057	3,954	2,475	53,764	52,836	304	3,371
2015	농어촌	68,523	5,804	9,362	3,543	33,418	14,421	157	1,818
	대도시	124,721	16,488	5,656	2,669	57,352	37,021	479	5,056
	중소도시	127,823	8,531	3,915	2,425	54,954	53,682	334	3,982

자료: 보건복지부(2012~2015),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8) |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4)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6	농어촌	69,040	6,025	9,303	3,511	33,731	14,070	157	2,243
	대도시	125,793	17,958	5,691	2,580	57,000	36,104	494	5,966
	중소도시	126,933	8,954	3,926	2,345	54,878	51,717	328	4,785
2017	농어촌	71,121	6,365	9,242	3,478	34,344	14,896	178	2,618
	대도시	127,559	20,242	5,693	2,449	56,316	35,567	521	6,771
	중소도시	131,537	9,491	3,910	2,327	56,260	53,713	367	5,469
2018	농어촌	71,398	7,038	9,354	3,502	33,891	14,492	182	2,939
	대도시	127,444	23,185	5,788	2,418	54,404	33,648	504	7,497
	중소도시	134,578	10,899	3,997	2,339	58,091	52,847	365	6,040
2019	농어촌	70,720	8,473	9,113	3,389	32,642	13,704	168	3,231
	대도시	126,158	27,373	5,740	2,367	50,346	31,676	500	8,156
	중소도시	134,566	14,590	3,982	2,306	56,356	50,383	375	6,574
2020	농어촌	69,296	9,903	8,858	3,288	30,800	12,799	160	3,488
	대도시	122,845	31,337	5,535	2,224	45,048	29,329	476	8,896
	중소도시	133,528	18,734	3,920	2,183	53,458	47,424	394	7,415

자료 : 보건복지부(2016~2020), 「보육통계」

주 : 2016년 기준,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협동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9) |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1)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 외	민간개인			
2007	농어촌	227,794	19,518	54,441	20,132	111,914	19,921	34	1,834
	대도시	443,670	68,506	34,116	19,362	245,412	68,064	671	7,539
	중소도시	428,469	31,117	29,654	16,412	255,158	89,638	739	5,751
2008	농어촌	264,423	22,571	56,137	20,069	133,177	30,671	58	1,740
	대도시	453,534	68,260	32,901	18,689	246,314	77,710	727	8,933
	중소도시	417,545	32,574	24,856	15,060	236,156	102,057	706	6,136
2009	농어촌	277,630	25,185	55,724	19,954	139,279	35,242	157	2,089
	대도시	465,344	70,072	32,432	18,096	248,600	85,284	769	10,091
	중소도시	432,075	34,399	24,182	14,668	235,166	116,317	729	6,614
2010	농어촌	307,963	27,447	58,344	19,849	154,732	44,654	213	2,724
	대도시	499,674	72,250	32,956	17,265	266,763	97,603	918	11,919
	중소도시	472,273	37,907	22,754	14,012	250,396	139,179	767	7,258

자료: 보건복지부(2007~2010), 「보육통계」

| 표 2206 - (10) |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2)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개인			
2011	농어촌	320,857	28,984	57,232	20,068	163,523	47,528	289	3,233
	대도시	522,894	73,711	32,714	16,634	279,297	106,252	1,128	13,158
	중소도시	504,978	40,340	22,742	13,974	263,827	154,630	869	8,596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주: 2011년 기준,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11) |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3)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2	농어촌	348,759	30,206	57,290	20,922	180,619	54,967	474	4,281
	대도시	574,723	76,753	33,120	16,167	303,679	128,424	1,325	15,255
	중소도시	563,879	42,718	22,639	14,825	283,958	188,280	1,114	10,345
2013	농어촌	340,626	30,323	55,069	20,356	180,675	48,397	480	5,326
	대도시	573,577	79,950	31,748	16,166	300,273	126,877	1,509	17,054
	중소도시	572,777	44,192	22,017	15,162	289,231	188,839	1,237	12,099
2014	농어촌	341,403	30,654	52,647	19,493	183,033	48,811	590	6,178
	대도시	575,605	83,146	30,465	15,119	297,922	128,403	1,784	18,766
	중소도시	597,663	45,444	21,440	14,563	294,459	188,036	1,400	14,321
2015	농어촌	340,463	31,156	50,557	19,054	184,211	46,860	688	7,937
	대도시	558,183	87,444	29,073	14,114	283,995	121,270	1,968	20,319
	중소도시	554,167	47,143	20,085	13,690	279,392	175,877	1,471	16,509

자료: 보건복지부(2012~2015),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12) |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4)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6	농어촌	341,448	32,460	49,791	18,720	184,972	45,243	696	9,566
	대도시	555,097	93,451	29,076	13,480	278,884	114,974	2,058	23,174
	중소도시	554,670	50,018	20,246	13,174	281,807	168,377	1,486	19,562
2017	농어촌	341,287	33,364	48,647	18,100	183,961	45,501	835	10,879
	대도시	550,729	101,544	28,405	12,553	270,739	109,918	2,075	25,495
	중소도시	558,227	52,008	19,742	12,751	283,859	166,189	1,598	22,080
2018	농어촌	331,748	34,830	46,824	17,244	177,230	43,139	813	11,668
	대도시	533,905	109,605	27,230	11,947	254,437	101,465	1,949	27,272
	중소도시	550,089	56,348	18,733	12,107	279,542	158,070	1,598	23,691
2019	농어촌	316,103	39,153	43,014	15,854	166,288	38,645	726	12,423
	대도시	510,069	121,794	25,777	11,232	230,645	90,058	1,841	28,722
	중소도시	538,913	71,176	17,984	11,452	267,173	144,696	1,554	24,878
2020	농어촌	289,556	42,575	39,070	14,105	147,901	32,762	650	12,493
	대도시	458,196	127,321	22,857	9,965	193,062	74,965	1,599	28,427
	중소도시	496,644	83,355	16,395	9,996	237,233	122,717	1,467	25,481

자료: 보건복지부(2016~2020), 「보육통계」

주: 2016년 기준,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협동 어린이집'으로 변경

2207 > 장애인 추가비용

▶ 2020년 기준, 장애인 추가비용은 152.6천원

2020년 기준, 장애인 추가비용은 152.6천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2017년 대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유지비’(+8.1천원), ‘교통비’(+5.2천원)가 증가한 반면,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17.4천원), ‘의료비’(-7.4천원)는 감소하였다.

표 2207 | 장애인 추가비용

단위: 천원

연도	총 추가 비용	교통비	의료비	보육· 교육비	보호· 간병비	재활 기관 이용료	통신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유지비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
2005	155.4	22.9	90.2	6.1	11.8	2.1	1.2	6.4	8.8
2008	158.7	17.8	57.3	6.2	9.9	2.0	1.4	36.8	6.2
2011	160.7	22.8	56.8	6.0	14.1	1.9	9.6	31.7	5.4
2014	164.2	25.6	66.0	4.1	13.6	4.2	9.9	18.9	16.8
2017	165.1	20.5	65.9	8.0	20.6	4.8	9.8	7.2	22.9
2020	152.6	25.7	58.5	7.5	21.9	2.6	11.8	15.3	5.5

자료: 보건복지부(2005~2020), 「장애인실태조사」

주: 1) 2011년 기준,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유지비’, ‘교육비’는 ‘보육 교육비’로 변경

2) 2014년 기준, ‘보호·간병인’은 ‘보호·간병비’, ‘부모 사후 대비비’는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로 변경

3)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2208> 결혼 이민자 현황

▶ 2020년 기준, 농림어업종사자의 13.3%가 외국 여성과 혼인

2020년 기준, 농림어업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한 비율은 13.3%로 외국 여성과의 전체 혼인 비율(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표 2208 - (1) | 결혼 이민자 현황(1)

단위: 건, %

연도	구분	전체			농림어업종사자		
		혼인건수(A)	외국 여성과의 혼인		혼인건수(C)	외국 여성과의 혼인	
			건수(B)	비율(B/A)		건수(D)	비율(D/C)
2004	농어촌	53,909	5,694	10.6	4,883	1,474	30.2
	도시	241,071	18,095	7.5	1,433	333	23.2
2005	농어촌	55,029	7,575	13.8	5,878	2,371	40.3
	도시	244,360	22,545	9.2	1,663	498	29.9
2006	농어촌	58,382	8,746	15.0	6,479	2,991	46.2
	도시	261,377	20,470	7.8	1,793	529	29.5
2007	농어촌	59,397	8,016	13.5	5,948	2,649	44.5
	도시	274,592	20,145	7.3	1,718	522	30.4
2008	농어촌	57,035	7,853	13.8	4,959	2,038	41.1
	도시	262,357	19,893	7.6	1,499	434	29.0
2009	농어촌	52,918	6,839	12.9	4,341	1,679	38.7
	도시	248,050	17,846	7.2	1,295	307	23.7
2010	농어촌	56,502	7,219	12.8	4,489	1,684	37.5
	도시	261,077	18,605	7.1	1,481	338	22.8
2011	농어촌	54,441	6,074	11.2	3,959	1,291	32.6
	도시	266,713	15,709	5.9	1,395	267	19.1

자료: 통계청(2004~2011), 「인구동향조사」

주: 농림어업종사자는 남편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만 집계(외국인 제외)하였으며, 국외를 포함한 수치임

| 표 2208 - (2) | 결혼 이민자 현황(2)

단위: 건, %

연도	구분	전체			농림어업종사자		
		혼인건수(A)	외국 여성과의 혼인		혼인건수(C)	외국 여성과의 혼인	
			건수(B)	비율(B/A)		건수(D)	비율(D/C)
2012	농어촌	52,829	5,462	10.3	4,042	1,176	29.1
	도시	266,463	14,623	5.5	1,352	219	16.2
2013	농어촌	50,906	4,552	8.9	3,758	981	26.1
	도시	263,992	13,196	5.0	1,440	197	13.7
2014	농어촌	48,818	3,940	8.1	3,500	730	20.9
	도시	248,965	11,587	4.7	1,222	145	11.9
2015	농어촌	48,638	3,534	7.3	3,410	615	18.0
	도시	247,486	10,762	4.3	1,278	134	10.5
2016	농어촌	46,792	3,743	8.0	3,134	632	20.2
	도시	229,747	11,040	4.8	1,198	107	8.9
2017	전국	264,455	14,869	5.6	4,221	693	16.4
2018	전국	257,622	16,608	6.4	4,158	718	17.3
2019	전국	239,159	17,687	7.4	3,677	768	20.9
2020	전국	213,502	11,100	5.2	3,062	406	13.3

자료: 통계청(2012~2020), 「인구동향조사」

주: 농림어업종사자는 남편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만 집계(외국인 제외)하였으며, 국외를 포함한 수치임

부록

전국 표본리스트

항목별 타 자료 비교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주요 용어 정리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01 전국 표본리스트

구분	시도	시군	읍/면 수	비고
합 계			200	
1	인천광역시	옹진군	1	
2	경기도	광주시	1	
3	경기도	김포시	1	
4	경기도	안성시	2	
5	경기도	양주시	2	
6	경기도	양평군	1	
7	경기도	연천군	1	
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4	
9	경기도	이천시	2	
10	경기도	파주시	1	
11	경기도	평택시	1	
12	경기도	포천시	4	
13	경기도	화성시	1	
14	강원도	강릉시	1	
15	강원도	고성군	1	
16	강원도	삼척시	4	
17	강원도	양양군	1	
18	강원도	영월군	1	
19	강원도	정선군	3	
20	강원도	철원군	1	
21	강원도	춘천시	2	
22	강원도	평창군	1	
23	강원도	홍천군	2	
24	강원도	횡성군	2	
25	충청북도	괴산군	3	
26	충청북도	단양군	2	
27	충청북도	보은군	3	
28	충청북도	영동군	2	
29	충청북도	옥천군	1	
30	충청북도	음성군	2	

구분	시도	시군	읍/면 수	비고
31	충청북도	제천시	2	
32	충청북도	증평군	1	
33	충청북도	진천군	1	
3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	
35	충청북도	충주시	2	
36	충청남도	계룡시	1	
37	충청남도	공주시	2	
38	충청남도	금산군	3	
39	충청남도	논산시	1	
40	충청남도	보령시	1	
41	충청남도	서산시	2	
42	충청남도	서천군	1	
43	충청남도	아산시	2	
44	충청남도	예산군	2	
4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	
4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	
47	충청남도	청양군	1	
48	충청남도	태안군	2	
49	충청남도	홍성군	2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1	
51	경상북도	경산시	1	
52	경상북도	경주시	2	
53	경상북도	고령군	1	
54	경상북도	김천시	1	
55	경상북도	봉화군	1	
56	경상북도	상주시	2	
57	경상북도	성주군	3	
58	경상북도	안동시	3	
59	경상북도	영덕군	1	
60	경상북도	영주시	2	
61	경상북도	영천시	2	
62	경상북도	예천군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수	비고
63	경상북도	울진군	1	
64	경상북도	의성군	1	
65	경상북도	칠곡군	1	
6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	
6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	
68	울산광역시	울주군	2	
69	경상남도	거제시	2	
70	경상남도	거창군	1	
71	경상남도	고성군	1	
72	경상남도	남해군	1	
73	경상남도	밀양시	1	
74	경상남도	산청군	1	
75	경상남도	의령군	1	
76	경상남도	진주시	2	
77	경상남도	창녕군	2	
7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1	
7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1	
80	경상남도	하동군	3	
81	경상남도	함안군	1	
82	경상남도	함양군	2	
83	경상남도	합천군	2	
84	전라북도	고창군	3	
85	전라북도	군산시	4	
86	전라북도	김제시	2	
87	전라북도	남원시	3	
88	전라북도	무주군	2	
89	전라북도	부안군	1	
90	전라북도	순창군	2	
91	전라북도	완주군	1	
92	전라북도	익산시	2	
93	전라북도	임실군	2	
94	전라북도	장수군	1	
95	전라북도	정읍시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수	비고
96	전라남도	강진군	2	
97	전라남도	고흥군	3	
98	전라남도	곡성군	1	
99	전라남도	광양시	1	
100	전라남도	구례군	1	
101	전라남도	담양군	2	
102	전라남도	무안군	1	
103	전라남도	보성군	2	
104	전라남도	순천시	3	
105	전라남도	신안군	2	
106	전라남도	영광군	1	
107	전라남도	영암군	2	
108	전라남도	완도군	1	
109	전라남도	장성군	2	
110	전라남도	장흥군	2	
111	전라남도	진도군	2	
112	전라남도	해남군	2	
113	전라남도	화순군	1	
1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	
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	

02 항목별 타 자료 비교

[생활 전반 부문]

문항	2016	2020	2021	타 자료 비교
> 월 평균 생활비(만원)				
· 합계	138.2	173.4	182.1	※ '20 주거실태조사(읍면부) · 평균 166.4만원 ※ '20 농가경제조사 · 평균 224.3만원
> 이주 실태(%)				
· 선주민	47.3	33.2	35.2	
· 이주민	52.7	66.8	64.8	
> 이주 직전 거주지(%)				
· 농어촌 → 농어촌	69.4	70.7	69.8	
· 도시 → 농어촌	30.6	28.1	30.2	
> 5년 이내 이주 의사(%)				
· 이주 의향층	9.5	9.5	10.2	※ '20 주거실태조사(읍면부) · 이사계획(5년 내) : 3.6%
> 이주 희망 지역(%)				
· 농어촌→농어촌	65.5	71.5	77.4	
· 농어촌→도시	33.2	27.6	22.6	
· 기타(해외파견, 이민 등)	1.4	0.9	-	
> 이주 희망 이유(%)				
· 직업 관련 사유	16.2	32.3	27.3	
· 주택 관련 사유	38.4	40.5	23.9	
· 가족 관련 사유	1.9	4.8	1.4	
· 생활환경 관련 사유	10.1	4.7	27.6	
·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	-	0.2	0.1	
· 자녀교육 때문에	27.5	13.5	10.8	
·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2.9	3.7	8.8	
· 건강상의 이유로	1.9	0.3	0.0	
· 기타	1.0	-	-	

문항		2016	2020	2021	타 자료 비교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점)					
· 보건의료	중요도	-	79.2	82.3	* 2016년 '안전'은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평균 66.2점), "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평균 66.8점)의 산술평균값임 ※ '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0~10점, 11점 척도) · 도시 - 보건·복지(6.8점) - 교육·문화(6.1점) - 정주기반(6.9점) - 경제·일자리(5.5점) - 전체 평균(6.3점) · 농어촌 - 보건·복지(5.2점) - 교육·문화(4.8점) - 정주기반(5.9점) - 경제·일자리(4.6점) - 전체 평균(5.1점)
	만족도	46.9	50.4	49.8	
· 복지서비스	중요도	-	78.2	80.1	
	만족도	47.9	49.4	48.3	
· 교육 여건	중요도	-	68.2	67.4	
	만족도	44.4	46.0	44.9	
· 문화·여가 여건	중요도	-	65.8	65.9	
	만족도	41.7	45.0	43.0	
· 기초생활기반	중요도	-	77.9	78.6	
	만족도	47.5	52.3	52.2	
· 안전	중요도	-	78.7	80.5	
	만족도	66.5	65.4	64.6	
· 환경·경관	중요도	-	74.4	75.5	
	만족도	62.7	67.5	65.9	
· 이웃과의 관계	중요도	-	72.0	72.1	
	만족도	-	62.7	61.0	
· 경제활동 여건	중요도	-	76.1	77.9	
	만족도	46.5	49.8	48.7	
· 정보화 여건	중요도	-	66.2	65.8	
	만족도	-	57.3	55.7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점)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63.4	58.2	57.5	※ '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0~10점, 11점 척도) · 도시 : 5.5점 · 농어촌 : 6.2점

문항	2016	2020	2021	타 자료 비교
> 주관적 건강 상태(%)				
· 매우 건강하다	—	9.0	3.4	※ '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읍면) · 매우 좋다(15.8%) · 좋다(52.9%) · 보통이다(20.6%) · 나쁘다(8.9%) · 매우 나쁘다(1.8%)
· 건강한 편이다	—	42.1	44.9	
· 보통이다	—	21.3	28.3	※ '20 한국복지패널조사 (전국, 가구 기준) · 아주 건강하다(8.3%) · 건강한 편이다(57.2%) · 보통이다(19.3%)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14.0%) · 건강이 아주 안 좋다(1.2%)
·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23.7	20.8	
·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	4.0	2.6	

[보건의료 부문]

문항	2016	2018	2021	타 자료 비교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보건의료원	—	2.9	0.5	※ '20 한국복지패널조사(전국) · 보건소(0.8%) · 지역 내 병·의원(65.0%) · 한방 병·의원(1.9%) · 종합, 대학병원(11.9%) · 치과 병·의원(0.1%) · 요양병원(3.9%) · 기타(0.1%) · 비해당(16.2%)
· 보건소(지소)	3.0	1.9	1.3	
· 보건진료소	1.3	2.0	1.4	
· 병(의)원	83.5	81.2	83.6	
· 한방병(의)원	1.4	2.1	1.4	
· 종합병원	10.8	9.9	11.8	
· 기타	—	0.1	—	
>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공공의료기관 이용 경험충(%)	45.4	39.4	31.1	
· 공공의료기관 이용 만족도(점)	69.0	71.6	71.1	※ '20 사회조사 (읍면부, 보건소 기준) · 매우 만족(34.4%) · 약간 만족(32.5%) · 보통(29.4%) · 약간 불만족(3.7%)

문항	2016	2018	2021	타 자료 비교
> 응급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응급실 이용 경험총(%)	18.8	12.9	12.6	※ '20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읍면) · 이용 경험총 : 25.7% · 만족도 : 62.8점
· 응급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점)	53.8	-	63.1	
>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 구급차	25.1	26.2	34.9	※ '19 응급의료현황통계(전국) · 119 구급차(21.4%) · 의료기관 구급차(1.0%) · 기타 구급차(4.0%) · 경찰차 등 공공차량(0.1%) · 항공이송(0.1%) · 기타 자동차(72.8%) · 도보(0.6%) · 기타(0.1%)
· 개인용 차량	66.3	61.0	58.2	
· 택시	7.1	12.0	6.7	
· 걸어서	1.0	0.5	-	
· 기타	0.5	0.4	0.2	
>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점)				
·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77.8	-	80.7	※ '20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읍면) · 만족도 : 79.4점
> 질병치료 시 어려움(%)				
· 치료비가 부담된다	32.4	32.0	29.9	
·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8.8	10.7	13.1	
·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16.5	10.8	14.9	
·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11.8	13.4	10.9	
·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5.9	12.7	8.9	
·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24.6	20.4	22.3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

문항	2016	2018	2021	타 자료 비교
>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 국민건강보험 가입층	94.2	94.6	95.7	※ '20 사회통합실태조사(읍면부) · 가입층 : 91.0%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 부담됨(합)	54.9	-	56.6	※ '19 사회조사 (읍면부, 건강보험 기준) · 부담됨(합) : 53.6%
> 공적연금 가입현황(전체 가구)(%)				
· 국민연금	64.5	-	71.8	※ '20 사회통합실태조사 (읍면부, 각 100%) · 국민연금(89.0%) · 공무원연금(3.8%) · 사립학교교원연금(0.3%) · 군인연금(0.2%)
· 공무원연금	6.2	-	3.4	
· 사학연금	0.2	-	0.3	
· 군인연금	1.2	-	0.4	
· 미가입	30.2	-	25.5	
>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 부담됨(합)	50.8	-	51.1	※ '19 사회조사 (읍면부, 국민연금 기준) · 부담됨(합) : 51.8%
> 기타보험 가입현황(%)				
· 민간의료보험	59.7	52.1	57.9	※ '20 사회통합실태조사 (읍면부, 각 100%) · 개인의료보험(62.2%) · 고용보험(29.9%) · 개인연금(15.7%) · 산업재해보상보험(27.2%)
· 고용보험	30.7	-	36.6	
· 주택연금	2.8	-	6.5	
· 개인연금	18.8	25.6	20.7	
· 농지연금	2.1	3.0	3.6	
· 산재보험	29.4	-	35.9	
· 농업인안전보험	16.6	16.8	29.8	
· 농기계종합보험	11.7	15.0	15.0	
· 농작물재해보험	15.2	16.2	32.1	

문항		2016	2018	2021	타 자료 비교
>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인지층(%)	60.8	-	67.3	
	경험층*(%)	34.8	-	40.0	
	만족도**(점)	65.8	-	70.2	
·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인지층(%)	32.0	-	32.6	* 201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결과값임
	경험층*(%)	13.8	-	14.3	
	만족도**(점)	62.7	-	68.0	
· 의치(틀니) 지원사업	인지층(%)	63.7	-	63.6	※ '20 노인실태조사 (읍면부, 인지도 '잘 알고 있다' 기준, 각 100%)
	경험층*(%)	11.0	-	33.7	
	만족도**(점)	69.3	-	76.7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층(%)	59.7	-	65.4	·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42.8%) · 치매조기검진 서비스(40.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26.8%) · 치매전담요양기관 운영(25.3%) · 치매안심센터(25.2%) · 노인보호전문기관(24.0%) · 성년후견인제도(10.9%)
	경험층*(%)	5.2	-	9.4	
	만족도**(점)	80.4	-	79.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지층(%)	54.6 ⁽¹⁾ 59.2 ⁽²⁾	-	69.2	※ '19 한국복지패널조사 (전국, 이용층, 각 100%)
	경험층*(%)	9.2 ⁽¹⁾ 8.1 ⁽²⁾	-	16.4	
	만족도**(점)	68.3 ⁽¹⁾ 68.4 ⁽²⁾	-	73.5	
· 노인건강진단사업	인지층(%)	40.4	-	48.7	· 노인 무료 급식(12.2%) · 물품 지원(18.2%) · 가정 봉사 서비스(9.8%) · 식사 배달 서비스(2.2%)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7.2%) · 주·야간보호 서비스(1.3%)
	경험층*(%)	45.7	-	24.0	
	만족도**(점)	70.8	-	73.9	
· 가정방문간호사업	인지층(%)	44.3	-	50.8	
	경험층*(%)	9.8	-	13.6	
	만족도**(점)	70.7	-	78.7	
·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인지층(%)	15.9	-	16.4	
	경험층*(%)	17.9	-	3.7	
	만족도**(점)	83.0	-	73.9	

* 인지층 중 경험층 비율임

** 경험층 중 만족도 점수임

문항	2016	2018	2021	타 자료 비교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질병예방서비스	22.0	17.3	15.0	※ '20 노인실태조사 (읍면부, 1순위) · 노인 빈곤 완화 지원(36.4%) · 노인 건강 서비스(25.6%) · 노인 돌봄 서비스(15.9%) · 치매 관련 서비스(8.8%) ·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6.4%) · 노후 여가문화 서비스(3.3%) · 노인 특화된 다양한 주거(1.7%) · 노인 자원봉사/ 사회참여 지원(0.9%) · 주택개선 및 개조 서비스(0.6%) · 노인 특화된 용품 확대(0.4%) · 기타(0.0%)
· 질병치료서비스	23.4	15.6	17.9	
· 가정봉사서비스	8.2	9.0	14.1	
·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	6.5	12.0	6.7	
· 주·야간보호서비스	0.8	0.7	1.7	
· 교통수단 지원	7.6	10.4	10.0	
·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	13.6	9.6	15.9	
· 노인여가복지서비스	4.4	3.3	5.3	
· 기타	-	1.8	-	
·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13.5	20.3	13.5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10.5	15.3	12.5	※ '19 장애인실태조사 (전국, 1순위) · 직업재활/취업(18.5%) · 주거지원(13.3%) · 보조기기(3.8%) · 소득지원(29.1%) · 의료재활(18.5%) · 이동편의(5.0%) · 일상생활 활동지원(11.1%) · 기타(0.0%) · 없음(0.7%)
· 의료재활서비스	15.3	8.2	8.8	
· 가사지원서비스	7.9	19.2	18.2	
· 이동편의지원서비스	7.4	8.1	10.4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2.2	5.9	0.8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6.2	10.9	3.4	
· 장애자녀 학습지원서비스	1.1	3.6	2.1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2	9.2	3.6	
·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	43.1	-	40.2	
· 기타	-	0.2	-	

0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⁴⁾

표준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RSE)

◦표본오차 (sampling error)

- 모집단 전체가 아닌 일부 표본을 확률 추출하는 데서 생기는 통계적 오차
- 표본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의 정확성(precision)을 나타내는 척도
- 일반적으로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등의 형태로 표현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 추정치의 표준편차: $\sqrt{Var(\hat{\theta})}$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RSE)

$$- RSE(\hat{\theta}) = \frac{\sqrt{Var(\hat{\theta})}}{\hat{\theta}}$$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치나 표준오차의 단위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표본조사 품질 척도로 널리 사용됨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 \hat{\theta} \pm 1.96 \sqrt{Var(\hat{\theta})}$$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모두 $Var(\hat{\theta})$ 의 함수로 표현

-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함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통계적 정확도

- 통계의 중요성, 목적, 용도에 따라 정확도 요구가 다름
- 일반적으로, 전국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통상적으로 1~5% 정도로 사용
- 시도별, 속성별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3~10% 정도
- 상대표준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공표를 지양해야 함

4)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1)

구분			n	평균(점)	SE	RSE(%)
종합 만족도	합계		3,999	53.4	1.04	1.9
	읍/면	읍	1,926	53.0	1.90	3.6
		면	2,073	53.7	0.93	1.7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52.9	1.57	3.0
		비농어가	2,830	53.6	1.00	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51.6	2.27	4.4
		40대	734	52.3	1.55	3.0
		50대	840	51.9	1.11	2.1
		60대	829	54.2	1.28	2.4
		70대 이상	927	56.2	1.04	1.9
	응답자 성	남	1,717	53.0	1.31	2.5
		여	2,282	53.7	0.999	1.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52.1	1.34	2.6
		선주민	1,406	55.8	0.88	1.6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45.4	2.40	5.3
		비의향층	3,583	54.3	0.99	1.8
보건의료	합계		3,999	49.8	1.35	2.7
	읍/면	읍	1,926	51.4	2.12	4.1
		면	2,073	48.3	1.61	3.3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47.8	1.41	2.9
		비농어가	2,830	50.6	1.60	3.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52.0	2.96	5.7
		40대	734	46.9	2.31	4.9
		50대	840	48.5	1.70	3.5
		60대	829	49.5	1.44	2.9
		70대 이상	927	51.9	1.53	3.0
	응답자 성	남	1,717	49.7	1.67	3.4
		여	2,282	49.9	1.33	2.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49.0	1.66	3.4
		선주민	1,406	51.3	1.51	2.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45.7	3.88	8.5
		비의향층	3,583	50.2	1.27	2.5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2)

구분			n	평균(점)	SE	RSE(%)
복지 서비스	합계		3,999	48.3	1.15	2.4
	읍/면	읍	1,926	49.1	2.04	4.2
		면	2,073	47.5	1.27	2.7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48.1	1.30	2.7
		비농어가	2,830	48.3	1.29	2.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47.8	3.07	6.4
		40대	734	46.0	2.24	4.9
		50대	840	46.5	1.46	3.1
		60대	829	48.9	1.32	2.7
		70대 이상	927	51.4	1.27	2.5
	응답자 성	남	1,717	47.8	1.37	2.9
		여	2,282	48.7	1.19	2.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46.9	1.43	3.0
		선주민	1,406	50.7	1.24	2.4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41.1	2.83	6.9
		비의향층	3,583	49.1	1.19	2.4
교육 여건	합계		3,999	44.9	1.00	2.2
	읍/면	읍	1,926	46.0	1.74	3.8
		면	2,073	43.9	0.96	2.2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42.3	1.15	2.7
		비농어가	2,830	46.0	1.12	2.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48.2	2.30	4.8
		40대	734	42.6	2.23	5.2
		50대	840	42.6	1.51	3.5
		60대	829	44.2	1.34	3.0
		70대 이상	927	47.0	0.78	1.7
	응답자 성	남	1,717	45.6	1.47	3.2
		여	2,282	44.4	0.97	2.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44.9	1.33	3.0
		선주민	1,406	44.9	0.83	1.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39.6	2.32	5.9
		비의향층	3,583	45.5	0.99	2.2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3)

구분			n	평균(점)	SE	RSE(%)
문화·여가 여건	합계		3,999	43.0	1.38	3.2
	읍/면	읍	1,926	42.4	2.24	5.3
		면	2,073	43.6	1.32	3.0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41.0	1.31	3.2
		비농어가	2,830	43.9	1.60	3.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40.3	3.02	7.5
		40대	734	41.0	2.60	6.3
		50대	840	41.8	1.65	3.9
		60대	829	43.3	1.90	4.4
		70대 이상	927	47.5	1.24	2.6
	응답자 성	남	1,717	43.3	1.79	4.1
		여	2,282	42.8	1.33	3.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42.2	1.88	4.4
		선주민	1,406	44.6	1.04	2.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39.1	3.35	8.6
		비의향층	3,583	43.5	1.41	3.2
기초생활 기반	합계		3,999	52.2	1.26	2.4
	읍/면	읍	1,926	52.7	2.03	3.9
		면	2,073	51.8	1.45	2.8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51.5	1.99	3.9
		비농어가	2,830	52.5	1.29	2.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48.2	2.22	4.6
		40대	734	52.2	1.79	3.4
		50대	840	50.1	1.70	3.4
		60대	829	54.0	2.13	3.9
		70대 이상	927	55.4	1.47	2.7
	응답자 성	남	1,717	52.2	1.61	3.1
		여	2,282	52.2	1.29	2.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51.2	1.52	3.0
		선주민	1,406	54.2	1.44	2.7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43.5	4.16	9.5
		비의향층	3,583	53.2	1.22	2.3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4)

구분			n	평균(점)	SE	RSE(%)
안전	합계		3,999	64.6	1.31	2.0
	읍/면	읍	1,926	62.1	2.24	3.6
		면	2,073	66.9	1.55	2.3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65.7	2.47	3.8
		비농어가	2,830	64.1	1.16	1.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59.5	2.46	4.1
		40대	734	63.9	1.83	2.9
		50대	840	62.5	1.43	2.3
		60대	829	66.5	2.10	3.2
		70대 이상	927	69.0	1.59	2.3
	응답자 성	남	1,717	63.9	1.61	2.5
		여	2,282	65.1	1.29	2.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61.9	1.53	2.5
		선주민	1,406	69.5	1.36	2.0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53.2	3.59	6.8
		비의향층	3,583	65.9	1.20	1.8
환경·경관	합계		3,999	65.9	1.48	2.2
	읍/면	읍	1,926	62.8	2.55	4.1
		면	2,073	68.7	1.88	2.7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68.6	2.49	3.6
		비농어가	2,830	64.7	1.39	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60.8	3.22	5.3
		40대	734	64.1	1.87	2.9
		50대	840	65.4	1.55	2.4
		60대	829	68.1	2.11	3.1
		70대 이상	927	69.3	1.72	2.5
	응답자 성	남	1,717	65.0	1.99	3.1
		여	2,282	66.5	1.41	2.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62.7	1.81	2.9
		선주민	1,406	71.7	1.39	1.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51.3	4.65	9.1
		비의향층	3,583	67.6	1.29	1.9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5)

구분			n	평균(점)	SE	RSE(%)
이웃과의 관계	합계		3,999	61.0	1.26	2.1
	읍/면	읍	1,926	56.9	2.22	3.9
		면	2,073	64.8	1.54	2.4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65.7	2.30	3.5
		비농어가	2,830	59.0	1.26	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52.4	3.41	6.5
		40대	734	58.0	1.41	2.4
		50대	840	58.7	1.53	2.6
		60대	829	64.5	1.82	2.8
		70대 이상	927	68.5	1.53	2.2
	응답자 성	남	1,717	59.1	1.49	2.5
		여	2,282	62.4	1.31	2.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56.9	1.57	2.8
		선주민	1,406	68.4	1.22	1.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48.1	2.89	6.0
		비의향층	3,583	62.5	1.19	1.9
경제활동 여건	합계		3,999	48.7	1.34	2.8
	읍/면	읍	1,926	50.1	2.46	4.9
		면	2,073	47.4	1.29	2.7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48.3	1.61	3.3
		비농어가	2,830	48.9	1.50	3.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48.8	3.79	7.8
		40대	734	49.0	2.02	4.1
		50대	840	47.7	1.55	3.2
		60대	829	47.9	1.72	3.6
		70대 이상	927	50.0	1.01	2.0
	응답자 성	남	1,717	47.5	1.77	3.7
		여	2,282	49.6	1.27	2.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48.1	1.83	3.8
		선주민	1,406	49.8	1.34	2.5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39.0	3.15	8.1
		비의향층	3,583	49.8	1.37	2.8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6)

구분			n	평균(점)	SE	RSE(%)
정보화 여건	합계		3,999	55.7	1.22	2.2
	읍/면	읍	1,926	56.9	2.18	3.8
		면	2,073	54.5	1.17	2.1
	영농 여부	농어가	1,169	50.3	1.94	3.9
		비농어가	2,830	57.9	0.97	1.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57.8	2.09	3.6
		40대	734	59.2	1.69	2.9
		50대	840	55.6	1.57	2.8
		60대	829	55.1	1.48	2.7
		70대 이상	927	51.8	0.97	1.9
	응답자 성	남	1,717	56.2	1.63	2.9
		여	2,282	55.3	1.20	2.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93	57.2	1.51	2.6
		선주민	1,406	52.8	0.93	1.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53.4	3.94	7.4
		비의향층	3,583	55.9	1.07	1.9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82	57.5	0.98	1.7
읍/면	읍	1,926	59.2	1.56	2.6
	면	2,055	55.8	1.12	2.0
영농 여부	농어가	1,153	58.1	1.07	1.8
	비농어가	2,829	57.2	1.18	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55	62.7	2.33	3.7
	40대	732	61.8	1.85	3.0
	50대	840	57.6	1.82	3.2
	60대	829	56.3	1.16	2.1
	70대 이상	925	51.2	0.94	1.8
응답자 성	남	1,700	58.6	1.36	2.3
	여	2,281	56.6	1.02	1.8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층	345	37.4	1.83	4.9
	비경험층	3,636	59.4	1.03	1.7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한 편	1,929	66.4	1.26	1.9
	보통	1,117	52.0	0.98	1.9
	건강하지 않은 편	933	45.5	0.99	2.2

보건의료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89	47.7	1.06	2.2
읍/면	읍	1,926	48.4	1.55	3.2
	면	2,064	47.1	1.46	3.1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47.1	1.17	2.5
	비농어가	2,824	48.0	1.26	2.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4	48.1	3.11	6.5
	40대	734	46.3	1.69	3.6
	50대	836	46.1	0.97	2.1
	60대	829	45.6	1.24	2.7
	70대 이상	926	52.0	1.14	2.2
응답자 성	남	1,708	48.3	1.45	3.0
	여	2,281	47.3	1.07	2.3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83	46.4	1.22	2.6
	선주민	1,406	50.1	1.24	2.5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3	43.2	2.91	6.7
	비의향층	3,578	48.2	1.04	2.1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125	54.9	2.21	4.0
	병(의)원 (한방 포함)	3,378	48.3	0.96	2.0
	종합병원	470	41.9	3.15	7.5

의료인력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89	54.7	1.08	2.0
읍/면	읍	1,926	55.5	1.52	2.7
	면	2,064	54.1	1.58	2.9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53.5	1.31	2.5
	비농어가	2,824	55.3	1.21	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4	54.1	2.52	4.7
	40대	734	52.7	1.55	2.9
	50대	836	53.0	1.50	2.8
	60대	829	53.3	1.46	2.7
	70대 이상	926	59.8	1.33	2.2
응답자 성	남	1,708	55.0	1.53	2.8
	여	2,281	54.5	0.97	1.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83	53.3	1.30	2.4
	선주민	1,406	57.4	1.14	2.0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3	47.1	3.27	6.9
	비의향층	3,578	55.6	1.13	2.0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125	58.6	2.54	4.3
	병(의)원 (한방 포함)	3,378	55.2	1.01	1.8
	종합병원	470	50.2	2.96	5.9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95	48.5	1.53	3.1
읍/면	읍	1,926	51.3	2.52	4.9
	면	2,069	45.9	1.60	3.5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45.8	1.44	3.1
	비농어가	2,829	49.6	1.84	3.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49.0	3.53	7.2
	40대	734	50.3	2.21	4.4
	50대	836	48.4	1.81	3.7
	60대	829	47.2	1.85	3.9
	70대 이상	926	48.0	1.54	3.2
응답자 성	남	1,713	48.4	1.83	3.8
	여	2,281	48.6	1.54	3.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588	48.3	1.99	4.1
	선주민	1,406	48.9	1.55	3.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08	43.3	3.69	8.5
	비의향층	3,578	49.1	1.50	3.1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125	50.2	3.32	6.6
	병(의)원 (한방 포함)	3,378	49.2	1.41	2.9
	종합병원	470	42.4	3.48	8.2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97	54.0	1.04	1.9
읍/면	읍	1,925	56.8	1.78	3.1
	면	2,072	51.4	0.90	1.8
영농 여부	농어가	1,167	51.4	1.28	2.5
	비농어가	2,830	55.0	1.21	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67.1	1.90	2.8
	40대	734	59.5	1.96	3.3
	50대	840	62.3	1.61	2.6
	60대	828	51.0	1.22	2.4
	70대 이상	926	35.3	0.76	2.2
응답자 성	남	1,715	59.2	1.30	2.2
	여	2,282	50.1	1.35	2.7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평균(점)	SE	RSE(%)
합계		3,988	48.0	0.95	2.0
읍/면	읍	1,919	47.9	1.47	3.1
	면	2,069	48.0	1.00	2.1
영농 여부	농어가	1,166	47.5	1.05	2.2
	비농어가	2,822	48.2	1.20	2.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69	47.1	2.68	5.7
	40대	734	47.5	1.35	2.8
	50대	833	45.6	1.31	2.9
	60대	829	48.2	1.24	2.6
	70대 이상	923	51.1	0.96	1.9
응답자 성	남	1,716	47.8	1.09	2.3
	여	2,272	48.2	1.17	2.4
복지시설 이용 여부	이용층	819	54.6	1.56	2.9
	비이용층	3,170	46.3	1.12	2.4

04 주요 용어 정리

- **가구주**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 **생계책임자** :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결혼 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써, 상시근로자 소득(3개월 이상 지속고용), 일용 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을 포함하여 세금공제 전 소득으로 조사한다.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상시지속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을 조사한다.
- **재산소득** : 가구 전체(가구원 전체)가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금·사채·채권의 이자 소득, 주식의 배당금 등의 소득 또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의 소득 또는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모두 조사한다.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퇴직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액,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포함한다.

-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 단체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조사한다.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모두 해당된다.
- **상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교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 등이 해당된다.
- **임시직**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한다.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이다.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 **단독주택** : 단일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연립주택**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슬레이트** : 지붕을 덮는 데 쓰는 천연 점판암의 얇은 판.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판을 말한다.
- **전세** : 계약한 액수의 돈을 미리 지불하고 입주하여 살다가 퇴거할 때 그 금액을 되찾아 나오는 방식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방세는 입주할 때 낸 금액의 이자이다.
- **월세** : 보증금이나 선세(先貰) 없이 매월 방세를 지불하는 방식과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을 포함한다.
 - **보증부 월세** : 보증금을 내고 별도로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월세가 제때에 지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월세분의 10배 정도의 금액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 **사글세** : 매월 월세액을 정한 뒤 미리 1년분 정도의 월세 합계액을 선세(先貰)로 내고 그 금액을 매달 삭감해 가는 형식이다. 사글세액의 잔액이 떨어질 때가 계약이 만료되는 달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퇴거해야 한다. 만일 계약기간 내에 퇴거할 경우에는 삭감된 액수의 잔액을 되찾아갈 수 있다.
- **보건의료원** : 병원의 요건(의료법 제3조)을 갖춘 보건소를 말한다.

- **보건소(지소)** :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의료시설이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지소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된다.
- **보건진료소** :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다.
- **병(의)원**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 **한방병(의)원** : 한의사가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 **종합병원** : 최소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 **응급의료** :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사건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심혈관질환** : 심장·혈관 등 순환계통 질환의 통칭이다. 주요 질병으로 심장병과 혈관 질환이 있다. 하위분류로는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 부정맥 등을 말한다.

- **뇌혈관질환** :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짐(뇌출혈)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으로 뇌졸중은 뇌혈관질환과 같은 말이며, 우리나라에선 흔히 ‘중풍’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다.
- **외상** :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몸에 난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베인 상처(자상), 찢긴 상처(열상),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골절상, 불이나 뜨거운 물에 데는 화상 등을 말한다.
- **소화기질환** : 위, 장, 십이지장, 간, 췌장, 대장 등 장기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소화와 관련된 이상 증세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호흡기질환** : 호흡과 관련이 있는 기관인 비강·인두·후두·기관·기관지·폐·흉곽·횡격막 등에 영향을 주는 질병을 말한다. 폐렴, 급성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었는지를 묻는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와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 **의료급여** :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진찰, 수술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 **1종** : 외래, 입원 진료 시 전액 무료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2종** : 외래 진료 시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를 대상으로 한다.

- **국민연금** :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로, 급여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원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임),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된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 각각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이 가입하는 연금으로 대개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며 가입이 강제적인 경우가 많다.
- **산재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 **주택연금**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대출의 한 형태이다.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다.
- **민간의료보험** :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손보험도 포함한다.

- **개인연금** :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종신보험 중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한다.
- **농업인안전보험(농가)**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을 위한 대용상품으로 농협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주어 실제 가입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률은 15% 수준(2012년 평균기준)이다.
- **농기계종합보험(농가)** :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주는 농촌복지형 상품으로서, 농협을 통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 **농작물재해보험(농가)** :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험이다.
- **농지연금(농가)** :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를 말한다.
-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검진사업**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저소득층 우선)으로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조기검진(선별, 진단, 감별)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약제비,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 안질환의 조기발견/적기치료를 통한 실명예방 및 시력유지를 위해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저소득층 우선)으로 정밀 검진과 백내장, 망막질환 등으로 인한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의치(틀니) 지원사업**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통합되었다.
- **노인건강진단사업** : 65세 이상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고 다만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정방문간호사업(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퇴원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간호, 검사, 투약 및 주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보건지소가 주체가 되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및 75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등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인식, 건강생활 실천유도, 건강지식 향상 등과 건강 문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 인구 노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예방치료를 위해 양질의 건강증진 사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 **영유아 복지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양육 및 학대받은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시보호시설 등과 같은 아동보호시설, 놀이체험, 문화공연 등을 제공하는 어린이회관 등의 아동 여가시설,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치된 복지시설이다.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인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 기능회복 및 사회적 향상도모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다.
- **지역복지시설** : 시, 군, 읍, 면 설치의 지역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센터, 모자복지센터와 같이 전문별, 기능별의 시설을 말한다. 지역사회 복지관(종합, 종별) 등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 **기타 사회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재활센터 등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언어치료센터, 노인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기관) 등을 말한다.

05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ID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	---	---	---	---	---	---	---	---	---	---	---	---	---	---	---	---	---	---	---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은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귀댁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
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2021년 9월

작성기관 농촌진흥청
실사기관 코뮤니타스
전화번호 053-746-0021

조사원 이름

※ 본 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원 표본 가구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1)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2)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3)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4)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5)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6)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7)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대체 표본 가구 (8)	1회 방문	일자	시간	2회 방문	일자	시간	3회 방문	일자	시간
		월 일	:		월 일	:		월 일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거처 번호				가구번호			

응답자	① 가구주 ② 가구주 배우자					
조사방법	① 조사원 면접 ② 응답자 자기기입 ③ 조사원 면접과 응답자 자기기입 병행					
최종 조사 가구	연락처	() - () - ()	시/군/구		읍/면	
	도로명 주소					

2021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참여 동의서

2021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방문을 위한 사전 약속 및 오류 점검 등의 용도로 귀하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수집하고 있으며, 표본가구로 선정되신 기간(2018년~2022년) 동안에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 시 이용하게 됩니다. 조사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조사 및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각 지역을 대표하므로, 조사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월 일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설문조사 참여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여자 : (서명)



농촌진흥청

2021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답례품 수령 확인서

본인은 2021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답례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1. 가구 정보

1. [가구주와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가구주 및 배우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 **가구주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분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상태	동거		[2] 학력	결혼 이인	장애	
				여부	[1] 비동거 시 사유			여부	증상
	① 남 ② 여		① 유배우 ② 미혼, 비혼 ③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등)	① 동거 ② 비동거	※ 코드표 참고	※ 코드표 참고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중증 ② 경증
가구주		_____년							
배우자		_____년							

《코드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1] 비동거 시 사유	① 친지 보육 ② 학업(타 지역 학교 유학) ③ 자녀 교육 지원 ④ 직장(직업, 취업준비) ⑤ 건강(입원, 요양 등) ⑥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2]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③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⑤ 대학 졸업(중퇴, 수료 포함) ⑥ 대학원 이상
[3]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의 자녀 ⑤ 조부모	② 자녀의 배우자 ⑥ 형제자매/그배우자	③ 손자녀/그배우자 ⑦ 기타 친인척 ④ 부모 ⑧ 동거인

2.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가구주/배우자 외 가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 취업, 유학, 요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직계가족(배우자, 자녀)을 포함하되, 결혼해 분가한 가족은 제외합니다.

구분	[3] 가구주 와의 관계	동거		성별	연령 구분	결혼 이민	장애	
		여부	[1] 비동거 시 사유				여부	증상
	※ 코드표 참고	① 동거 ② 비동거	※ 코드표 참고	① 남 ② 여	① 영아(36개월 미만) ② 유아(만3세~미취학) ③ 초등학생 ④ 중고등학생 ⑤ 만 19세 이상 성인 - ()년생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중증 ② 경증
가구원 1								
가구원 2								
가구원 3								
가구원 4								
가구원 5								
가구원 6								
가구원 7								
가구원 8								
총 가구원 수 ※ 동거 가구원 수	총 _____ 명	[4] 가구 구성 ※ 코드표 참고			농어가 여부	① 농어가(가구원 중 농어업 종사자가 있음) ② 비농어가(농어업 종사자 없음)		
[4] 가구 구성 코드								
1세대	⑩ 1인 가구		⑪ 부부(응답자+배우자)		⑨ 기타(상기를 제외한 모든 1세대 가구)			
2세대	⑫ 부부+미성년자녀 ⑭ 부부+양친(또는 편부모) ⑮ 조부모(또는 편조부모)+성년손자녀		⑯ 편부모+미성년자녀 ⑰ 조부모+미성년손자녀 ⑱ 기타(상기를 제외한 모든 2세대 가구)		⑲ 부부(또는 편부모)+성년자녀 ⑳ 편조부모+미성년손자녀			
3세대	㉑ 조부모(또는 편조부모)+혼인자녀부부(또는 자녀/그배우자)+손자녀 ㉒ 기타(상기를 제외한 모든 3세대 이상 가구)							

6. [부채 현황] 귀댁에는 부채(빚)가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문7번** 으로 가십시오.

6-1. [부채 원인] 부채(빚)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농어업 시설, 기계, 자재 등 투자

② (농어업 외) 사업 자금 마련

③ 주택 마련

④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

⑤ 의료비

⑥ 교육비

⑦ 결혼, 장례 등 경조사 자금 마련

⑧ 기타 (↳)

 농어가에 한해

7. [전업 또는 겸업 여부] 귀댁은 농어업만을 하고 계십니까(전업), 혹은 농어업 외 다른 일을 겸하고 계십니까?

① 전업 → **문 9번** 으로 가십시오.

② 겸업



8. [겸업의 형태 및 소득 비중] 농어업 외 종사하시는 일의 형태와 소득 구조는 어떠합니까?

(1) 농업 외 직종의 형태	① 자영업	② 임금근로(□상용 □임시 □일용)
(2) 소득 구조 (①+②+③의 합이 100)	① 농어업 소득 () % ② 농어업 외 소득 () % ③ 기타 소득 () %	

9. [영농형태] 귀댁에서 주된 수입원이 되는 영농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논벼

② 식량작물

③ 노지채소

④ 시설채소

⑤ 과수

⑥ 화훼

⑦ 특/약용작물버섯

⑧ 축산

⑨ 기타 (↳)

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귀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가구원 중 수급자가 있는 경우 포함)입니까?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십니까?

① 일반수급가구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없음

11. [이주 시기] 귀택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 거주지 기준이며, 여성 응답자가 혼인 시 이주하여 계속 사는 경우는 가구주(남편)를 기준으로 작성함

① ()년도부터 살고 있다

②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년도부터 살고 있다

③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

↳ **문 12번**으로 가십시오.

11-1. [이주 직전 주택의 위치]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직전에 살았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면 지역

②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

③ 중소도시 동 지역

④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

⑤ 기타(해외파견, 이민 등)

12. [이주 의사] 귀택은 향후 5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 **문 13번**으로 가십시오.

12-1. 어디로 이주할 생각이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읍 지역

②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면 지역

③ 다른 시/군의 읍 지역

④ 다른 시/군의 면 지역

⑤ 중소도시 동 지역

⑥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

⑦ 기타(해외파견, 이민 등)

12-2.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취업,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② 주택 구입, 계약 변동, 재개발 등 **주택 관련 사유**③ 가구원의 분가, 합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④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관련 사유**

⑤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갈등불화 등)

⑥ **자녀교육** 때문에⑦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기타 (↳)

13. [주택 건축년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 년도

14.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기타 (↳ _____)



↳ **문 15번** 으로 가십시오.

14-1. [지붕의 종류]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의 점유형태는?

① 자기 집 ② 전월세 ③ 무상 ④ 기타 (↳ _____)

16. [교통수단 보유] 귀댁은 교통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승용차 ☐ ② 화물차 ☐ ③ 오토바이 ☐ ④ 전동차(전동스쿠터)
☐ ⑤ 자전거 ☐ ⑥ 기타 (↳ _____) ☐ ⑦ 없음

20. [정신건강] 지난 1년(2020.09.01.~2021.08.31.) 동안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1.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귀하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좋아진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빠진 편이다

⑤ 매우 나빠졌다

Ⅲ. 보건의료 부문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2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귀택에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 보건의료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급 보건소이며,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의료시설을 말함

① 보건의료원

② 보건소(지소)

③ 보건진료소

④ 병(의)원

⑤ 한방병(의)원

⑥ 종합병원

⑦ 기타 ()

22-1. [의료기관 이용횟수]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한 월 평균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2회

③ 월 3~4회

④ 월 5회 이상

⑤ 거의 매일

22-2. [의료기관 이동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그 의료기관으로 가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 편도 소요시간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기타 ()

() 분

※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고르고, 이동에 소요되는 총시간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23. [공공의료기관 이용경험] 귀댁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의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3-1. [공공의료기관 이용 사유]

귀댁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응급상황이어서 ② 만성질환치료를 위해서
 ③ 건강검진을 위해서 ④ 기타 질환치료를 위해서
 ⑤ 물리치료를 위해서 ⑥ 예방접종을 위해서
 ⑦ 기타 (⇒)

23-2. [공공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3-3. [공공의료기관 비이용 사유]

귀댁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거리가 멀어서
 ② 시설이 낙후되어서
 ③ 이용하는 병·의원이 있어서
 ④ 동행자가 없어서
 ⑤ 전문성이 떨어져서
 ⑥ 기타(⇒)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

24. [응급실 이용 경험] 귀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25번** 으로 가십시오.

24-1.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 원인] 응급실 이용 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교통사고

② 농작업 안전사고

③ 가정내 안전사고

④ 농약중독

⑤ 응급질환발생

⑥ 기타 (↳)



24-1-1. [응급질환발생 유형] 응급질환 발생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어떤 질환 때문이었습니까?

① 심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 등) ②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③ 외상(골절 등)

④ 소화기질환(복통, 구토 등) ⑤ 호흡기질환(폐렴, 감기 등) ⑥ 기타(↳)

24-2. [응급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응급실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4-3. [응급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응급실 이용 시,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분 이내

② 20분 이내

③ 30분 이내

④ 1시간 이내

24-4.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응급실 이동 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다?

① 구급차

② 개인용 차량

③ 택시

④ 걸어서

⑤ 기타 (↳)



↳ **문 25번** 으로 가십시오.

24-5.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구급차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보건 의료 여건 전반

25. [질병치료 시 어려움] 귀택에 환자가 생길 경우, 그 환자의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치료비가 부담된다 ②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③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④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⑥ 기타 (⇨)
 ⑦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26. [필요 보건 의료 서비스 과목]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읍/면)에서 평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꼈던 진료과목이 있습니까?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진료과목을 우선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내과 ② 정신건강의학과 ③ 외과 ④ 정형외과 ⑤ 신경외과 ⑥ 산부인과 ⑦ 소아청소년과 ⑧ 안과 ⑨ 이비인후과 ⑩ 피부과 ⑪ 비뇨기과 ⑫ 치과 ⑬ 한방 ⑭ 기타 (⇨) ⑮ 불편을 느낀 경험이 없음	

27. [보건 의료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읍/면)의 보건 의료 시설이나 장비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8. [의료 인력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읍/면)의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9. [의료 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읍/면)의 전반적인 의료 시설 접근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IV.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

— 사회안전망

30.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귀댁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가입 여부	(2) 종류
① 가입 ⇨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 문 30-1번 으로 가십시오.
② 비가입 ⇨	① 의료급여(1종) ② 의료급여(2종) ③ 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음 ⇨ 문 31번 으로 가십시오. ④ 기타 (⇨)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한해

30-1.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됨 ② 부담되는 편 ③ 보통 ④ 부담되지 않는 편 ⑤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⑥ 분가한 자녀가 납부하여 잘 모름

31. [공적연금 가입현황] 귀댁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수급 중인 경우 포함) 가입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가구원 중 1명 이상 가입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국민연금 ☐ ② 공무원연금 ☐ ③ 사학연금 ☐ ④ 군인연금 ☐ ⑤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 ⑥ 미가입



31-1.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공적연금으로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됨 ② 부담되는 편 ③ 보통
④ 부담되지 않는 편 ⑤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⑥ 현재 연금 수급 중이어서 해당 없음

31-2. [공적연금 수급현황] 귀댁에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공적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① 국민연금 수급 ☐ ② 공무원연금 수급
☐ ③ 사학연금 수급 ☐ ④ 군인연금 수급
☐ ⑤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수급
☐ ⑥ 수급하지 않음

31-3.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③ 노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④ 만60세 경과
⑤ 기타 (→)

32. [기타보험 가입현황] 이밖에 귀댁은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구 분		가입	미가입
전체 농어촌 가구	(1) 산재보험	①	②
	(2) 고용보험	①	②
	(3) 주택연금	①	②
	(4) 민간의료보험	①	②
	(5) 개인연금	①	②
농어가에 한해	(6) 농업인안전보험	①	②
	(7) 농기계종합보험	①	②
	(8) 농작물재해보험	①	②
	(9) 농지연금	①	②

※ 민간의료보험에는 실손보험도 포함된다.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종신보험 중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한다.

— 건강상태 만족도 및 안녕감

33. [본인 건강상태 만족도]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4. [본인 건강과 비슷한 연령대 건강의 비교]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을 비슷한 연령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35. [1년 전 대비 본인 건강상태] 귀하께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36. [본인 건강과 하고 싶은 일] 귀하께서는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7. [동거가족의 건강상태 만족도] 귀하께서는 가족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동거가족이 없음

38. [건강 인식] 다음에 제시하는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01)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02)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두려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03) 나는 별 이유 없이 화내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04) 나의 기억력은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05) 생각이 뒤죽박죽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06) 현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07) 요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다	①	②	③	④	⑤
(08) 외롭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①	②	③	④	⑤
(09)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늘 행복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도 모르게 걱정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주 우울해지고 기분이 언짢다	①	②	③	④	⑤
(16)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때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돈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목에 무언가 꼭 막힌 것 같은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복지



‘만 65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

39.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귀하 또는 귀하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 분	인지도	이용 경험	만족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① 잘 알고 있음(ㄴ) ② 들어본 적 있음(ㄴ) ③ 모름(ㄱ)	① 있음(ㄴ) ② 없음(ㄱ)	①	②	③	④	⑤
(2)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① 잘 알고 있음(ㄴ) ② 들어본 적 있음(ㄴ) ③ 모름(ㄱ)	① 있음(ㄴ) ② 없음(ㄱ)	①	②	③	④	⑤
(3) 의치(틀니) 지원사업	① 잘 알고 있음(ㄴ) ② 들어본 적 있음(ㄴ) ③ 모름(ㄱ)	① 있음(ㄴ) ② 없음(ㄱ)	①	②	③	④	⑤
(4)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잘 알고 있음(ㄴ) ② 들어본 적 있음(ㄴ) ③ 모름(ㄱ)	① 있음(ㄴ) ② 없음(ㄱ)	①	②	③	④	⑤
(5)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종전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① 잘 알고 있음(ㄴ) ② 들어본 적 있음(ㄴ) ③ 모름(ㄱ)	① 있음(ㄴ) ② 없음(ㄱ)	①	②	③	④	⑤
(6) 노인건강진단사업	① 잘 알고 있음(ㄴ) ② 들어본 적 있음(ㄴ) ③ 모름(ㄱ)	① 있음(ㄴ) ② 없음(ㄱ)	①	②	③	④	⑤
(7) 가정방문간호사업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① 잘 알고 있음(ㄴ) ② 들어본 적 있음(ㄴ) ③ 모름(ㄱ)	① 있음(ㄴ) ② 없음(ㄱ)	①	②	③	④	⑤
(8)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① 잘 알고 있음(ㄴ) ② 들어본 적 있음(ㄴ) ③ 모름(ㄱ)	① 있음(ㄴ) ② 없음(ㄱ)	①	②	③	④	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안전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

40.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다음의 노인복지서비스 중 귀하 또는 귀하의 어르신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질병예방서비스(건강진단, 치매 조기검진 등)
- ② 질병치료서비스(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 ③ 가정봉사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 ④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
- ⑤ 주야간보호서비스
- ⑥ 교통수단 지원(병원 동행 등)
- ⑦ 노인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
- ⑧ 노인여가복지서비스
- ⑨ 기타 (⇒)
- ⑩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 장애인 복지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41.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귀하 또는 귀하의 장애가 있는 가구원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 ② 의료재활서비스
- ③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 ④ 이동편의지원서비스
- 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 ⑥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 ⑦ 장애자녀 학습지원서비스
- ⑧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⑨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
- ⑩ 기타 (⇒)

복지 여건 전반

42. [복지시설 이용] 다음은 지역 내 설치되는 주요 복지시설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시설 유형	거주 지역 내 설치유무	이용 경험	만족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영유아 복지시설	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없거나 모름(↕)	② 없음(↕)					
(2)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없거나 모름(↕)	② 없음(↕)					
(3) 장애인 복지시설	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없거나 모름(↕)	② 없음(↕)					
(4) 노인복지시설	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없거나 모름(↕)	② 없음(↕)					
(5) 지역복지시설	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없거나 모름(↕)	② 없음(↕)					
(6) 기타 사회복지시설	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없거나 모름(↕)	② 없음(↕)					

※ 지역 내 주요 복지시설 설명

(1) 영유아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시설
(2)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아동 여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치된 복지시설
(3)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 기능 회복 및 사회적 향상 도모를 위해 설치된 시설
(4)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5) 지역복지시설	지역사회 복지관(종합, 종별) 등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치된 시설
(6) 기타 사회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활센터 등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및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언어치료센터, 노인돌봄센터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2회 ③ 월 3~4회 ④ 월 5회 이상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 편도 소요시간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기타 ()	() 분

 '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② 시설이 있는지 몰라서
③ 바빠서 ④ 돈이 없어서
⑤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 ⑥ 기타()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①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	② 농업의 미래 보호
③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④ 주택의 보급 및 개량
⑤ 공용버스 등 교통수단 확보	⑥ 농촌주민 교육과 건강 증진
⑦ 농촌지역 사업체에 대한 투자 확대	⑧ 기타 (→)

검증원 이름		검증 결과	
--------	--	-------	--